2017
협동조합 사례집

www.coop.go.kr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8층)
Copyright©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All Contents Reserved

2017 협동조합 사례집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coop 협동조합
KOREA COOPERATIVES

2017
협동조합 사례집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협동조합
KOREA COOPERATIVES

2017 협동조합 사례집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차 례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5
저희는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돌봄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달고나 25
직원협동조합 협동조합 달고나 입니다. 현재 마포구의 상수–망원
일대에 2개의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와인소비자협동조합 45
와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마시는 법을 몰라도,
사랑하는 친구들과 소중한 가족들과 즐기시면 됩니다.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 65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과 함께라면 제주여행의 시작부터
기분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커피협동조합 89
커피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스페셜티 혹은 고객 맞춤형 커피를
주문제작 하는 것이 저희의 경쟁력입니다.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 111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은 돌담 관련 교육과 체험을 통해
돌문화에 녹아 있는 제주인의 삶과 지혜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139
현대의 모습과 옛 것이 이토록 잘 마주하고 있는 곳은
전주 한옥마을이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협동조합마을카페 161
이곳은 주민들이 모여 바른 먹거리와 서로가 가진 꿈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푸드 카페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송악동네사람들 183
송악동네 골골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의미와 사연을 담을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마을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생명나무 199
선생님과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끼리 토론하면서 학교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요.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 225
상담과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상담 교육전문기관입니다.

바름협동조합 247
청년들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먹고 살려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269
지역 내 축제나 공연기획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기획 기회를
제공해서 문화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인큐베이팅 단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아이엠 291
여행 · 숙박업과 교육 · 출판업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관광업과 관련하여
짐 배달서비스, 출판 디자인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Episode 01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저희는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돌봄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Step 01

우리사이

10고개 Q&A

1. 이곳은 협동조합이다?

우리사이: YES! 저희는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2. 이곳의 서비스는 돌봄서비스만 있다?

우리사이: NO! 이곳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재가장기방문요양서비스, 가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3. 이곳의 조합원 수는 적다?

우리사이: NO! 이곳은 130여명의 돌봄 서비스 전문가들이 사회적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 이곳은 최초의 돌봄형태의 협동조합모델이다?

우리사이: YES! 관악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하기 위해 1년간 사단법인을 준비했지만 잘 안됐다가, 2012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관악지역자활센터 내 가사간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자활사업단 3곳이 모여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했습니다.

Step 01 | Q&A

5. 이곳 사무국장의 주 업무는 조합의 비전이나 미션 실행 및 중재이다?

우리사이: YES! 저(사무국장)는 조합의 비전이나 미션에 맞추어 조합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조합원 간의 역할 충돌 시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성격을 중재하고 여러 조직의 특징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6. 이곳은 여성근로자가 많다?

우리사이: YES! 여성이 98%로 대다수 이고 남성이 2% 정도 있습니다. 돌봄 노동의 특성상 노인돌봄이나, 육아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여성근로자가 많습니다.

7. 이곳은 취약계층 고용이 40%이다?

우리사이: NO! 이곳의 출발 배경 자체가 저소득 여성분들의 정년 없는 고용을 추구하는 자활사업단이였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기준(취약계층 40% 이상 고용)을 넘어 현재 53%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8. 이곳에서 교육 없이 서비스를 운영한다?

우리사이: NO! 이곳은 '바른돌봄'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훈련과 서비스 가치 철학을 가르치는 전문가를 두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9. 이곳의 직원들은 쉽게 이직한다?

우리사이: NO! 이곳은 직원 평균 근속기간이 5.3년으로 타 기관에 비해 길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서 이용자의 재 구매율이 높습니다.

10. 이곳은 선언문을 낭독했다?

우리사이: YES! 2016년 3월 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지역 5개의 돌봄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좋은 돌봄 실천선언문'을 낭독하고 선포했습니다.

정답! 이곳은 바로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직원의 만족이 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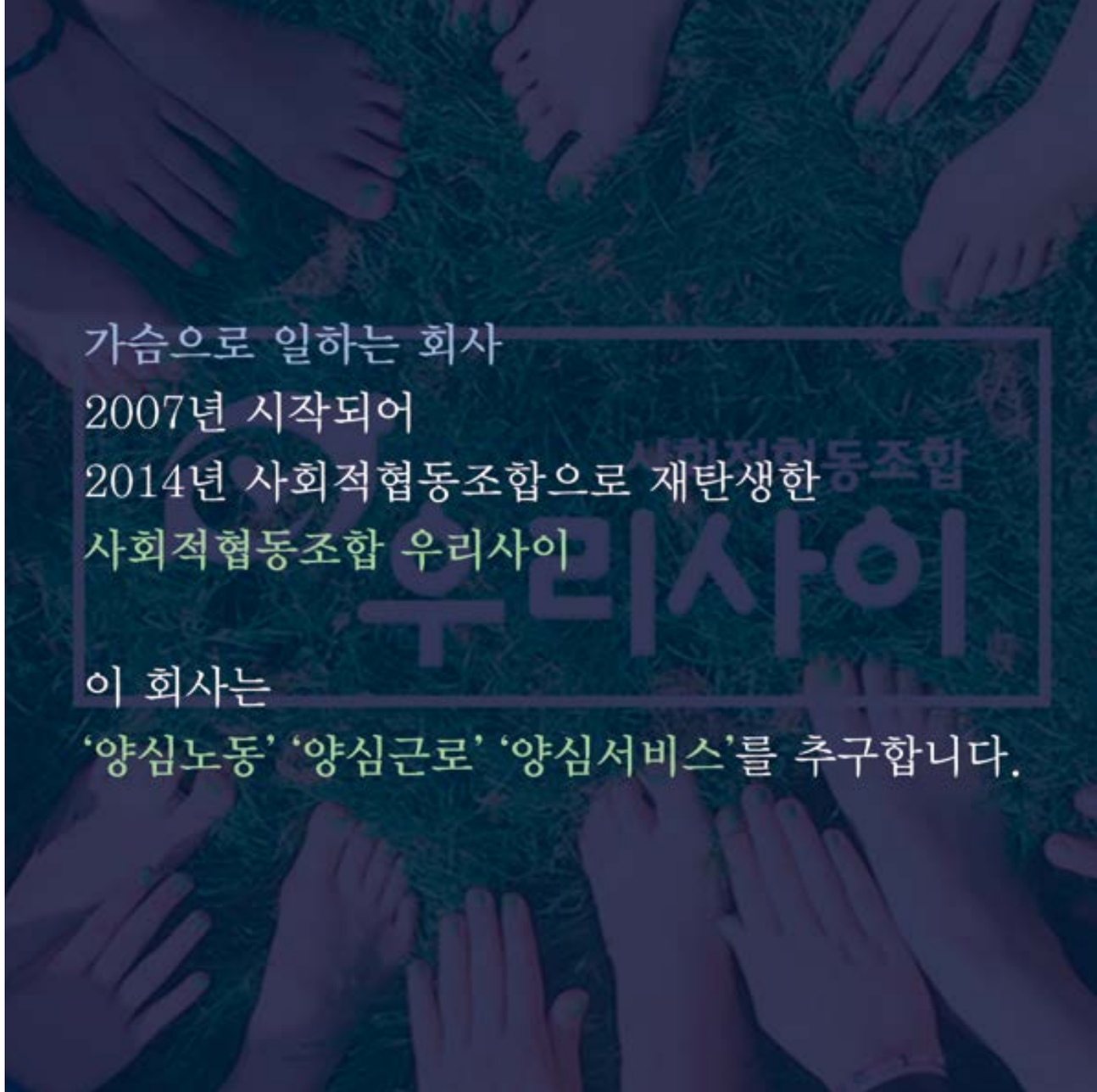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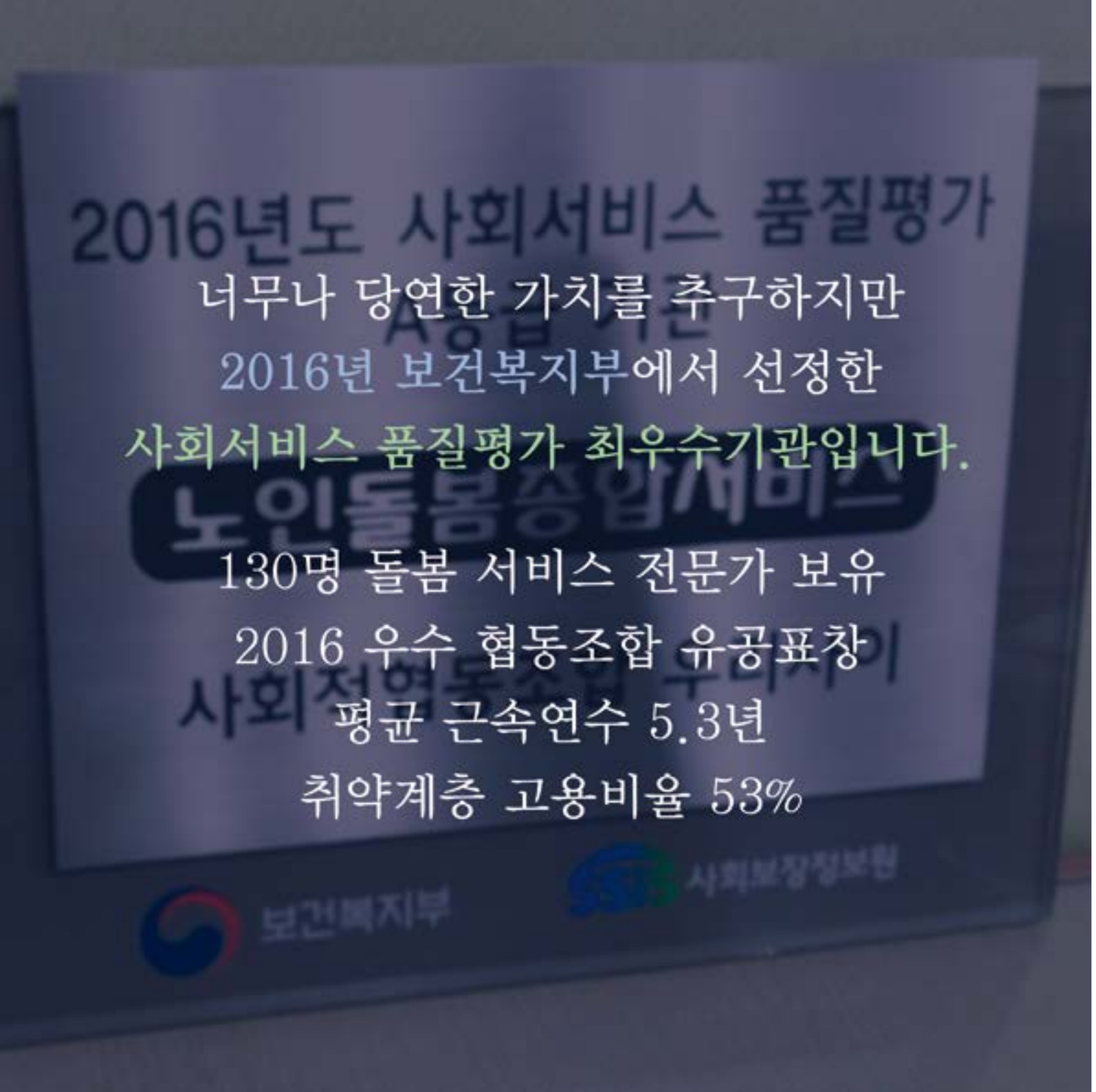
설립배경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바른돌봄을 할 수 있을까?

2014년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내 돌봄서비스사업단은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급여,
바른 돌봄 실현을 위해
직원인 요양보호사가
주축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는 6세 이상 65세 미만 1, 2등급
장애인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우리는
'좋은 일자리' 와 '바른돌봄'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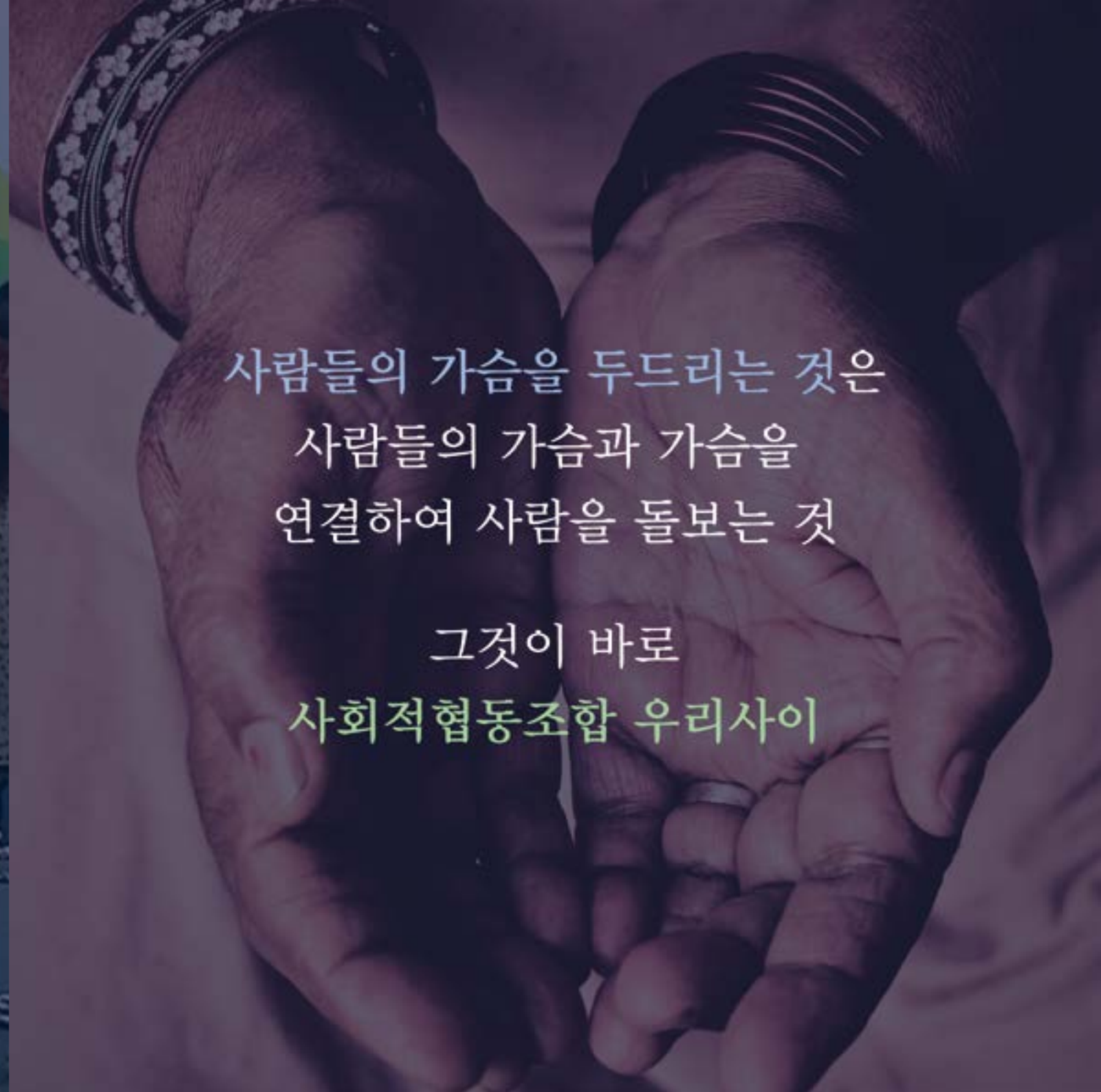
'좋은 일자리'
저소득 여성분들을 정년 없이
고용을 진행합니다.



'좋은 일자리'
돌봄교육 과 협동조합 교육을
교육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좋은 일자리'와 '바른돌봄'으로
근속년수가 늘어나니,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관계가
좋아지니,
제공자간의 유대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은
사람들의 가슴과 가슴을
연결하여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Step 02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INTERVIEW

인터뷰로 알아본 우수협동조합

| 인터뷰 – 김광제 이사장, 안설희 사무국장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이사장 김광제 입니다. 현재는 비상근으로 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조합의 경영 방향과 계획 등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따른 사업전략 수정 등 큰 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안설희입니다. 저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합의 비전과 미션에 따라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이고, 둘째는 조합원을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협동조합이다 보니 조합원의 역할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 이 세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중재하고 여러 조직의 특징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이사장 김광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안설희입니다."

Q. 어떻게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관악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을 모태로 시작했습니다. 자활사업단으로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노인돌봄도 하고, 장애인돌봄도 하고, 산모서비스도 하다가, 직원분들이 독립법인을 설립하자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나오기 전에 사단법인을 1년 준비했었지만 잘 안됐다가, 2012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어 협동조합을 준비하던 자활사업단이 모여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했습니다.

Q. 최근 활동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좋은 일자리와 바른돌봄 두 가지 입니다. 파견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이 교육내용과 서비스의 가치철학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양심노동, 양심근로, 양심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체계와 교육센터를 내부에 설립하는 것이 올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바른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용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전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인력 인건비를 지원 받아서 돌봄교육과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전문가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직원의 4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합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소액대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조합원 구조나 문화,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원도 관악구와 동작구에 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비는 여성이 98%이고, 남성이 2% 정도 인데, 남성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4-50대가 66%이고, 6-70대도 17.8% 정도입니다. 돌봄노동 자체가 노인돌봄이나, 육아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여성들이 하시기에 적합한 일자리이다 보니, 성별과 연령대가 이렇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사회적협동조합이다보니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4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기준만 충족시키지 않기 위해 현재 53%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분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출발 배경 자체가 저소득 여성에게 정년 없는 고용을 제공하기 위한 자활사업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우선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조직문화가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원들의 근속년수가 길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2014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 했지만, 관악지역자활센터에서 2007년부터 돌봄노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5.3년으로 다른 사회적기업에 비해서는 근속년수가 긴 편입니다. 두 번째는 근속년수가 길다보니까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관계가 좋습니다. 산후관리의 경우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이용 시 약 한 달 정도 이용이 가능한데, 계속 연장하셔서 아이가 3살까지도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둘째아이도 맡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역시 유대관계가 생겨서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 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사이도 끈끈합니다. 공식적인 월례회의 외에도 자체적으로 여행계를 만들어 실제로 여행을 가기도 하십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조합 내에서도 장애인/노인/산후 등 분야가 다르다 보니 분야별 구성원 간 교류가 부족합니다. 1년에 두, 세 번 정도 총회, 야유회, 집합교육 등을 하고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통해 더 많은 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징이 있나요?

이용자와 조합원들이 대부분 관악구 주민이지만 사업영역은 그보다 넓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근거리가 많고, 산모나 가정관리사 사업은 품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넓은 지역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관악구 특성이 서울 자치구 중 노인인구가 다섯 번째로 많고, 장애인 인구는 네,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때문에 노인돌봄이나 장애인돌봄 이용자가 많은 편이여서 이 부분에 대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Step 02 | INTERVIEW

Q. 향후 '우리사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공익기업이란 성격을 지키면서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돌봄이 민영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공공 · 공익적인 서비스를 확고하게 제공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방송에 저희의 사례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가 점검을 하며 저희의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전국 484개소 돌봄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노인돌봄과 산후관리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저희의 사업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직원들의 자부심과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좋은 돌봄의 취지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2016년 3월 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지역 5개 돌봄 협동조합과 함께 '좋은 돌봄 실천선언문'을 선포 했습니다.

Q.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에선 아직 생소한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우리 사회는 지금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증가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협동이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였을 때 더 많은 힘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협동의 경험이 필요하고,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동의 가치를 우리 같은 기업이 많이 보여주어야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꿈꾸는 사람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장소이죠."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의결권은 1인 1개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출자금을 냈다는 것은 조합 운영에 공동으로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가 좋더라도 조합원 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와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결정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죠.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우수협동조합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앞으로 포부나 다짐 말씀해주세요.

"돌봄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전 단계별 사업을 개발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10년 20년 사이에 꼭 이루고 싶고, 이 목적을 위한 2020년도까지 플랜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우처사업만 수행하고 있지만, 정말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 향후에는 장례상조서비스까지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돌봄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Step 03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우수협동조합 5W

WHY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바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지역 사회의 의미 있는 공익기업

WHAT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산후관리서비스), 재가장기방문요양서비스, 가정관리서비스(가사서비스)

WHEN

2014.10.15.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설립 인가

WHO

130여명의 돌봄 서비스 전문가들이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WHERE

서울시 관악구 양녕로 61 3층(은천동 498-3번지 3층)
홈페이지: http://woorisai.co.kr/
전화 : 02-883-0142
이메일 : woorisai01@hanmail.net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Episode 02

협동조합 달고나

인근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했던 전직자영업자, 새로운 형태의 직장을 고민하던 지인과 함께 자립적, 자급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자 직원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Step 01 | Q&A

Step 01

달고나

10고개 Q&A

1. 2개의 매장을 통한 요식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YES! 망원동 일대에 「비스트로 달고나」, 「복지마트」 2개 매장에서 맛있는 음식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달고나

2. 조합원의 구성은 20대로만 구성되어 있다?

NO!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달고나

3. 협동조합 달고나는 직원 협동조합이다?

YES! 상수역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사장과 직원들이 요식업 기반 자영업의 한계를 절감하여 대안을 모색하던 중 인근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했던 전직자영업자, 새로운 형태의 직장을 고민하던 지인과 함께 자립적, 자급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자 직원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 달고나

4. 협동식당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YES!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뜻으로 3개 사업장 중 하나인 평양냉면 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 달고나

5. 권위적인 분위기, 위계질서가 강한 곳이다?

NO! 기본 요식업계가 도제식이나 위계질서가 강한데 비해 권위적인 분위기가 없는 편입니다. — 달고나

6. 「달고나 협동식당」은 상수동에 있던 레스토랑의 이름이다?

YES! 자영업으로 8년간 상수동에서 운영했던 「비스트로 달고나」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 달고나

7. 직원조합이 편집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월간 소식지를 발행한다?

YES! 직원조합원이 편집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월간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내부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조합의 공유 가치와 운영방향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 달고나

8. 운영위원회가 따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NO! 각 사업장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주 2회 이상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기동성과 효율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 달고나

9.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는 시장을 통해서 구매한다?

NO! 매출을 높이기 위해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독자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한 자체 농장을 운영하여 향후 자립적인 생산기반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 달고나

10. 개인사업자 폐업 후 협동조합 달고나의 사업장으로 재오픈 하였다?

YES! 홍대 인근에서 8여 년 간 「비스트로 달고나」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가게로 키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협동조합 달고나의 두 번째 사업장으로 재 오픈 했고, 과거 쌓았던 고객과의 관계 덕에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은 편입니다. — 달고나

정답! 이곳은 바로 **"협동조합달고나"** 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그렇게 변해도 되요?

맛집의 상징 상수, 합정, 망원
그 속의 인기 식당 주인이던
그들이 변했다.

8년 동안 운영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비스트로 달고나'

잘나가던 상수동 **파스타 집**이
냉면과 해장국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직장을 고민하던 지인들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자 직원협동조합 설립”

사장과 직원들이 요식업 기반 **자영업의 한계를 절감,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했던 전직자영업자 새로운 형태의 직장을 고민하던 지인들 **전시기획자, 미디어관계자,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안 식당

‘비스트로 달고나’,

테이크 아웃 할 수 있는 빵과 음식을 판매하는

‘빵식당 복지마트’

공통점이라곤 요식업이라는 것 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후라이팬이 날아다닌다고???”

이들의 주방문화는 도제식 위계질서가 강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공통의 목표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돕는
협동을 바탕으로 이루어가는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 경영이 엄청 어려울 것 같지만,
직원조합원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는 **월간 소식지를 발행**하고
각 사업장의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주2회 이상 운영**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메뉴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독자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한 자체 농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립적인 생산기반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홍대/망원 인근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업 운영 상 느끼는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규칙에 얽매이기 보다 협동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협동조합 달고나를 응원합니다





비스트로 달고나
빵식당 복지마트



Step 02

협동조합 달고나

INTERVIEW

인터뷰로 알아본
우수협동조합

| 인터뷰 – 김정훈 이사장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조합소개 부탁드립니다.

직원협동조합 협동조합 달고나 입니다. 현재 마포구의 상수-망원 일대에 2개의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tep 02 | INTERVIEW

"현재 마포구의 상수-망원 일대에 2개의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협동조합을 시작했나요?

8년여 동안 상수역에서 개인사업자로 운영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비스트로 달고나」의 사장과 직원들이 요식업 관련 자영업의 한계를 절감하며 대안을 모색하던 중, 인근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했던 전직 자영업자, 새로운 형태의 직장을 고민하던 지인과 함께 자립적, 자급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자 설립하였습니다.

Q. 조합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합원은 자영업자나 직원으로서 한식당, 양식당, 베이커리에서 경력이 있는 요식업 경험자 뿐 만 아니라 전시기획자, 미디어관계자, 학생 등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Q. 조합원 구조나 문화,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20대부터 40대가 주를 이루고, 요식업에 경험이 있는 조합원이 많습니다.

Q.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3개의 식당을 통해 요식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스트로 달고나」는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안 메뉴 기반의 서양식당입니다.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매장으로, 저희 조합 설립의 모태가 된 매장입니다. 홍대인근에서 8년 넘게 운영한 경쟁력 있는 식당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빵식당 달고나」로 빵 중심의 서양식당입니다.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빵과 빵에 곁들일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하고 저녁식사 시간에 스프, 샐러드, 생선요리 등 와인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경험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식을 만드는 것과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체력을 비축하세요."

Q. 사업과 운영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모든 순간들이 기억에 남고 에피소드로 남겨질만한 실수가 많아서 특별한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 않네요.

Q. 최근 활동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작년에 협동조합을 설립하며 「비스트로 달고나」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했고, 「빵식당 달고나」를 망원동에 오픈하고, 올해 8월 망원동에 빵 식당 「복지마트」를 오픈했습니다.

Q. 식당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식을 만드는 것과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체력을 비축하세요.

Step 02 | INTERVIEW

Q. 달고나협동조합만의 특별한 협동조합 운영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규칙의 규칙, 성문법 보다는 불문법이라고 할까요. 이제 걸음마를 땐 신생조합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일 뿐입니다. 하지만 규칙에 얽매이기 보다는 서로 이해하며 협동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Q.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조직문화가 있나요?

기존 요식업계가 도제식이나 위계질서가 강한데 반해 〈협동조합 달고나〉는 권위적인 분위기가 없는 편입니다.

Q.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함께 잘사는 세상 만들기

"기존 요식업계가 도제식이나 위계질서가 강한데 반해 〈협동조합 달고나〉는 권위적인 분위기가 없는 편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선 아직 생소한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이라는 단어의 환상만을 가지고 출발할 경우 현실의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Q. 우수협동조합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앞으로 포부나 다짐 말씀해주세요.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조합을 우수조합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협동조합을 운영하기에 불편한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에 힘을 모아 주세요.

Step 03

협동조합 달고나

우수협동조합 5W

WHY

협동조합달고나는 요식업 관련 자영업의 한계를 절감하며 대안을 모색하던 중, 인근 식당, 카페 운영 자영업자, 새로운 형태의 직장을 고민하던 지인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설립

WHAT

이탈리안 〈비스트로 달고나〉
빵식당 〈복지마트〉

WHEN

2016. 6. 17.
협동조합달고나 설립 신고 수리

WHO

직원조합원을 포함해서 20명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음

WHERE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길 14, 1층
전화 : 02-336-6985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 @togetherdalgona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Episode 03

한국와인소비자 협동조합

맥주나 소주 마실 때와 마찬가지로 와인 역시 그냥 마시면 됩니다.
와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마시는 법을 몰라도, 사랑하는 친구들과 소중한 가족들과 즐기시면 됩니다.
와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와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tep 01

한국와인소비자협동조합

10고개 Q&A

1. 이곳은 국내 최초 와인 관련 협동조합이다?

와인 YES! 이곳은 국내 최초로 와인소비자들의 필요성에 의해 직접 출자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2. 이곳의 조합원들은 모두 와인 전문가이다?

와인 NO! 와인을 위한 와인문화를 지양하는 이곳은 조합원 가입에 제약이 없습니다. 와인을 편안하게 즐기는 것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했습니다.

3. 조합원들은 와인 상품을 일반시중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와인 NO! 이곳은 와인의 적정가 공급을 위해 출자금을 의무화하는 대신 유통마진 없이 조합원에게 와인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40-50%가량 낮은 적정가격으로 공급합니다.

4. 이곳 조합원들은 조합원 가입선물을 받는다?

와인 YES! 조합원 최초 가입 시 이곳만의 특별한 가입 선물인 "미션 서드 카베르네-시라2013"와인 한 병과 "공식 와인 INAO 잔"세트(4개입)을 받습니다. 또한 상품 구입 시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 누적, 와인 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조합원 가입선물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이 또 있다?

와인 YES! 제휴 레스토랑 이용 시 코르크 차지(cork charge)*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에게만 제공되는 차별화 된 서비스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에서 진행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연 2회의 와인문화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르크 차지: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와인을 전문 레스토랑에 들고 가서 마실 경우 서빙 받는 조건으로 와인 가격의 일부, 혹은 병당 지불하는 일정금액

6. 이곳은 와인을 직접 수입한다?

와인 NO! 수십 년간 발굴하고 개척한 와인 브랜드를 거대한 대기업 유통채널이라는 장벽에 막혀 한 순간 빼앗긴 와인 수입업체가 상당수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가방 하나 메고 발로 직접 뛰어다니며 해외 와이너리*를 찾아 다녔던 영세 와인 수입사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그들과 협력하여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또한 이곳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와이너리 : 포도주를 만드는 양조장

7. 이곳은 올바른 와인 문화 정착을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와인 NO! 맥주나 소주 마실 때와 마찬가지로 와인 역시 그냥 마시면 됩니다. 와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마시는 법을 몰라도, 사랑하는 친구들과 소중한 가족들과 즐기시면 됩니다. 꼭 와인을 마시는 모두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와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와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 이곳의 와인은 특별하다?

와인 YES! 와인 수입사가 추천하는 와인 중 테이스팅 과정을 거쳐 와인을 선정하는데, 테스팅에 국가대표 소믈리에, 호텔 지배인, 식음료관련과 교수 그리고 와인초보자도 참여합니다.

9. 조합원들에게만 제공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

와인 YES! 고품질의 고가 와인을 특별한 가격에 일정기간, 일정수량만큼만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Today's pick'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전 세계 유명 와이너리, 실력 있는 양조자의 와인을 유통마진 없는 최상의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와인 NO! 안타깝게도 온라인 상품 구매, 결제가 안 되고 고품질 와인 상품 재고 확보 및 윤리적 소비를 위해 특정 조합원의 다량 구매를 방지하고자 오프라인 구매만 가능합니다. 상품 구매를 원하시는 조합원들은 홈페이지의 [예약박스]를 통해 구매를 원하는 상품을 예약 할 수 있습니다.

정답! 이곳은 바로 **"한국와인소비자협동조합"** 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그 와인 어디서 사셨나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의 한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맥도날드 햄버거와
함께 마시고 있는 음료는?

바로 와인입니다.



뭔가 있어보였던 술이였던 와인은
이제 대중적인 술이 되었는데요,

국내 와인시장 역시 급격하게 성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와인가격, 꽤 부담스러우시죠?
대기업 중심의 독점 시장구조와 고급화 전략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현지 가격보다

최대 6배 높은 가격에 와인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유통 업체마다** 와인 가격이 달라서
찝찝한 적도 있으실 텐데요.

2017년 현재, 일반 와인 초보자부터
애호가, 호텔 · 국가대표 소믈리에 등
268명의 조합원이 모여
같이 와인을 즐기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수입사와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
광고비, 판촉비 등 불필요한 운영비를 최소화하여
시중가격의 40~50%가량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특1급 호텔 소믈리에, 식음료 관련 학과 교수,
국가대표 소믈리에 등 와인전문가와 일반애호가,
와인 초보자 등이 참여한 **와인 평가단의 테이스팅을 통해**
선정된 품질 걱정 없는 와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와인이라고 하면 뭔가 격식을 차려서 마셔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즐겁게 와인을 마시기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찾아가는 와인학교'를 운영하여
사람 중심의 와인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착한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공정무역와인, 유기농와인등을 유통하고,

서대문구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체험교육사업
'와인인문학'
서대문구 청소년진로직업센터의 진로체험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와인인문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중심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경제 협동화사업'등의 청각장애인 와인문화체험,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 체험 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와인 유통과정의 공정함과
와인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Step 02

한국와인소비자협동조합

INTERVIEW

인터뷰로 알아본 우수협동조합

| 인터뷰 – 박정진 이사장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조합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와인소비자협동조합(이하 한와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정진 입니다. 저희는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와인을 좋아하는 소비자가 직접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상품 다양화와 가격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윤리적인 소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와인의 다양성 부재, 죽는 순간에도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는 '와인'

커피는 세상의 모든 커피를 다 마시고 죽을 수 있지만, 와인은 죽는 순간에도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의 우리들이 선택 할 수 있는 '가격과 품질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요소를 다 감안하더라도 시장을 독점하는 대형 수입업체들에 의해 와인은 더 이상 문화가 아니라 상품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와인의 즐거움인 가격의 다양성, 맛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등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와인의 다양성만큼 유통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건강한 구조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게 했습니다.

Q. '건강한 유통의 다각화'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 된 거군요?

네, 관세 · 주세를 제외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와인을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유통업체들이 남기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유통독점에 의해 발생하는 과도한 할인 경쟁은 앞으로 할인할 가격까지 감안하여 소비자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통의 악순환으로 인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와인의 가격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구매 대상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한와소의 시작은 어떠했나요?

2014년 초 한 대학의 와인커뮤니티 마스터과정 수강생 중 국내 와인유통구조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이들과 와인을 강매대상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주도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Q. 한와소의 조합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가입하나요?

현재 270명 정도의 조합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통해 조합원 가입 문의를 하시는 분, 프리마켓에서 만나 현장에서 바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와소와 함께하는 지역주민 참여서비스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합원 연령층과 소비층이 다양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즐기는 와인"

Q. 와인은 어떻게 즐겨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와인을 국내 수입하는 과정에서 와인을 '문화'가 아닌 '상품'으로 잘못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 알코올을 접하는 시기에 어른들이 소주나 맥주의 역사, 제조방법, 마시는 법, 어울리는 음식 등 이런 걸 배워가며 마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부슬 부슬 내리는 날, 뜨끈하고 칼칼한 라면을 끓여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김치조각에 소주 한잔을 곁들여 '캬~'하는 맛을 즐기듯 누구한테 먹는 법을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언제든 마실 수 있는 술 일 뿐입니다. 그냥 눈으로, 코로, 입으로, 느낌으로 육감을 자극해 기분에 따라 즐기면 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즐기십시오.

'사람 중심'의 와인교육을 실천하는 한와소

Step 02 | INTERVIEW

Q.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와소 교육'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께요.

저희는 아카데미적인 교육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와인과 삶'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인문학적인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직업 소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당연히 배워야 하겠지만, 타인을 인식하며 악세사리 같은 이유를 목적으로 와인을 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와인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Q. '한와소'만의 특별한 운영 방식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와인은 뭐가 좋은가요?" "와인은 어떻게 마셔야 하나요?" "와인 잔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행복하게 마실 수 있는 환경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것'그런 것들이 저희가 와인을 통해 '사람 중심의 와인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목표이고, 조합원에게 항상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참고로 와인 잔은 손으로 잡아서 입으로 마시면 됩니다.

"마시고 난 와인은 빈병일 뿐이다"

지불능력에 대한 분류로 문화의 금수저, 은수저가 나뉘고 있습니다. 다 마시고 나면 빈병일 뿐인 와인인데, 와인은 함께 마시고 있는 사람들과의 즐거움 안에서 와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우수협동조합으로 선정되셨는데, 앞으로 포부나 다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소통의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요소와 소비요소 밸런스를 유지하며 가치전달과 상품전달이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와인소비자협동조합'은 유통과정의 공정함과 와인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맛과 품질'을 보장하는 공정무역와인을 통해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Step 03

한국와인소비자협동조합

우수협동조합 5W

WHY

2014년 초, 한 대학의 와인커뮤니티 마스터과정 수강생 중 국내 와인유통 구조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이들과 와인을 강매대상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주도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WHAT

좋은 와인을 적정가격에 소비자(조합원)에게 공급하고, 편안하고 즐기는 와인문화를 선도하여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청년의 꿈에 투자하는 기부프로젝트와 조합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WHEN

2015. 3. 15.
한국와인 소비자 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WHO

현재 270명의 조합원이 한국와인소비자협동조합의 즐거움과 가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WHERE

본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2층
강남지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9길 45, 1층
오프라인 매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2층 서대문구지식산업센터 207호
홈페이지 : www.winecoop.or.kr
조합원 상담센터 : 02- 555-6646
이메일 : info@winecoops.com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Episode 04

제주도렌트카 협동조합

적정가격과 합리적인 서비스로 제주 공정렌트카 운동에 앞장서는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과 함께라면 제주여행의 시작부터 기분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1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

10고개 Q&A

1. 이곳은 렌트카회사다?

YES! 이곳은 제주 소규모 렌트카 회사들이 모인 렌트카 회사입니다. 렌트카

2. 이곳은 규모가 작다?

NO! 이곳의 규모는 AJ 렌트카, 롯데 렌트카 등 대기업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차량 3,000대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렌트카

3. 이곳은 협동조합이라 렌트하기가 복잡하다?

NO!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렌트카

4. 이곳은 렌트카 업체들이 모인 곳이라 어떤 차를 빌리게 될지는 알 수 없다?

NO! 차량을 렌트할 때 차종은 물론 연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

5. 이곳에서 차를 렌트하면 당일에 취소될 일이 없다?

YES! 이곳은 등록된 차량에 대해 완전 예약시스템으로 이뤄져 예약한 차량이 여행 당일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렌트카

Step 01 | Q&A

6. 이곳은 제주에서 가장 저렴하게 차량을 렌트할 수 있다?

NO! 이곳은 가격이 아닌 품질로 승부하는 렌트카 업체입니다. 렌트카

7. 이곳은 차량 렌트 업무만 담당한다?

NO! 지역 캐릭터와의 콜라보는 물론 지역문화 사업도 앞장서는 제주협동조합입니다. 렌트카

8. 이곳에 렌트카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기는 어렵다?

YES!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합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뜻을 같이 하는 업체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

9. 이곳은 서비스가 뛰어나다?

YES! 이곳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 가격을 통한 종업원 대우개선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 시스템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렌트카

10. 이곳과 함께 하면 제주 여행이 즐겁다?

YES! 적정가격과 합리적인 서비스로 제주 공정렌트카 운동에 앞장서는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과 함께라면 제주여행의 시작부터 기분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

정답! 이곳은 바로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 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93

26,265

10,731,754

〈2015 기준〉

제주도 렌트카 업체 93개 사

제주도 렌트카 26,265대

한 해 제주도 관광객 10,731,754명

제주도 여행객을 위한

든든한 발 렌트카

*제주여행 주요 교통수단은 렌트카(69.4%)
제주관광공사, '2016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제주 지역 렌트카 업체
11개가 모이면?

렌트카 문화를 바꾸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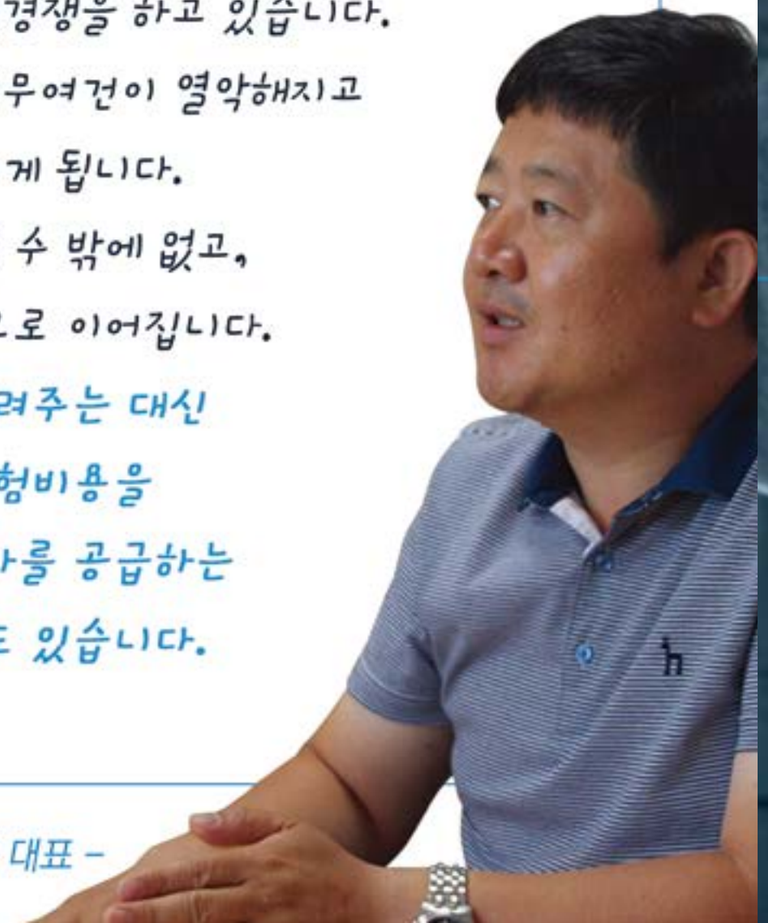
제주도렌트카 협동조합

공정거래

"

현재 제주도의 렌트카업체들은
많은 업체들이 과다출혈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종업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노동집약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당연히 서비스가 저하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다시 고객의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낮은 가격으로 차를 빌려주는 대신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보험비용을
높인다거나 낡은 자동차를 공급하는
꼼수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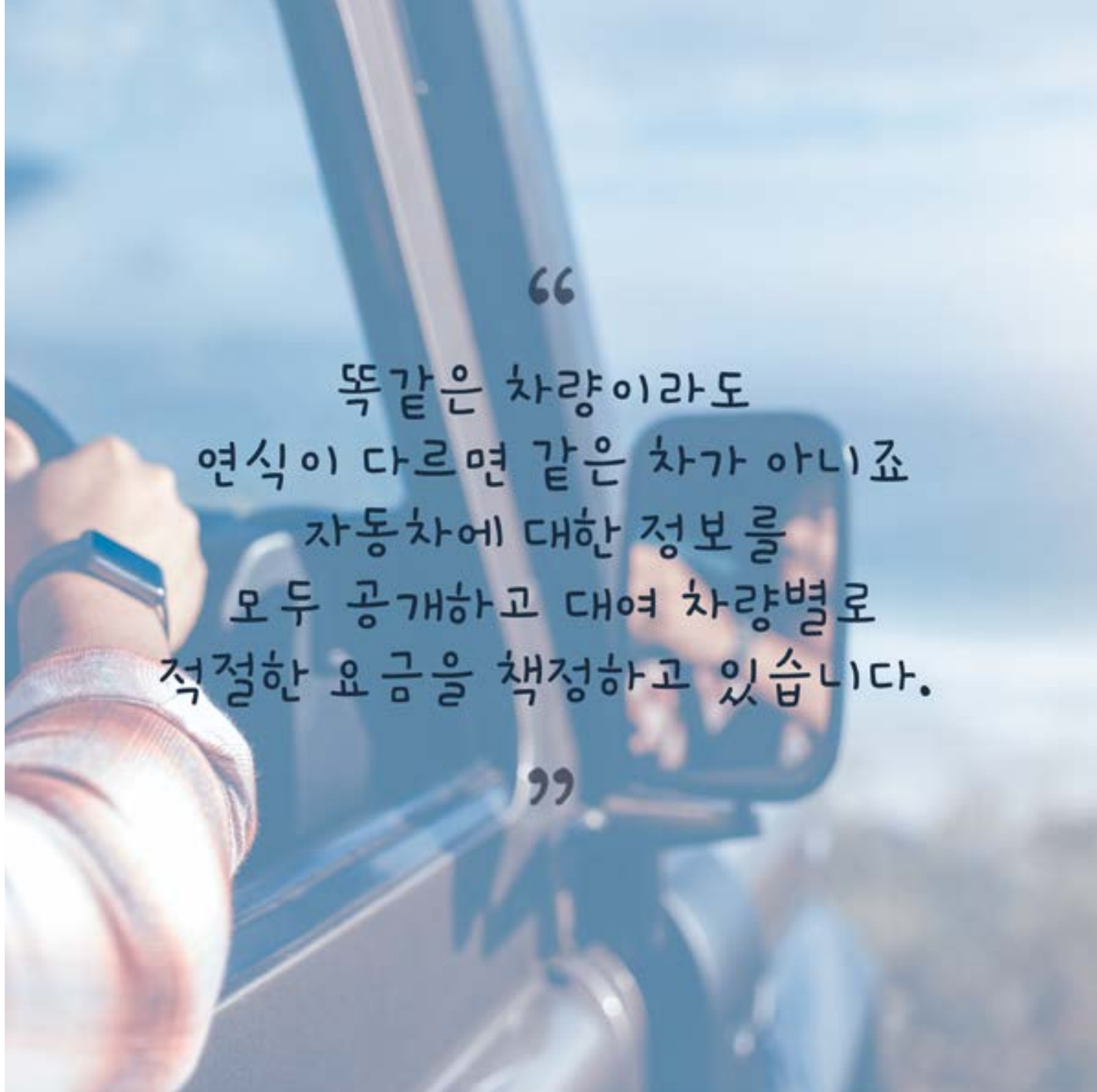
"



–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 정호규 대표 –

그래서 11개 렌트카 업체가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앞으로 고객들과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나갈
사업 자체의 공동화를 통해 운영의 편리성을 높이고,
원가 마진을 줄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똑같은 차량이라도
연식이 다르면 같은 차가 아니죠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대여 차량별로
적절한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

승용차 뿐 만 아니라 SUV,

중대형 버스 등 다양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주도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

“

제주도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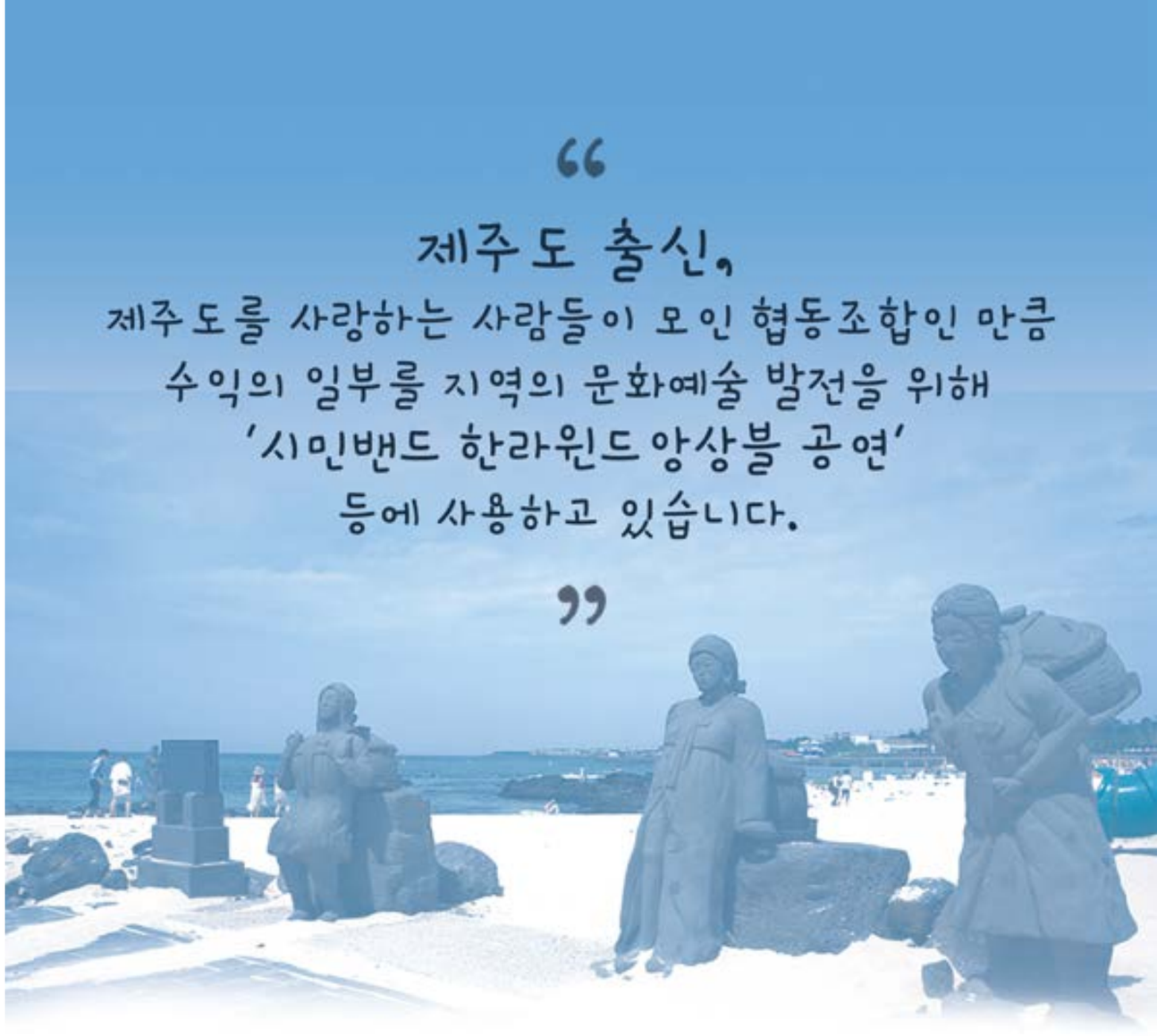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협동조합인 만큼

수익의 일부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민밴드 한라윈드앙상블 공연’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11개 업체가 모이다 보니 협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성과를 보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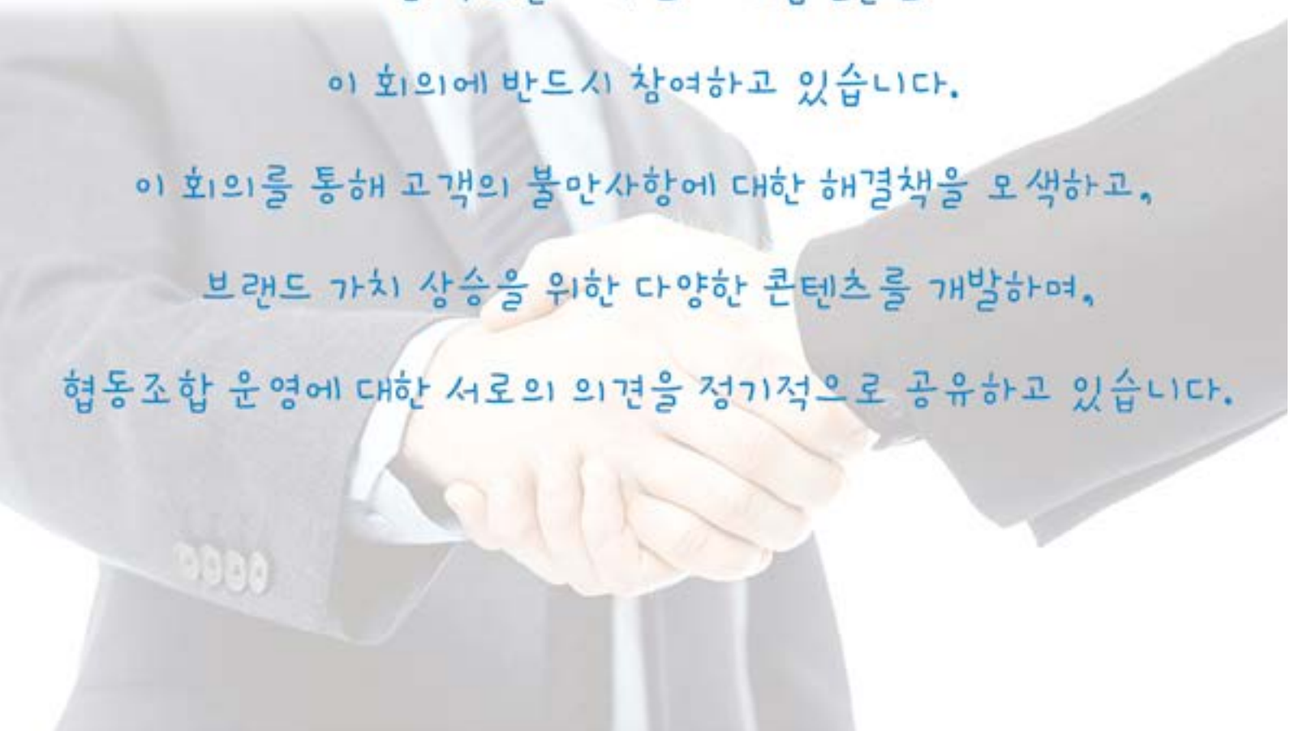
다음 목표를 세우는데 조합원들은

이 회의에 반드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JRCOOP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

제주도를 사랑하는 만큼 이윤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
앞으로 제주 렌트카의 기준을 만들고
앞선 문화를 선도하길 기대합니다.



Step 02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

INTERVIEW

인터뷰로 알아본 우수협동조합

| 인터뷰 – 정호규 이사장 |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제주에서 여행의 시작은 렌트카 업체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도에는 무려 100여개의 렌트카 업체가 경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출혈경쟁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 결과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여행 당일 예약이 취소되거나 차량이 바뀌는 등의 문제로 여행 기분을 상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뜻을 함께 하는 11개의 렌트카 업체가 모여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여행객에게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높은 복지를 실천하는 기업을 꿈꾸는 곳이에요.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조합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은 11개의 제주도 토종 렌트카 업체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입니다. 원활한 협업시스템을 위해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업체들이 모여, 마케팅, 차량관리 및 사업운영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원가 마진을 줄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가격이 저렴한 업체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진 시스템의 질 개선방안과 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 고객과의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합니다. 예전의 제주 여행은 7~8월 성수기, 그 외에는 비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7월 전에 차를 사서 9월에 판매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주도에 성수기와 비수기가 따로 없고 메르스나 사스 등의 악재가 있어도 제주도 여행객은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광도시 제주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Q. 어떻게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주도 출신으로서 오랫동안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언젠가 괜찮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으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주도의 렌트카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고,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1개의 렌트카 업체가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제주도 렌트카의 기준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는 회사라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렌트카 문화를 바꾸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렌트카 업체들은 많은 업체들이 과다출혈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종업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노동집약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당연히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고객의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낮은 가격으로 차를 빌려주는 대신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보험비용을 높인다거나 낡은 자동차를 공급하는 꼼수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운영은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렌트카 문화를 바꾸려고 합니다. 가격이 아닌 서비스로 경쟁하고, 종업원에게 공정한 임금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일종의 공정 렌트카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제주도의 렌트카 업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주도의 렌트카 업체들이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공정무역, 공정여행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산자에게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업체의 물건을 구입함으로서 공정한 사회기반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현재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의 렌트카 업체에도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공정거래가 필요합니다. 그걸 공정렌트카문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렌트카 업체도 노동집약적 사업에서 탈피해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시스템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렌트카 사업이 성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 렌트카업체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도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렌트카 업체도 많지만 차를 가진 도민들도 많다보니 제주도 내에 운행하는 차량이 정말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사고도 많고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차량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행정적으로 제어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싼 가격만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렴한 차량을 찾을수록 반대급부가 반드시 생깁니다. 차량 대여료가 낮으면 차량을 많이 가동 할 수밖에 없고, 가동을 많이 하면 그만큼 차량 상태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직원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직원의 노동 강도가 높으면 고객 서비스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차량 대여료의 적정선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무너지면 피해는 렌트카 업체와 이용자 모두가 보게 됩니다.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Step 02 | INTERVIEW

Q. 협동조합으로서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대기업과 경쟁하는 점이 어렵지 않나요?

아직은 미숙하지만 렌트카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결국 저희가 제주도의 대표 렌트카 업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주도 대표 렌트카 업체로 정착하기 위한 과정에 있고요. 예를 들어 제주도의 렌트카라는 점을 알리고 친숙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제주대학교에서 만든 캐릭터인 '뚱이'를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의 셔틀버스에 삽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단순히 제주대학교에서 만든 캐릭터라서 '뚱이'를 선택한 것만은 아닙니다. 보통 캐릭터는 동물로 만드는데 '뚱이'는 아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잖아요? 가족여행이 많은 제주도에 어울리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제고를 위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Q. 특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주도 출신 혹은 제주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애착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모인 렌트카 업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아닐까요? 애정이 높은 만큼 열정도 큽니다. 제주항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근거리 유모차/카시트업체를 연계하는 등의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수익을 지역사회의 문화 및 예술 발전을 위해 환원해야겠다는 데에도 전 구성원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밴드 한라윈드앙상블 공연을 협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자긍심도 큽니다. 조직이 작은 만큼 운영이나 인터넷시스템도 빠르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약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스템이 정말 편리합니다. 고객이 가장 알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죠. 날짜와 사용시간, 원하는 차종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과 가격이 나오는데요,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차량을 예약하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예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이 중복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도 없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문고를 운영하면서 불만사항을 듣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 협동조합이 아닌 타 업체의 사례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신뢰 제고를 위해 하고 있는 차량 정보 공개도 점차 모든 렌트카 업체로 확대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른 렌트카 업체도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투명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차량이라고 해도 연식이 다르면 같은 차라고 할 수 없거든요. 좋은 차를 타고 싶으면 상응하는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운에 맡기는 식으로 렌트업을 진행한다면 서로 신뢰하기 어려울 겁니다.



Q. 수익에 대한 배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당에 대한 문제는 정관에 정해져있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아직은 투자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렌트카 문화는 고쳐야 할 부분도 많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렌트카 문화를 선도하면서 동시에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합원들의 생각도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Step 02 | INTERVIEW

Q. 서비스업체로서 조합원 교육 훈련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각각의 사업체가 모인 협동조합으로서 서비스 표준화가 중요하지만, 업무가 바쁘다보니 근무시간 중에 단체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업무 후에 교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조합원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서비스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자 회사의 종업원 교육을 책임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사원의 만족이 높아야 한다는 데 조합원들 모두 동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이나 야유회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집채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Q. 조합원간 소통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저희협동조합은 마케팅업체를 통해 11개사의 홍보 및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보고하고 다음 목표를 세우는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장사와 사업은 다르잖아요? 사업은 회사뿐 아니라 구성원의 만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계속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우수협동조합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앞으로 포부나 다짐 말씀해주세요.

제주도에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자금을 모아 만든 협동조합인데, 제주도에서 생산한 각종 농 · 수 · 축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섬채라는 한식뷔페를 열었어요. 유통과 생산이 결합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만족도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저희 협동조합은 중 · 소형차 뿐 만 아니라 SUV 및 중대형 버스 등 다양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을 활용해 지역 협동조합과 적극 협업하고, 청년을 고용하고, 제주도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을 설립한 연혁에 비해 가시적으로 성과도 나고 매출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협동조합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순히 수익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집중할 생각은 없습니다. 장사와 사업은 다르잖아요? 이윤추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제주도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뜻을 함께 하는 업체가 온다면 함께 하면서 제주 렌트카의 기준을 만들고 앞선 문화를 선도하고 싶습니다.

Step 03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

우수협동조합 5W

WHY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은 과다 출혈 경쟁 중인 포화상태의 제주도 렌트카 사업체가 상생하고 협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립했습니다. 종업원과 사업주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수익을 지역사회의 발전에 환원하며, 제주도 청년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지역 대표 사업자협동조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WHAT

1. 3500여대 제주도렌트카 보유로 여유로운 예약 가능
2. 실시간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한 예약가능
3. 제주항 무료셔틀버스 운영
4. 근거리 유모차/카시트업체 연계로 고객편의제공
5. 유명캐릭터(뚱이)와의 제휴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WHEN

2016. 5. 16.
제주도렌트카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WHO

에코렌트카, 제주카카오렌트카, 무지개렌트카, 제주유명렌트카, 예스렌트카, 통일렌트카, 로알렌트카, 메이저렌트카, 썬렌트카, 오라렌트카, 갤럭시렌트카

WHER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성 1길 62(도두이동)
전화 : 064-749-4888
홈페이지 : www.jrcoop.co.kr
이메일 : jrcoop@jrcoop.co.kr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Episode 05

부산커피 협동조합

커피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스페셜티 혹은 고객 맞춤형 커피를 주문제작 하는 것이 저희의 경쟁력입니다.

Step 01

부산커피협동조합

10고개 Q&A

1. 이곳이 부산에 자리 잡은 건 부산이 커피의 숨은 메카이기 때문이다?

부산커피 YES! '커피의 70%가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다.'는 관세청 자료에 따라, 물류 배송 과정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하여 부산에 터를 마련했습니다.

2. 이곳에 가면 고품격 커피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부산커피 YES! 최고급 원두 '케냐 AA'에, 100% 무균수 · 비가열 살균 시스템이 더해져 특유의 신선함 · 감칠맛이 극대화된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과 부산 간 내륙 운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3. 이곳의 직원들은 모두 커피 중독이다?

부산커피 NO! 커피 회사라고 모두가 커피 중독이라는 편견은 버리세요! 물론 새로운 생두가 들어올 때마다 맛을 확인하기 위해 로스팅 포인트에 맞춰 30~40번 정도 커피를 맛보긴 하지만, 조합원들의 건강을 위해 아주 소량의 커피만을 맛보고 뱉는 섬세한 작업을 거치기에 절대 커피 중독에 걸릴 일은 없다는 거! 다만 '이곳'의 커피를 한 번 맛보면 마성의 깊은 향과 풍미에 헤어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이곳에는 비밀 창고가 있다?

부산커피 YES! 커피를 좋은 상태로 보관하기 위한 신비로운 창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상태라 함은 특정온도와 습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일정한 상태로서의 유지를 의미하죠! 따라서 창고 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시키거나 제습을 하는 등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tep 01 | Q&A

5. 이곳의 커피는 원두에도 차이가 있다?

부산커피 YES! A형과 E형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A형은 신맛이 존재하고 E형은 고소한 맛이 강한 편입니다. 이 차이는 기본 재료의 배합에 따른 차이, 로스팅 포인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6. 이곳에서는 교육도 이루어진다?

부산커피 YES! 이곳은 교육센터를 통해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 SCA 국제 바리스타 과정, 창업반, 핸드드립 취미반 등 다양한 커피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이곳은 한중비지니스 포럼에도 소개된 바 있다?

부산커피 YES! 이곳은 한중비지니스 포럼에 참여하여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행사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도 지원했습니다.

8. 이곳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 학생들의 연령은 편중되어 있다?

부산커피 NO! 정년퇴직 후 카페 창업을 생각하는 중장년층에서부터 직접 커피를 만들어 먹고 싶어 하는 청년층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수강합니다.

9. 이곳이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이윤의 극대화이다?

부산커피 NO! 이윤도 중요하지만, 상생을 통한 커피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한 커피를 공급하는 것이 '이곳'이 1순위로 추구하는 바입니다.

10. 이곳의 커피는 부산시청 매점에서도 판매된 바 있다?

부산커피 YES! 현재에는 계약이 만료되어 판매되지 않지만, 이전에 이곳 커피는 부산시청매점에도 납품된 바 있으며 납품 당시 반응도 좋았습니다.

정답! 이곳은 바로 **"부산커피협동조합"** 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33.5 개월”

커피숍 창업 후 폐업까지 시간

*2015 BC카드 매출분석



1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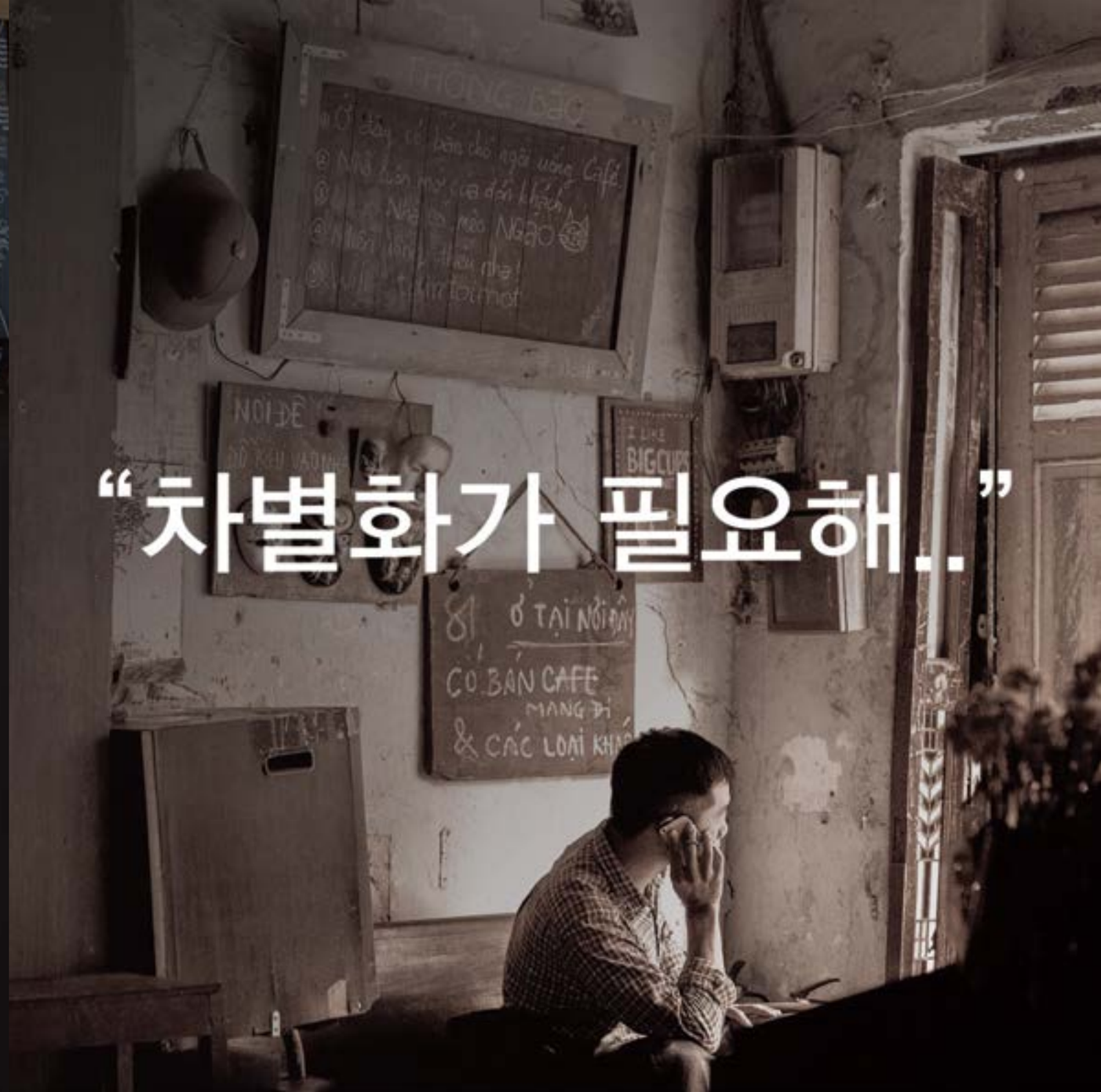
커피숍 신규사업자

VS

폐업사업자

965

*2015 BC카드 매출분석



"차별화가 필요해.."

그래서

커피 생산 유통에 종사하고 있는

부산지역 커피교육센터, 커피물류,
커피머신, 커피재료, 더치커피 사업처 등

커피 관련업에 종사하는 5명이 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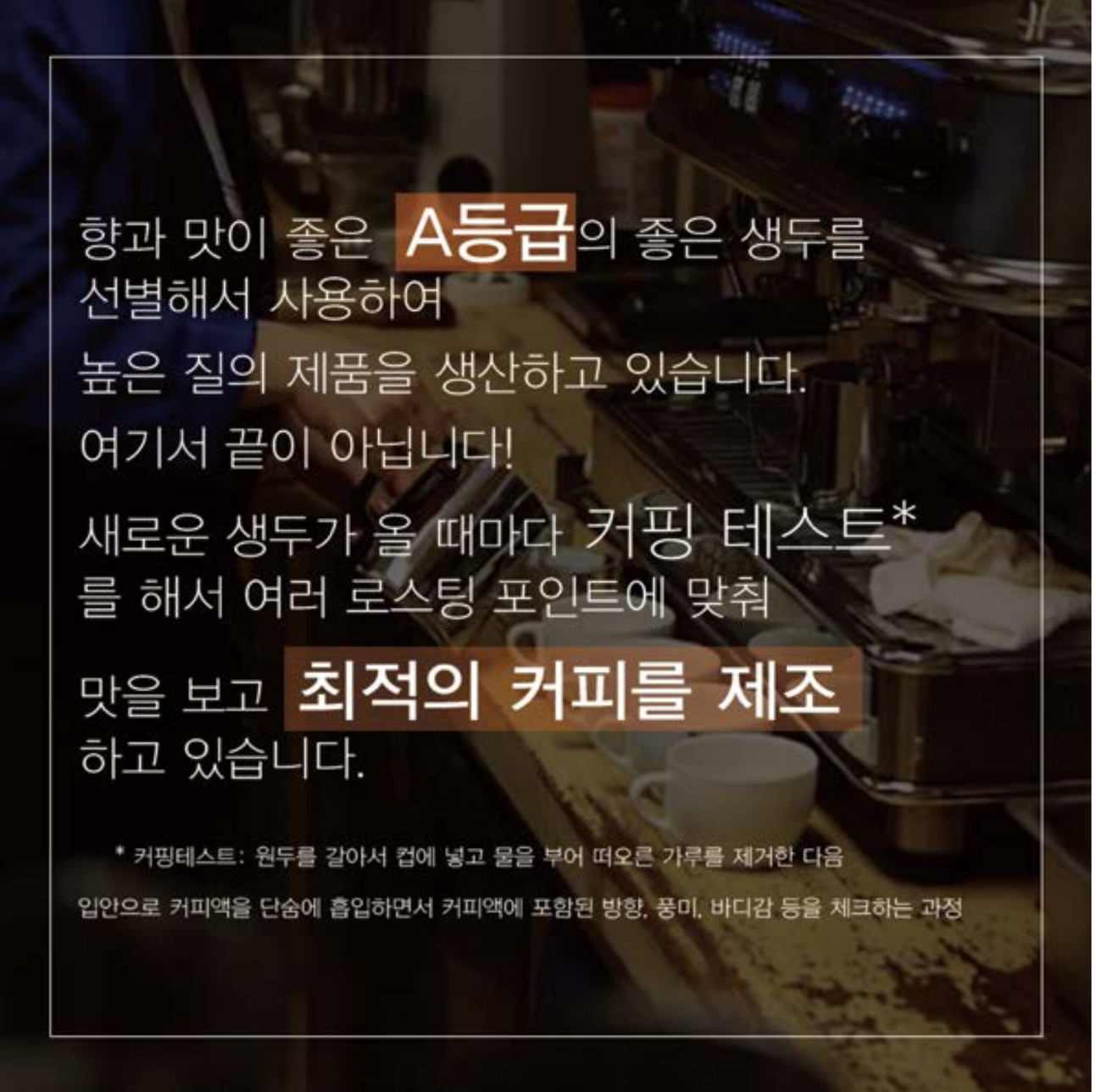
커피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로스터가 직접 섬세하게 로스팅한
스토리가 있는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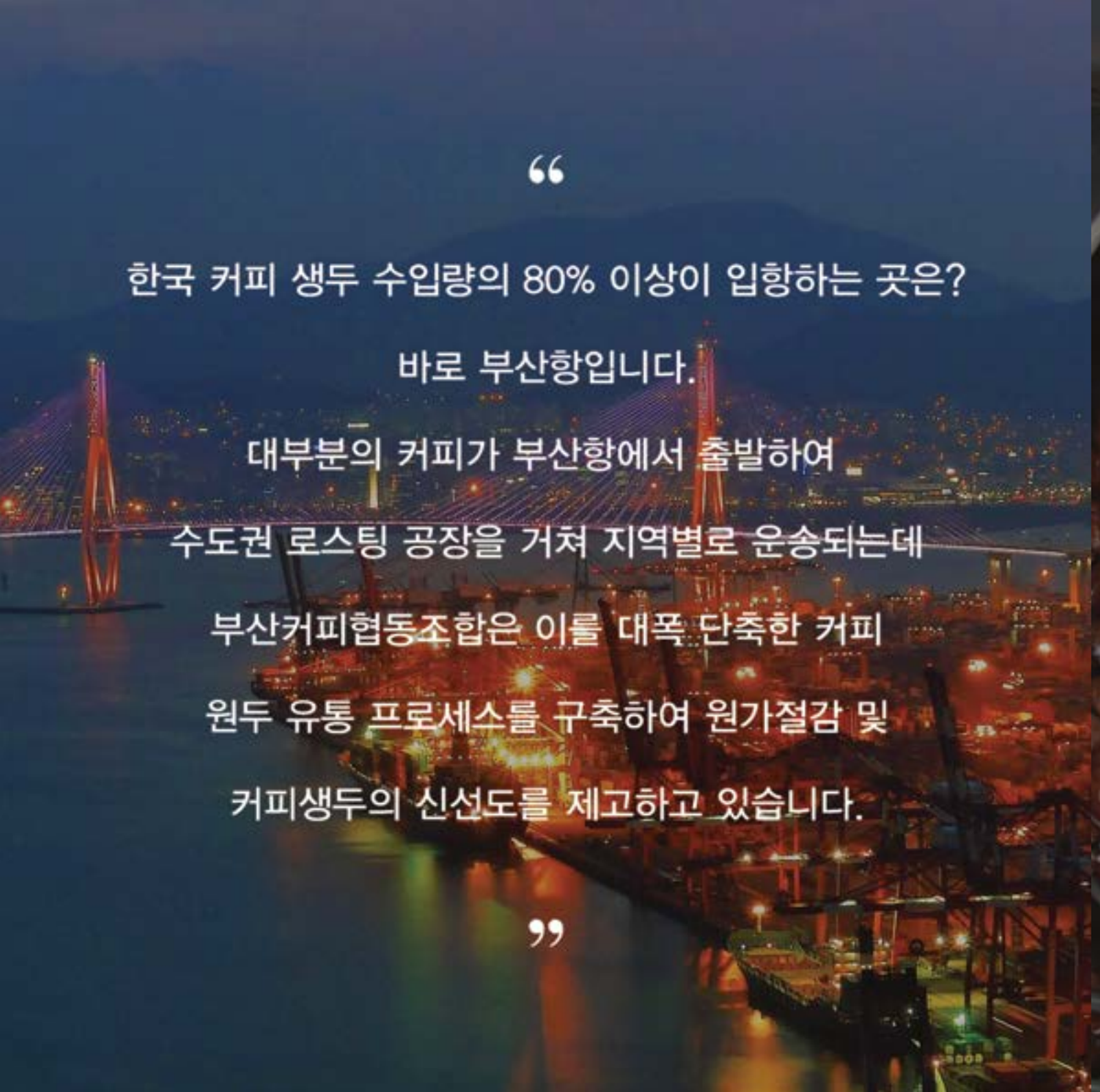
부산커피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하나요?



커피 생두 수입에서, 원두커피 제조,
더치커피 제조 및 유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A BUSAN COFFEE COOPERATIVE ASSOCIATION 우리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

한국 커피 생두 수입량의 80% 이상이 입항하는 곳은?

바로 부산항입니다.

대부분의 커피가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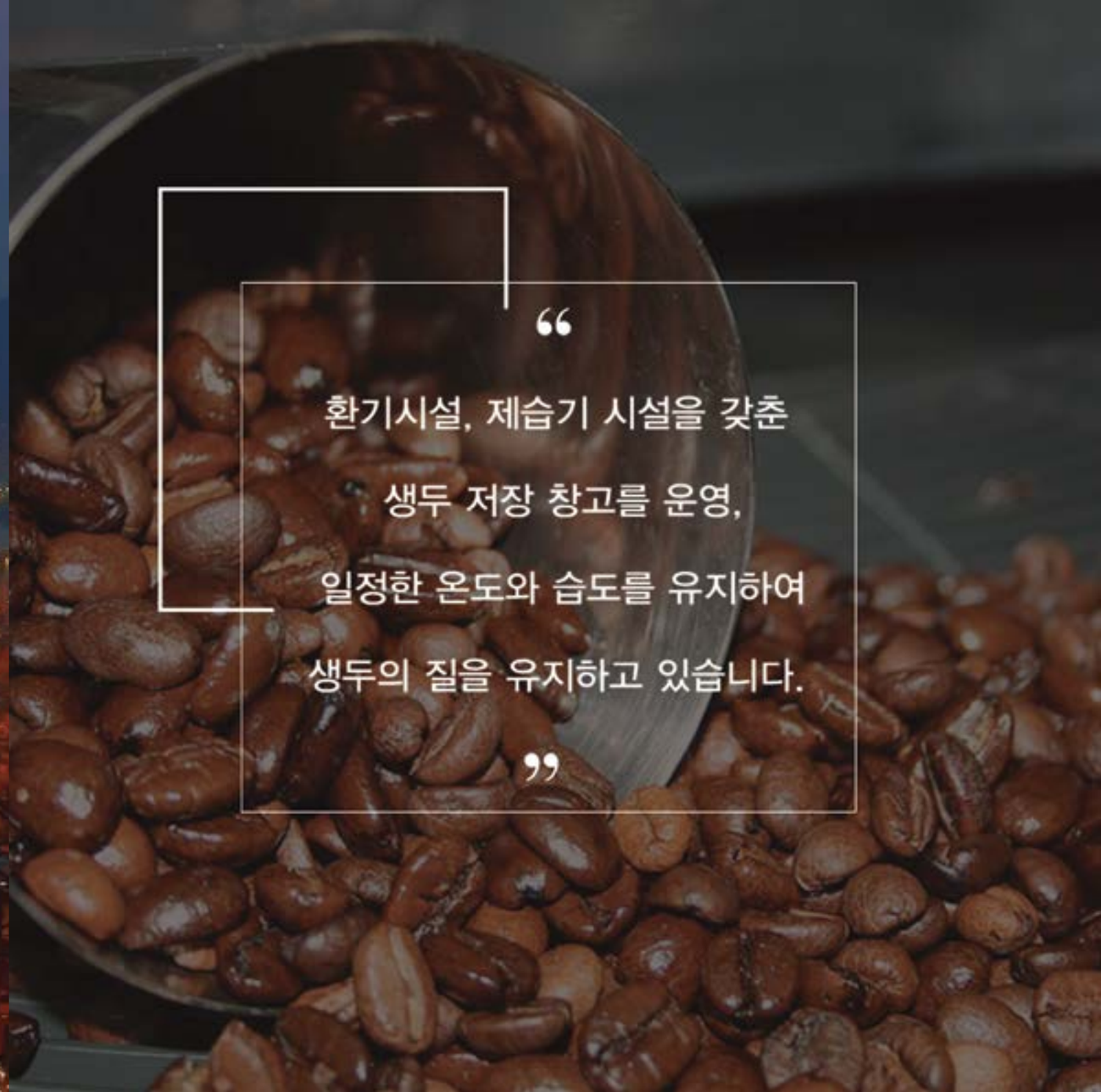
수도권 로스팅 공장을 거쳐 지역별로 운송되는데

부산커피협동조합은 이를 대폭 단축한 커피

원두 유통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원가절감 및

커피생두의 신선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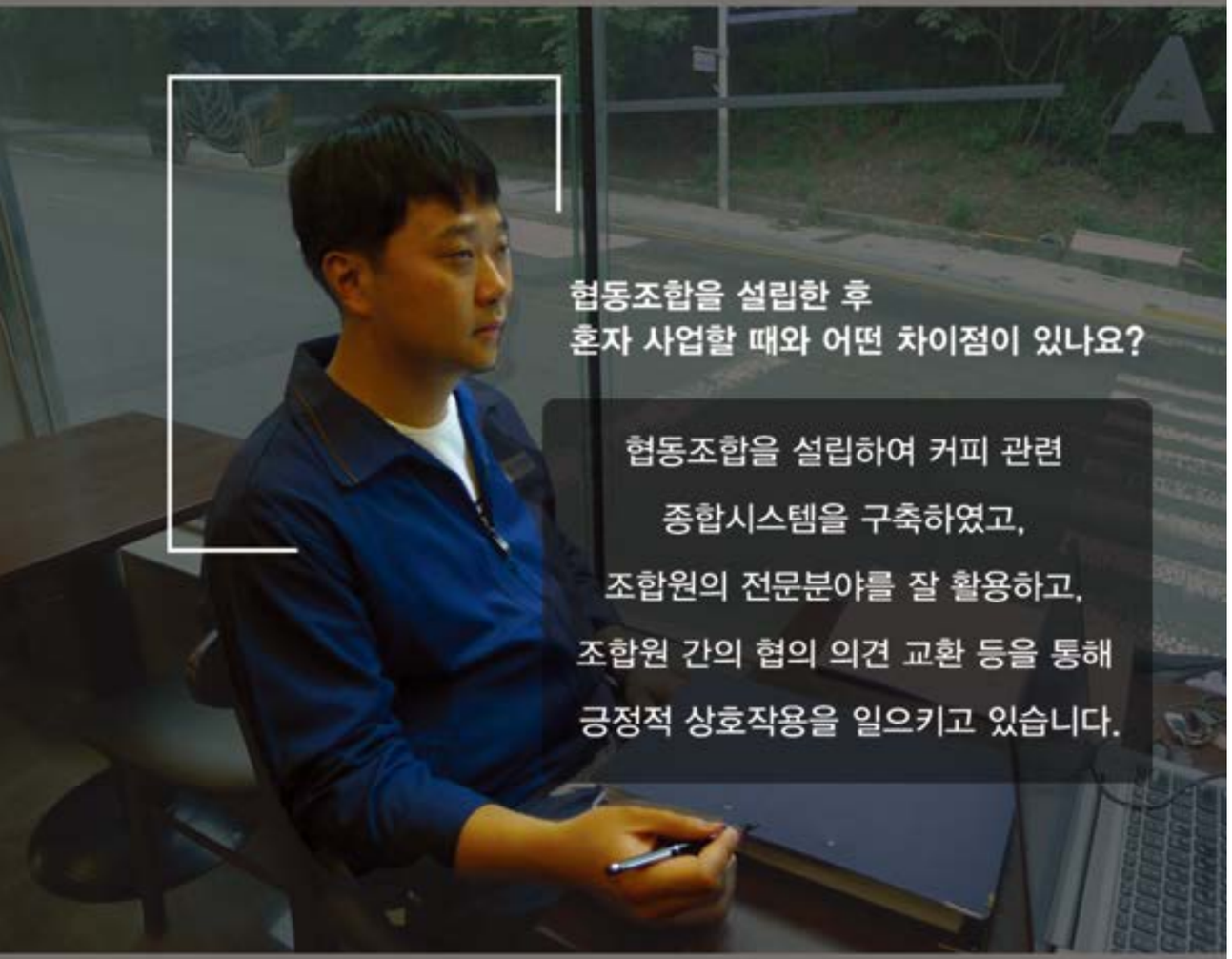
환기시설, 제습기 시설을 갖춘

생두 저장 창고를 운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생두의 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혼자 사업할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커피 관련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조합원의 전문분야를 잘 활용하고,
조합원 간의 협의 의견 교환 등을 통해
긍정적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 호텔과 뷔페, 지역 베이커리 체인점 등
대형거래처에 커피를 납품하고 있으며,
원두커피 머신 무상임대 사업을 통해 원두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 20% 증가했고,
조합원도 5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Step 02

부산커피협동조합

INTERVIEW

인터뷰로 알아본
우수협동조합

| 인터뷰 – 백도훈 이사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커피협동조합에서 무역과 유통, 생두수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백도훈 이사입니다.

Q.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2014년 협동조합기본법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사업자 5명이 힘을 모아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부산커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바리스타 사업부, 생두수입부, 로스팅 사업부, 더치커피 제조 사업부, 커피머신 렌탈 사업부등 총 5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어떻게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커피 시장은 굉장히 커졌고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으로 커피 시장에 뛰어들어서는 그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중 하나인 협동조합을 통해 협업을 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Q. 조합원 구조나 문화,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성비는 6:4 정도로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30~50대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Q.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얻은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동작업장을 활용하여 공동 연구 및 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그동안 개인사업자로서 겪어야 했던 많은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생산 및 연구를 통해 제조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 시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동 작업장을 제품 제조 뿐 만 아니라 조합원 간의 회의 및 컨설팅 장소로 사용하고, 조합원들이 언제나,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커피 시장의 트렌트에 따라 스페셜티 혹은 고객 맞춤형 커피를 주문제작 하는 것이 저희의 경쟁력입니다."



Q. 조합 설립 후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2014년 설립 이후 커피 로스팅 양은 매년 30% 이상, 매출은 15% 이상 증가했고, 5개 남짓한 거래처에서 시작해서 현재 100개 이상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장비를 마련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업무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커피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스페셜티 혹은 고객 맞춤형 커피를 주문제작 하는 것이 저희의 경쟁력입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하고, 임직원을 포함 현재 약 20명으로 구성되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Step 02 | INTERVIEW

Q. 지역사회에 하고 계시는 공헌 활동이 있나요?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인 상생, 사회 환원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 또는 장애인 인력채용으로 현재 10명의 장애인 사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부터 '장애인 표준 사업장' 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직원들에게는 커피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산남부경찰서 관할 체류 외국인의 범죄예방을 위해 '다문화 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부산진역에서 진행되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무료 급식소와 커피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부터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Q. 커피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을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제 계획인 동시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우수협동조합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앞으로 포부나 다짐 말씀해주세요.

우수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협동조합을 잘 운영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을 운영 하시는 분들 중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힘을 내어 잘 해쳐나가길 바랍니다. 저희 협동조합도 조합원을 점차 늘려나가면서 조합원 내부적으로도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나가고자 합니다.



Step 03

부산커피협동조합

우수협동조합 5W

WHY

커피 업계 자영업 종사자들이 커피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라 자영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WHAT

부산커피협동조합에서 자체 커피 판매
부산커피교육센터 운영
다양한 행사에 참여 – 케이터링 서비스도 지원

WHEN

2014년 2월 10일
부산커피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WHO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의 독점에 맞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WHERE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319번 가길 53(대연동 1층)
전화 : 1877 – 1212
이메일 : busancoffee@naver.com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Episode 06

돌빛나예술학교 협동조합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은 돌담 관련 교육과 체험을 통해
돌문화에 녹아 있는 제주인의 삶과 지혜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Step 01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

10고개 Q&A

1. 이곳은 학교다?

돌빛나 NO! 이곳은 제주 돌문화를 지키기 위해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2. 이곳은 조합원이 소수이다?

돌빛나 YES! 이곳의 조합원은 5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3. 이곳은 방송에도 나왔다?

돌빛나 YES! SBS '생활의 달인', KBS '휴먼다큐 제주와 나' 등에 이곳의 이사장이 돌담 전문가로 출연했습니다.

4. 이곳은 세계 최초의 돌담 관련 단체이다?

돌빛나 NO! 돌담은 영국과 아일랜드, 캐나다 등 돌이 많은 세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고 협회도 많습니다.

Step 01 | Q&A

5. 이곳은 세계적으로 활동한다?

돌빛나 YES! 이곳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돌담협회를 방문할 예정이고, 앞으로 세계 돌담기관들과 다양한 교류활동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이곳 돌담 체험 및 아카데미에는 남자만 수강한다?

돌빛나 NO! 수강생의 절반이 여성 입니다.

7. 이곳의 수강생은 점점 늘고 있다?

돌빛나 YES! 1기 수업의 수강생은 20명이었지만, 4기 수업의 경우 1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 60명을 선정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8.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을 관리한다?

돌빛나 YES! 이곳이 지키고자 하는 돌담 중 밭담이 2013년 1월 정부지정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 4월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9. 이곳은 이론 없이 실기만 가르친다?

돌빛나 NO! 이곳의 아카데미는 이론반과 실기반이 있습니다. 이론반은 산담, 동자석, 초가집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제주도 돌문화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고, 실기반은 돌담을 쌓는 기술을 배우고 돌담을 답사하며 돌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10. 이곳은 제주의 유일한 돌담관련 단체이다?

돌빛나 YES! 제주의 돌담을 계승하고 발전하고자 활동하는 단체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정답! 이곳은 바로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 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인생의 쉼표가
필요한 때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발길 닿는 곳마다
길게 이어진 허리춤까지
오는 돌담길의 소박한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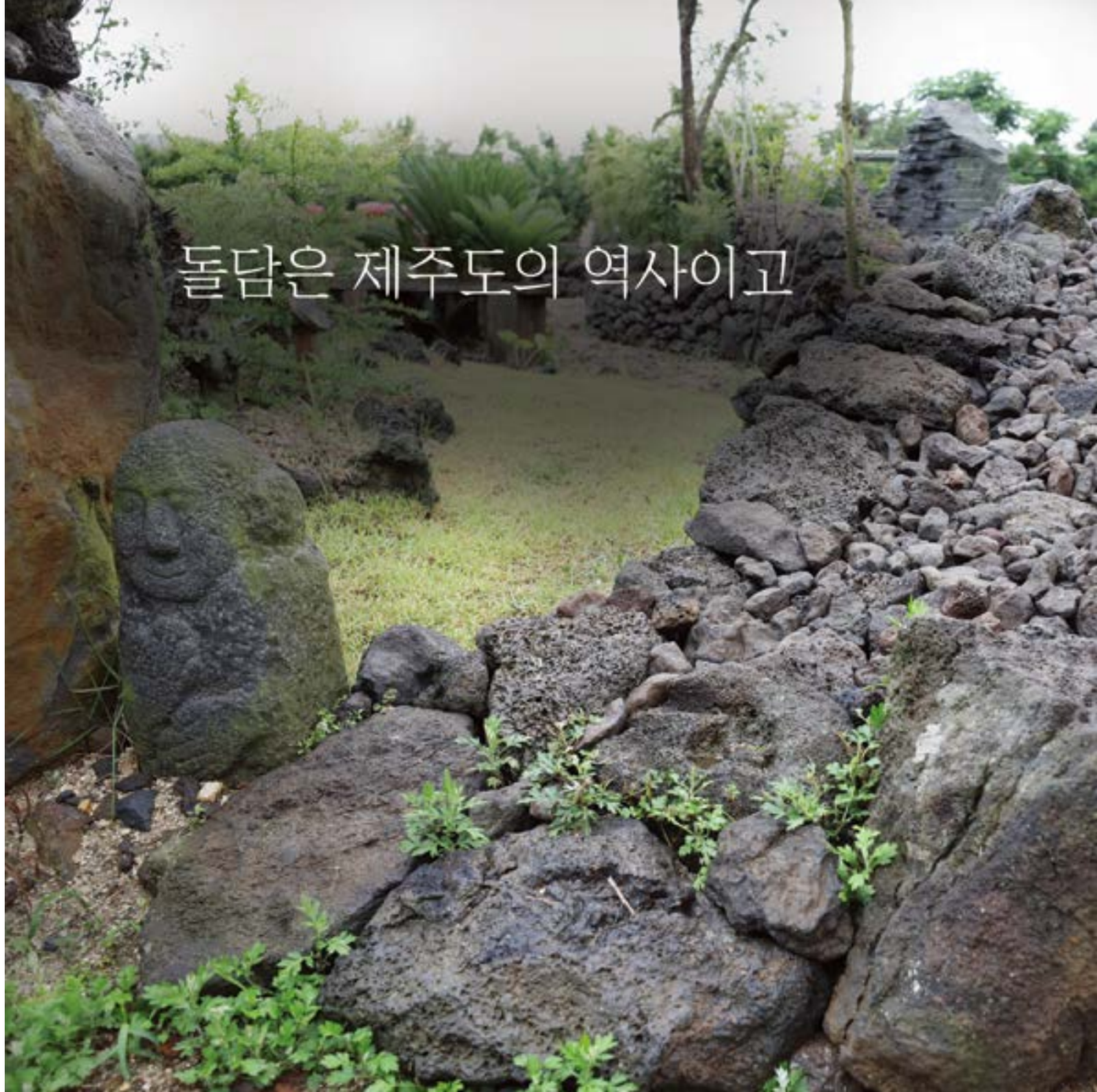




돌담의 총길이는 약 1만리(1리=약 392m)
돌담 1km당 경관가치 단가를 3001원으로 부여
총 돌담의 경관가치가 118억원이라고 한다

출처 : 제주발전연구원

바람이 쌓은 제주 돌담의 가치를 인정받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선정하는
세계농업유산으로 국내 처음 등재됐다



공간 창출의 담벼락 정도의 운명이다



마을 안길 동선을 따라 거닐며
지친 몸과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던
돌담이 사라지고 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쌓아올린 돌담.
돌담이 간직 한 전통과 역사
지켜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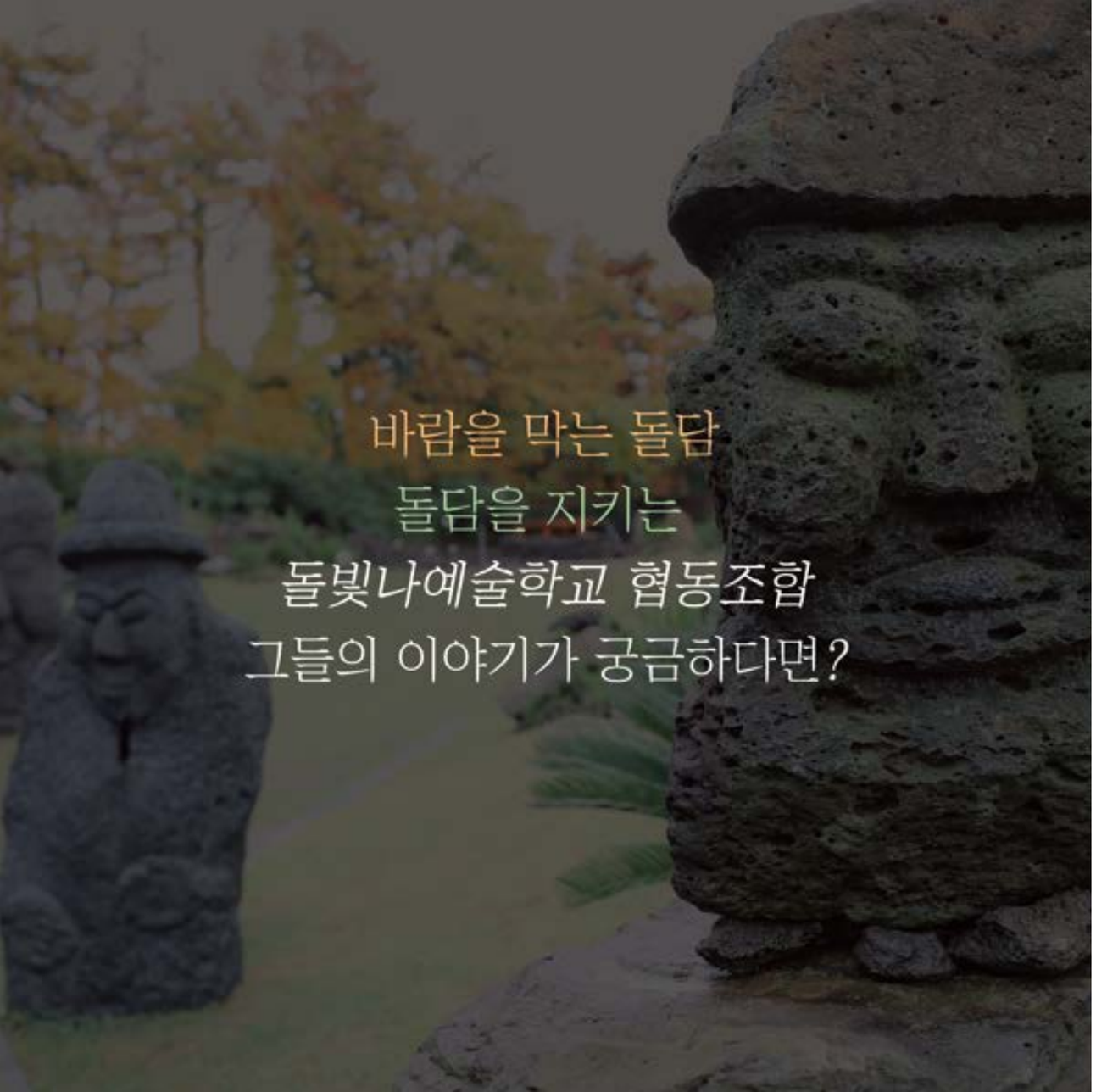




돌담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섰다
돌빛나예술학교 협동조합



바람과 돌의 섬 그곳에 *인위적인 손길에 훼손*되는
돌담의 모습이 아쉬워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돌빛나
Art School of Dolbitna
돌빛나예술학교



Step 02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

INTERVIEW

인터뷰로 알아본 우수협동조합

| 인터뷰 – 조환진 이사장 |

돌이나 자갈을 쉽게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돌담 쌓기가 기본적인 생활 기술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돌로 벽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고, 집을 짓고 성을 쌓았습니다. 특히 여자와 바람과 돌이 많은 제주에서는 돌담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돌담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담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우수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 조환진 이사장과 만나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주도의 돌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돌빛나예술학교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환진입니다. 제주도의 돌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돌 문화인 밭담은 2013년 1월 정부지정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위상에 걸맞은 단체나 협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은 돌담 관련 교육과 체험을 통해 돌문화에 녹아 있는 제주인의 삶과 지혜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Q. 어떻게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평소 제주의 돌문화가 가진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밭에 있는 돌담은 밭주인들이 쌓았고, 제주도 주민이면 누구나 어릴 때 돌담을 쌓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 아버지와 밭에 가서 돌담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맥이 끊긴 것입니다. 지금은 제주도 본토인들도 돌담이 무너지면 직접 쌓질 못합니다. 대학시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돌담을 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장님께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돌담을 쌓는 기술은 어깨너머로 배워서 익히는 것이었어요. 일을 하려고 해도 배울 수 없으니 취미로는 더 방법이 없겠구나 싶어 그때 일반인을 위해 돌담쌓기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담기술을 일반 사람에게 알리고 문화를 확산해야겠다고 생각해왔으니까요. 처음에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강의도 하고 돌담문화를 홍보 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부나 기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보니 법인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협동조합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설립했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조합원 구조나 문화,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은 돌담을 쌓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밭담(밧담), 울담, 축담, 외담, 겹담 등 제주의 돌담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또한 돌담과 함께 건물이나 다리를 지으려면 나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조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저희 협동조합에 있는 전문가들 역시 돌담을 기본으로 나무,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학생들에게 돌의 가치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성인에게는 기술을 전수하는 밭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돌과 나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수업은 돌입니다.

"가장 다른 점은 돌담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Q.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조직문화가 있나요?

가장 다른 점은 돌담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협동조합 밖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에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성있는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고요.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의 모든 사업을 같이 구상하고, 체험 진행 선생님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Step 02 | INTERVIEW

Q. 돌문화체험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체험은 제주연구소나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해도 되고, 직접 돌빛나예술학교로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단체신청도 가능하고요. 아이들에게 돌문화체험을 진행할 때 저는 돌이 경관으로서도 가치가 높고 관광자원으로서도 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 할아버지 댁이나 부모님 댁이 돌집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 돌집을 만드는 과정을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집이 얼마나 귀한지 설명합니다.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만든 귀한 집이고 한 번 만들면 천년도 가는 집이니 절대 허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말이에요.

Q. 그렇다면 밭담 아카데미는 어떤 식 으로 이뤄지나요?

현재 기초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론반과 실기반이 있습니다. 이론반은 산담, 동자석, 초가집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제주도 돌문화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실기반의 경우는 돌담을 쌓는 기술을 배우고 돌담을 답사하며 돌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보통 이론반은 해설사 분들이, 실기반은 돌담쌓기를 직업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합니다. 매주 토요일 10회 강의를 하며 3개월 정도 진행하는데요, 1기 때에는 수강생이 20명 정도였지만, 4기인 지금은 지원자만 1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면 밭담 정도는 스스로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중급반 개설요청이 많아서 조만간 중급반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제주도의 돌담은 잘 보존되고 있지 않나요?

원래 제주도에는 해안선을 따라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환해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가 생기면서 거의 사라지고, 현재 양호하게 남아 있는 곳은 10개소에 불과합니다. 바닷가에 집을 지으면서도 돌담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돌담을 잘 보존하면 문화재가 될 텐데, 옛것을 부수고 새로 크고 높은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돌로 된 오래된 건축물이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민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밭을 사 측량을 하면 돌담의 경계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돌담을 무너뜨려버리고 복원하는 일은 드뭅니다. 돌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주에 비양도 인근에 출몰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목성으로 축조한 명월성이 있었는데 성을 부숴서 방파제 만드는데 썼다고 합니다.

Q. 돌담쌓기를 어린학생들이 배우기에는 힘들지 않나요?

어렸을 때 돌담을 접해봐야 커서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어린이들이 돌담을 접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트럭에 돌을 싣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돌문화교실"을 시작한 것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돌담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반에 밭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현수막을 대학교에만 부착했는데, 대학생 지원자가 하나도 없는 걸 보고 어린 시절 돌담에 대한 추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아울러 돌담쌓기는 교육적으로도 좋습니다. 돌담은 서로 협동해야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작은 돌, 큰 돌, 중간들, 예쁜 돌, 못생긴 돌이 다 필요합니다. 다 쌓으면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자랑할 수도 있고 다음에 찾아와서 추억할 수도 있습니다. 돌담은 없애지 않는 한 영원히 존재하니까요. 무너지면 보수하면 되고요.

Q.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을 찾는 학생들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나요?

얼마 전 서귀포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돌담쌓기를 체험하러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피곤했는지, 아니면 하기 싫었는지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드러눕더라고요. 그러다가 돌쌓기를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성취감이 있었는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주 후에 다른 반이 오더라고요. 아마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했나보죠? 다음에는 학교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학교에 와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말 안 듣고 산만한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 면서 말이에요. 돌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블록맞추기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돌이 정확히 맞았을 때의 쾌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돌담쌓기를 해보면 그 매력에 빠질 것입니다.

Q. 돌담 쌓기 활동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돌을 쌓는 일은 매우 매력적인 일입니다. 돌을 만지면서 돌을 쌓는 일은 일종의 예술이고 돌담을 쌓는 사람은 돌담예술가라고 불러야 합니다. 돌담을 가지고 문자를 나타낼 수도 있고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문의 대표적인 주상절리를 모티브로 중문초등학교 정문을 돌로 만들었습니다. 옹포에 가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둥부터 바닥과 천정이 모두 돌로 된 정자가 있습니다. 밭담도 단순히 밭의 경계, 울타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밭담을 어떠한 형태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작품입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있고 곡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작품이고, 예술입니다. 또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할까 고민하는 것이 발전입니다.



Q. 외국에도 돌담이 있나요?

돌담은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 많은 나라는 모두 돌담이 있습니다. 많은 돌을 쌓다 보니 돌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돌담을 쌓는 기술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운영방식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뿐이죠.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결성된 돌담협회가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돌담협회(DSWA)는 무려 6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주도에는 아직도 없는데 말이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올해 8월에 영국과 아일랜드의 돌담협회를 방문해서 교육과정과 운영방법에 대해 배워오려고 합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돌담협회에 아카데미를 들었던 대학생 4명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대학생들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제주로 부르고요. 이렇게 교류가 확대되다 보면 제주도의 돌담쌓는 일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의 젊은 대학생들에게 돌담쌓는 직업이 의미 있고, 할 만하고, 괜찮은 직업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돌의 보존과 계승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실제로 이끌 단체가 없습니다. 영국의 돌담협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워서,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을 제대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향후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아직 돌빛나예술학교는 가야 할 길이 많은 단체입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돌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척박하고 제도적으로 마련된 정책도 미비한 상황에서 이 모든 걸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에는 이야깃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맹지(도로로 통하는 길이 없이 다른 밭으로 둘러싸인 땅)에 있는 밭주인을 위해 잣질을 만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잣질은 자갈로 만든 길을 말하는데, 결국은 잣담과 같은 형태입니다. 돌로 담을 만드는 김에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맹지밭 주인이 자신의 밭을 망치지 않으면서도 맹지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계승해야 할 문화가 아닐까요? 궁극적으로는 제주도 주민들이 돌담에 대한 가치를 알고 모두 함께 계승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Q. 우수협동조합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앞으로 포부나 다짐 말씀해주세요.

독특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아이템이라 선정된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선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지가 생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야하는 상태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제주도 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 지역만의 돌담쌓는 방식과 구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의 다른 지역과 달리 넓은 자갈을 사용하는 귀덕리의 잣담과 잣질에 관련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제주 지역마다 다른 축조방식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입니다.



Step 03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

우수협동조합 5W

WHY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은 사라져가는 제주의 중요한 문화인 돌담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돌담문화의 계승발전과 대중화를 목표로 설립했습니다. 돌문화 교육을 통해 기술전수와 더불어 돌문화 속에 녹아있는 제주인의 삶과 지혜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WHAT

유치원, 초 · 중 ·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나 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돌문화 교실' 운영,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을 찾는 사람을 대상으로 '돌문화 체험교실' 운영, 일반인을 대상으로 '밭담아카데미(이론반과 실기반)' 운영, 자연신비의 축제 개최

WHEN

2015. 6. 23.
돌빛나예술학교협동조합 설립

WHO

돌담 쌓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으며 돌담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석공 5명이 제주도의 돌담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WHER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190-1
전화 : 010-9204-1691
이메일 : dolbitna@naver.com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Episode 07

전주한옥마을 협동조합

현대의 모습과 옛 것이 이토록 잘 마주하고 있는 곳은 전주 한옥마을이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현대와 전통의 진정한 공존이 가능한 곳입니다.

Step 01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10고개 Q&A

1. 이곳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설립되었다?

YES! 우리의 전통 의식주 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주한옥

2. 이곳은 전통문화의 이론적 교육만을 중시한다?

NO! 이론 교육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더해 전통문화를 알기 쉽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주한옥

3. 이곳의 전통문화 교육에는 청소년들만 참여할 수 있다?

NO! 유아부터 성인들까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한옥

4. 이곳의 교육에는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세계인이 참여한다?

YES!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실제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체험 행사를 진행해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주한옥

Step 01 | Q&A

5. 이곳 전통문화 교육은 음식문화에만 집중한다?

NO! 음식뿐만 아니라, 의식주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를 다루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한옥

6 이곳에서는 매년 11월 11일 '가래떡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YES! 막대초코과자 대신 전통 가래떡을 알리자는 취지로 2006년부터 매년 11월 11일에 '가래떡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한옥

7. 이곳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NO! 지끈 공예, 목장갑으로 인형 만들기 등 이곳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운영합니다. 전주한옥

8. 이곳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유명하다?

YES!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적 성찰, 인내력 제고, 심신 강화 등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가한 학생 뿐만 아니라 선생님, 학부모님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전주한옥

9. 이곳은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중적인 한국문화에 집중한다?

NO!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슬로우 컬쳐' 전통문화를 지향합니다. 전주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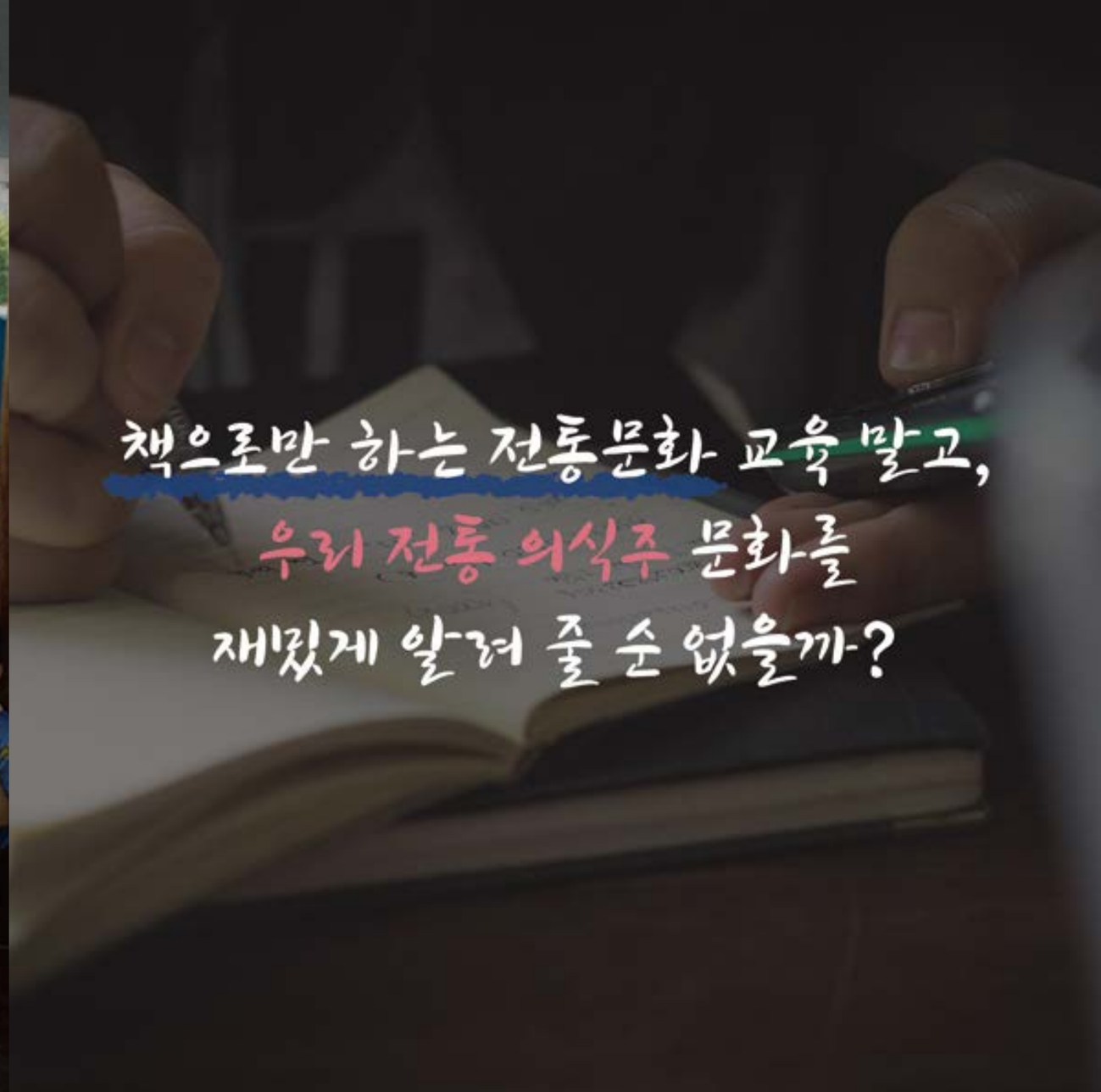
10. 이곳은 우리의 전통문화에는 경제적 논리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YES! 전통문화 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지역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꿈꿉니다. 전주한옥

정답! 이곳은 바로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전통을 글로
배웠습니다


책으로만 하는 전통문화 교육 말고,
우리 전통 의식주 문화를
재밌게 알려 줄 순 없을까?



전통 천연염색 체험
전통장식품 만들기 체험



김장체험, 공동체 비빔밥 체험,
재래식 단무지 만들기 체험,
오리자 매실 만들기 체험



'전통 장식품 만들기 체험,
전통 공예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얀 밥 위에 직접 야채와
고추장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큰 항아리 뚜껑에 함께 비벼 나눠 먹는
전통 공동체 밥상 문화를 익히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의 특성 상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체험 활동에 비해
과정은 어렵지만, 성취감을 그만큼 큽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내적 성찰을 하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어서 호응이 큽니다



전라북도 내 외국인 대학생 800명
대상으로 추석 문화 체험 진행,
송편 빚기 등을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죽염으로 만든 된장, 직접 재배한 목화솜을 활용한
친환경 인형제작 프로그램 등 전주한옥마을을 대표하는
상품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삶의 일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전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전옥마을협동조합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Step 02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INTERVIEW

인터뷰로 알아본 우수협동조합

| 인터뷰 – 오춘자 상임이사 |

바른 먹거리, 우리의 전통 의식주 문화의 계승 및 발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이 협동조합의 옷을 입었습니다. 국내에서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협동조합을 연구하다, 협동조합 1세대에 합류하게 된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의 오춘자 상임이사를 만나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열정과 협동조합에 대한 철학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에 설립한 전주 한옥마을협동조합의 오춘자 상임이사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신학을 전공했는데, 신학에서 사회운동을 배웠고, 사회복지와 사회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30년간 운영하며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는데, 어린이집 교사 인권문제, 급여 문제 등을 다루는 운동과 전북 지역의 최초 여성 운동 조직을 만드는데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며 20대부터 협동조합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고, 협동조합의 시작 격인 공동육아에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Q.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우리 전통 의식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체험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장, 공동체 비빔밥 만들기, 재래식 단무지 만들기, 오미자 매실 만들기, 전통 장식품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가사 돌보미 사업단' 800여명 대상 체험교육과 중학생 대상 일자리 체험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공동체 비빔밥 체험은 식문화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합니다. 비빔밥의 유래, 역사성, 우리 전통 공동체 밥상 등의 문화를 교육할 뿐 아니라, 하얀 밥 위에 직접 야채와 고추장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큰 항아리 뚜껑에 함께 비벼 나눠 먹는 체험 위주의 활동으로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죠. 또 꾸준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는 목화솜을 직접 텃밭에 재배해서 친환경 인형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체험 활동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선생님, 학생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습니다. 인위적이고 단편적인 체험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과제를 완수해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교육이 끝난 후에 결과물을 보면 모두 뿌듯해합니다.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내적 성찰, 인내력 기르기, 심신 강화의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선생님들도 만족하시고요. 한번은 아버지와 딸이 생리대에 함께 수를 놓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들이 처음에는 매우 부끄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과정 전체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소신 있게 진행했고, 결국 아버지와 딸 모두 뿌듯한 얼굴로 집에 돌아가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도 체험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참여 대상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 내 외국인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추석 문화 체험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송편 빚기 축제를 2년간 진행했었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형이상학적이고, 다양한 모양의 송편을 빚어내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의 전통성에 학생들의 창의력이 더해지는 교육 콘텐츠의 바람직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지역에서 공동체 운동에 오랫동안 힘써오셨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전주 한옥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전주 한옥마을은 역사 깊은 지역입니다. 또한, 역사와 함께 현재 삶의 현장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땅에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재래시장과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정동성당, 경기전 등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처음 공동체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에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현장이 더해져 더없이 역동적입니다. 현대의 모습과 옛 것이 이토록 잘 마주하고 있는 곳은 전주 한옥마을이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현대와 전통의 진정한 공존이 가능한 곳입니다.

Q. 어떻게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 운동을 계속 하다가 협동조합이 입법화되면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의 옷을 입었는데, 조직 운영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어떠한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셨나요?

한 사람이 독식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분명히 난점도 있죠. 모든 조합원들의 공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출자와 배당의 독식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만큼 더 조직을 탄탄하게 가꿔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조직입니다. 일반 사업장은 경영자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잘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만 활동에 브레이크를 걸어도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조직적으로, 개인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조직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진 협동조합이라는 집 안에서 그동안 지역에서 해왔던 사회 활동의 살림을 꾸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Q. 처음 협동조합을 시작할 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매우 많았죠. 각자 다른 환경과 사회 구조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모이니 의견이 너무 달랐던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각자 성품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니까요. 의견을 통합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특성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본을 모으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Q. 그렇다면, 협동조합 내에서의 협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대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교육하고, 연구하고, 실험해야 합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관련자가 철저히 공부하고, 선행 해외사례 등 깊이 있는 장기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공부한 것을 후배들한테 전수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교육하고, 연구하고, 실험해야 합니다."

Q. 앞으로 지역공동체에서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으신가요?

죽염으로 만든 된장 식품 상품화를 준비 중입니다. 암 예방,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품인데요, 인근 대학교와 협력하여 포장된 된장 시래기 국밥을 상품화시키고, 보다 쉽게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정통성 있는 식품으로 런칭하여 요즘 사람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찾으면 주로 먹는 꽈배기, 초코파이 뿐 만 아니라, 전주한옥마을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LA상인회와 협력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Q. 앞으로 10년 후의 전주한옥마을 협동조합의 모습은 어떨까요?

희망과 비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폐교에 전주 한옥마을 협동조합만의 체험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학교를 만들고, 대표 전통식품을 만들어 우리 문화를 알리고 있지 않을까요?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우수사례로 선정된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정한 협동조합으로서의 갈 길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돈이 아닌 의미를 찾아가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보다 진실성 있는 협동조합의 문화,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습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통문화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가 잊혀져 가는 것은 우리, 위 세대의 책임입니다. 선배들이 제대로 교육시키고, 전수하지 못한 책임이죠. 교육에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역사가 강조되어야 하지만, 체험도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교과서와는 별개로 진정한 체험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체험 위주의 우리 역사와 전통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OEM으로 생산된 한복체험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통 의복 체험처럼 말이죠. 천천히 가더라도 수익구조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이념과 당위성으로 진정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길에 전주 한옥마을협동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Step 03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우수협동조합 5W

WHY

우리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보존, 계승과 전주 한옥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

WHAT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김장체험, 농촌 물놀이 체험, 비빔밥 체험, 한지공예 체험, 도자기 체험 등)

WHEN

2013년 4월 23일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WHO

전주 한옥마을 협동조합의 설립 배경과 목적에 동의하고, 함께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총 32명의 조합원들로 구성

WHERE

전주시 완산구 교동바람쐬는길 39-1
한옥마을협동조합
전화 : 010-2655-0174
이메일 : dlrufp63@naver.com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Episode 08

협동조합 마을카페

이곳은 주민들이 모여 바른 먹거리와 서로가 가진 꿈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푸드 카페입니다.
한 번 더 이것이 바른 먹거리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고객님께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Step 01

협동조합 마을카페

10고개 Q&A

1. 이곳은 카페다?

YES! 이곳은 주민들이 모여 바른 먹거리와 서로가 가진 꿈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푸드 카페입니다. (마을카페)

2. 이곳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특별한 메뉴가 있다?

YES! 이곳은 소박한 밥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집밥을 그리워하는 직장인이나, 집밖에서도 집밥 같은 밥을 먹고자 하는 가족을 위해 집에서 많이 먹는 반찬을 위주로 만든 메뉴입니다. 건강한 재료로 맛은 더하고 가격은 덜어낸 웰빙 밥상입니다. (마을카페)

3. 이곳에서는 음식만 파는 카페이다?

NO! 이곳에서는 과천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과천살이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을 나누는 사람책이라는 행사도 진행하고, 매월 주제를 정해 그와 관련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또 밴드, 춤, 랩,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마을카페)

4. 이곳은 협동조합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다?

NO! 열린 사랑방으로, 조합원 뿐 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이용 가능합니다. (마을카페)

Step 01 | Q&A

5. 이곳에서는 영화를 볼 수 있다?

YES! 과천청년기획단이 영화를 선정하여 마을주민들이 함께 영화를 보고 담소도 나누는 곳입니다. (마을카페)

6. 이곳은 조합원이 소수이다?

NO! 이곳은 운영위원회, 청년기획단, 이사회뿐만 아니라 과천지역 주민, 과천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600여명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을카페)

7. 이곳에서는 다른 조합원들의 판매 대행도 이뤄진다?

YES! 쿠키, 핀, 수제 천가방 등을 취미로 만드는 조합원 분을 위해 카페 내 판매 공간을 마련해서 고객들의 반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판매한 수익은 조합원에게 100%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을카페)

8. 이곳은 설립된 기간이 매우 짧다?

NO! 이곳은 2013년 9월 16일에 인가 수리했습니다. (마을카페)

9. 이곳의 생일날 특별한 행사를 갖는다?

YES! 이곳의 생일날인 10월 8일에는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식사와 함께 공연도 즐기고, 축하의 말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을카페)

10. 이곳은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있다?

YES! 일반인들에게는 식사와 음료를 포함한 디저트를 정가에 판매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카페)

정답! 이곳은 바로 **"협동조합마을카페"** 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사람 냄새 나던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협동조합 마을카페는
2012년 공동육아어린이집,
대안학교들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



"마을공동체, 우린 왜 꿈꾸는가?"를
통해 잃어버린 마을공동체와 마을공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과천지역 주민
과천지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람과 문화가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2013년 198명의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 마을카페'를 설립했습니다.



협동조합 마을카페는 마을 주민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을사랑방인 마을카페 Tong을 개소해서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식사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니숍 등을 운영하여 지역 우수 제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카페 Tong**은
600명의 조합원이 함께(Together)하고,
자연친화적인(Organic) 바른먹거리를 제공하며,
지역주민들과 연대, 소통(Network)하며,
성장(Growth) 하고 있습니다.





마을카페 Tong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지역주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 영화상영, 음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모임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노력 덕분에 조합원 수가
198명에서 594명으로 증가했고,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만 4년의 노력 끝에
이제 어느 정도 경영 안정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마을카페 TONG을 통해 2016년 9월 현재 12명
(여성 7명, 청년 4명, 기타 1명)을 고용하였으며,
독서동아리, 텃밭동아리 등 지역 내 소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내 풀뿌리단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소통과 연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간에 균형을 맞춰서 나아가며,

지역주민을 위한 꿈의 직장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통

마을카페 Tong



Step 02

협동조합 마을카페

INTERVIEW

인터뷰로 알아본 우수협동조합

| 인터뷰 – 최재훈 이사 |

Q. 어떻게 조합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동네에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계기로 설립했습니다. 일만하고, 식사만 제공하는 평범한 카페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재료로 맛은 더하고 가격은 덜어낸 건강한 밥상입니다."

Q. 카페 이름이 특이한데 어떤 의미인가요?

'통' (TONG)은 Together(함께), Organic(자연친화적인), Network(연대와 소통), Growth(성장) 등의 키워드를 토대로 '건강한 관계로 성장하는 다중이해 협동조합 마을카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Q. 다른 푸드카페와 비교할 때 마을카페 TONG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별점은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인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시럽도 설탕을 사서 직접 만들고, 레몬에이드도 초정탄산수를 사용하고, 팥빙수를 만들 때 들어가는 팥도 국산팥 만 사용합니다. 이처럼 한 번 더 이것이 바른 먹거리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고객님께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Q. 마을카페 TONG의 대표하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소박한 밥상 메뉴입니다. 특히 그날그날밥상이라는 메뉴로 친환경 쌀로 지은 현미밥과 해물순두부, 들깨 순두부, 곤드레 나물밥 등이 있는데, 건강한 재료로 맛은 더하고 가격은 덜어낸 건강한 밥상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마을카페 TONG 을 운영하며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사정상 기존의 직원이 떠나갈 때였습니다. 기존의 직원이 떠나면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한 번 더 이것이 바른 먹거리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고객님께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Q. 마을카페 TONG을 운영하며 보람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마을카페 TONG의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안하다는 고객님의 인사를 들었을 때와 외모에서부터 병색이 드러나는 분들(이를 테면 암 환자분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편하게 주문하고 먹었을 때,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와서 상품 내역을 묻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답변을 듣고 안심하고 드실 때, 장애인 인턴십을 실시중인데 고객 분들이 거꾸로 종업원에게 친절히 대해주셨을 때, 열린 마음의 고객들을 대할 때 등입니다.

"마을 카페 TONG에서 만큼은 엄마도, 아이도 편안한 식사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Q. 열린 마음의 고객님들이라면 어떤 고객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를 테면 장난치는 자녀 때문 눈치 보느라 밥 못 먹는 엄마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마을 카페 TONG에서 만큼은 엄마도, 아이도 편안한 식사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향후 협동조합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이라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춰가며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과천지역 인근 ○○(아파트???) 재건축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조합원들 간에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아울러 이 공간을 꿈의 직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Step 03

협동조합 마을카페

우수협동조합 5W

WHY

마을사랑방 카페를 운영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카페 공간을 통해 지역 자원을 발굴 · 연계하여 마을경제를 활성화 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카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풀뿌리단체,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소통과 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WHAT

내 집처럼 편안함, 우리 가족에게 먹일 수 있는 진심이 담긴 먹거리

WHEN

2013년 9월 16일
협동조합 마을카페 설립 신고 수리

WHO

운영위원회, 청년기획단, 이사회뿐만 아니라 과천지역주민, 과천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일반 조합원들까지 합하면 총 600여명이 이 공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WHERE

경기도 과천시 새술막길 10-13(중앙동, 태양빌딩) 302호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maeulcafe
전화 : 02 - 504 - 1090
이메일 : maeulcafe@naver.com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Episode 09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우리끼리 이 마을에서 재미있게 놀 거리를 끊임없이 만들고 잘 놀지 못하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놀고,
우리아이들이 마을에서 자라서 마을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협동조합을 하거든요.

Step 01 | Q&A

Step 01

송학동네사람들

10고개 Q&A

1. 이곳의 관리는 여럿이서 한다?

YES! 조합원들이 시간을 정해 돌아가며 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 송악

2. 이곳의 조합원들은 학부모뿐이다?

NO! 마을어르신들도 조합원으로 계십니다. — 송악

3. 이곳의 모토는 '놀다 죽자'다?

YES! 아이들이 마을에서 자라서 마을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사장님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모토가 '놀다 죽자'입니다. — 송악

4. 이곳만의 특별한 장터가 있다?

YES! 시골이지만 문화가 있는 장터를 꾸미고 싶다는 욕심에서 시작했습니다. — 송악

5. 이곳은 송악마을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NO!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송악

6. 이곳은 한 가지 사업만 한다?

NO! 마을교육, 공정여행, 놀다가게, 송악놀장과 예술제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송악

7. 이곳의 비즈니스모델은 '마을'이다?

YES! 다양한 외부자원을 받아들이지만, 중요한 사업은 지역주민 간의 자체순환 구조를 통해 운영하고,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악

8. 이곳만의 장터가 있다?

YES! 분기에 한번 씩 진행하는 '놀장'이 있습니다. — 송악

9. 이곳만의 행사가 있다?

YES! 가을 즈음에 하는 예술제가 있습니다. — 송악

10. 이곳은 소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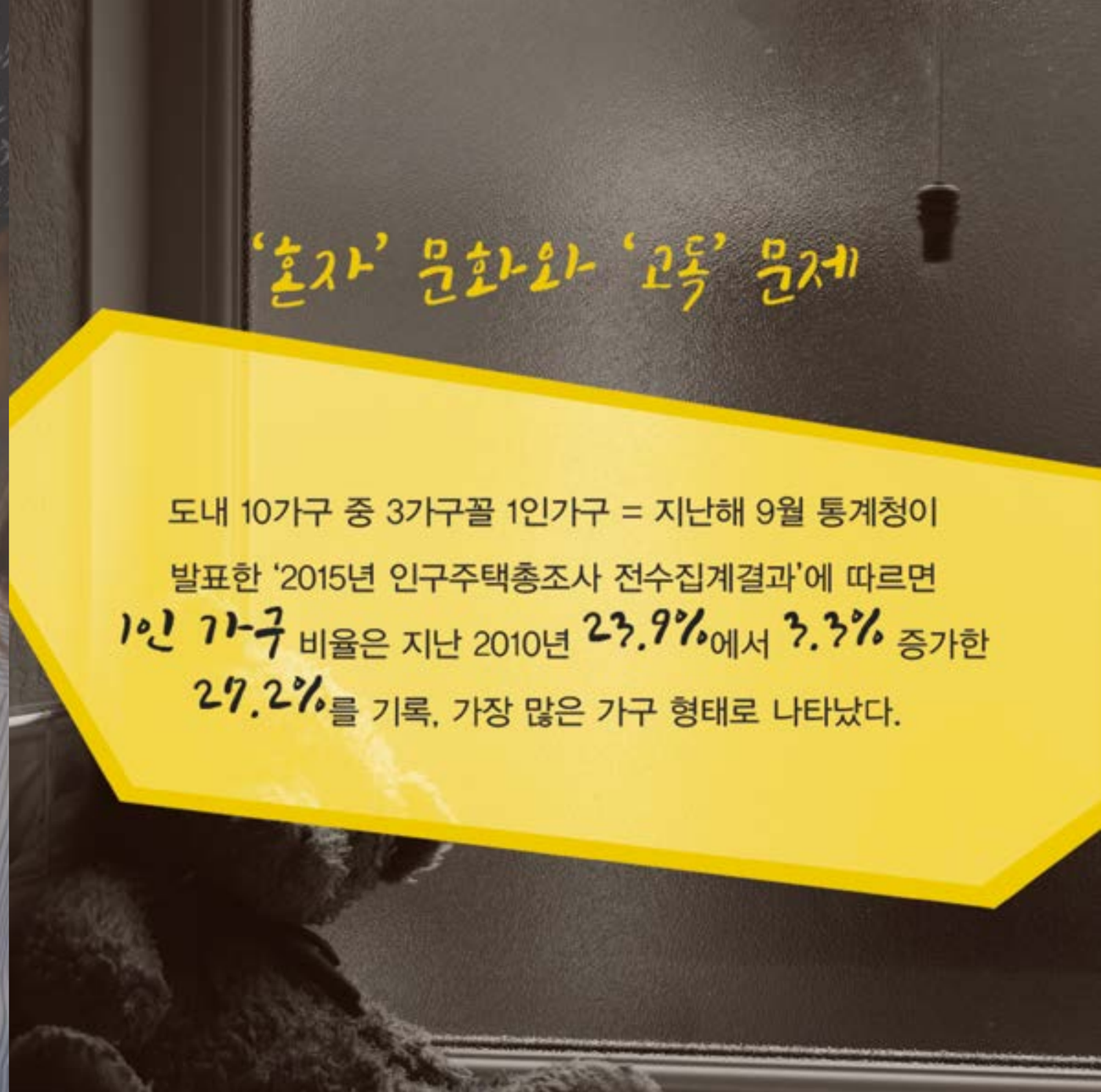
NO! 이사장(박민영)과 감사(윤혜영) 등 이사 11명을 포함해서 현재 조합원은 총 49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송악

정답! 이곳은 바로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네사람들"** 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여기서 놀다가게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혼자' 문화와 '고독' 문제

도내 10가구 중 3가구꼴 1인가구 =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10년 23.9%에서 3.3% 증가한 27.2%를 기록, 가장 많은 가구 형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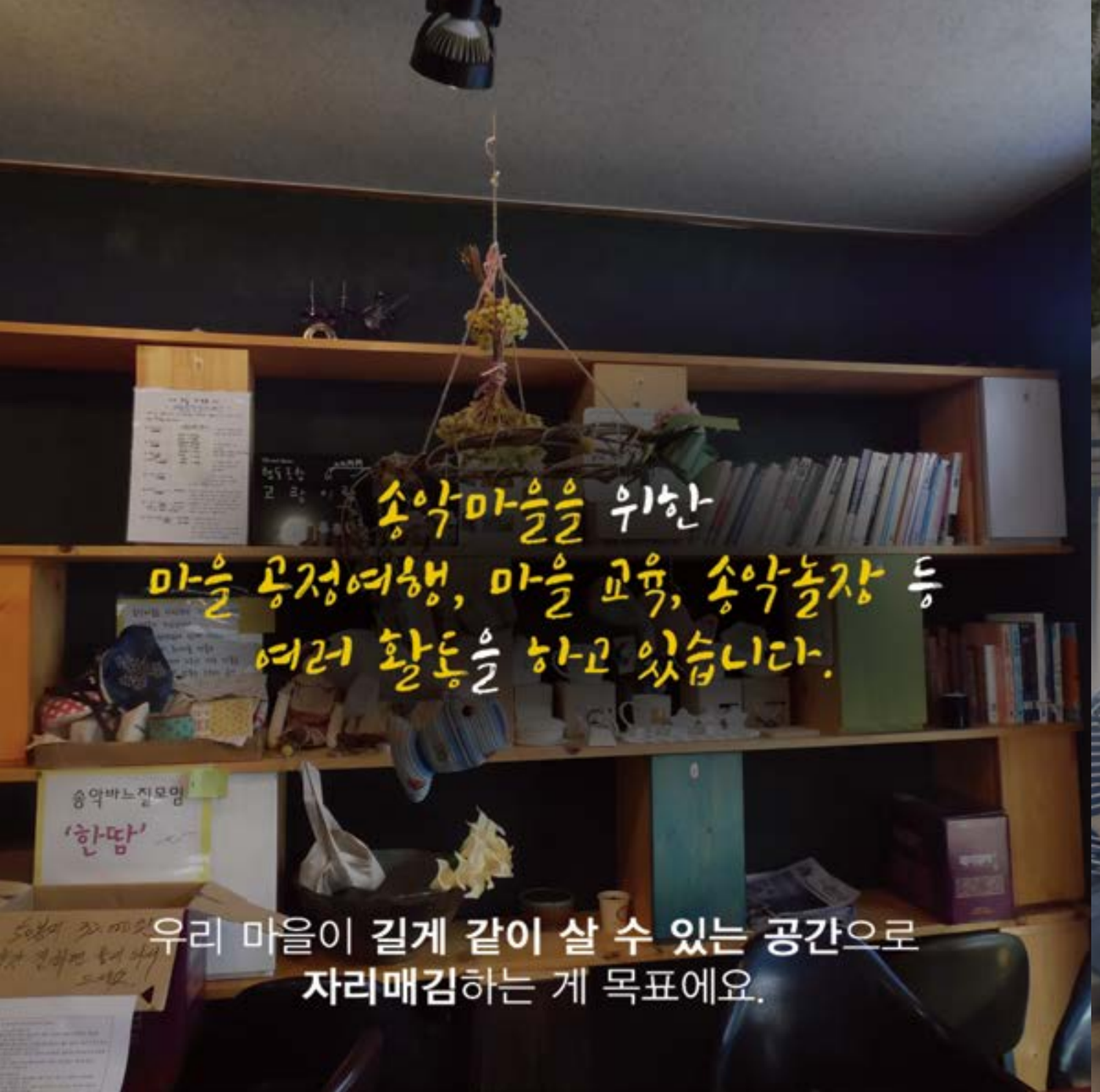


마을사람들이
모두 나와 함께 노는 곳
우리는 **송악동네사람들**입니다.

놀다죽자!

우리 협동조합의 모토에요.
놀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송악동네사람들은 송악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마을에서 꿈꾸고 **참여**, **자치**,
협동으로 만드는 **마을공동체**입니다.


송악마을을 위한
마을 공정여행, 마을 교육, 송악놀장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길게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에요.


우리 스스로 놀거리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면서
못 노는 사람은 데리고 나와서 놀고,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도 나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고싶어요.



Step 02

송학동네사람들

INTERVIEW

인터뷰로 알아본 우수협동조합

| 인터뷰 – 박민영 이사장, 공승미 이사 |

충남 아산시 송악면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한 자연생태마을로 송악동네 골골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의미와 사연을 담은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마을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지던 마을에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젊은이들과 농부들이 많아지면서, 송악마을은 마을의 역사를 이어온 어르신들과 젊은 농부, 귀촌인, 아이들이 어우러지는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의 끈끈한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다양한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계하며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송악동네 골골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의미와 사연을 담을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마을입니다."

Q. 다른 법인도 많은데 왜 굳이 어렵다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택하셨나요?

2013년부터 송악면의 학부모와 교사, 지역아동센터, 지역주민이 협업하여 송악온마을학교 공동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축제와 교육 사업을 했는데 임의단체로 활동하다보니 구성원의 참여율이 낮고, 조직이 와해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주민, 학부모, 교사, 문화예술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구조를 갖추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협동조합이 법인 형태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마을 주민이 협업해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두의 희망을 이루고, 마을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자조자립의 마을경제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공익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Q. 사업을 하실 때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을 주민인 조합원들과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사장님 모토가 '놀다 죽자'예요. 우리끼리 이 마을에서 재미있게 놀 거리를 끊임없이 만들고 잘 놀지 못하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놀고, 우리아이들이 마을에서 자라서 마을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협동조합을 하거든요.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송악마을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성년이 되어 자기 진로를 따라 외지로 나가겠지만, 그 중 일부는 '마을에서 같이 살고 싶다', '마을에서 내가 배운 것을 베풀며 주민들에게 기여하면서 마을에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마을로 돌아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Q. 새롭게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신가요?

설립 후 1년 동안 새롭게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했던 일을 좀 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드는데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4~5년은 우리가 하려고 계획했던 일들을 충분히 펼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꽤 필요할 것 이란 생각을 합니다. 송악동네가 사람들이 모이고 조합까지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대략 10년 넘게 걸렸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동안 상상했던 것들을 모두 실행하기 까지도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뭔가 하나의 사업이나 일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생각해서 실행하고, 그래서 그 긴 사업들이 발전해서 기존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꾸준히 엮이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Q. 요즘 지방에서 청년이 도시로 많이 이주하는 추세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없나요?

사실 이 근처에 대학이 없어서 청년들이 도시에 나가서 배우고 다시 이 마을에 돌아와서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친구들이 생기기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본인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어릴 때 마을에서 자라며 배운 것을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싶은 청년들이 돌아 올 수 있는 여건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자란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되고 싶다고 돌아온 친구도 있었어요. 이 친구처럼 청년들이 이 마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터전,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Step 02 | INTERVIEW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 SNS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돌아와서 SNS를 통해 마을을 홍보하고, 제빵학과에 진학한 친구가 마을로 돌아와서 빵집을 차리는 그런 마을 말 이예요. 그런 친구들이 마을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Q. 지금까지 하시면서 협동조합이여서 힘들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었나요?

저희는 작년 7월에 인가 받았으니까 법인을 설립한지 겨우 1년 밖에 안 된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군불만 때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을 쭉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겪는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느낄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을 때는 불편했어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사회적경제 영역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처가 다 달라서 번거로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느낄 때 마을 사업은 하나인데 그 사업을 지원하는 부처가 달라서, 실제로 사업할 때 담당 부처에 따라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불편하다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놀장'에 마을 주민들도 많이 참여 하나요?

'놀장'은 시골이지만 문화가 있는 장터를 꾸미고 싶다는 욕심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께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고, 부스를 운영할 사람을 섭외해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마을 주민들이 많아요. '놀장' 광고를 하면 '이걸로 부스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자원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Step 03

송학동네사람들

우수협동조합 5W

WHY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은 참여와 자치, 협동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원하는 마을주민들이 모여, 지역주민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WHAT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자치를 위한 마을문화예술사업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방과후학교와 돌봄 및 마을학교 교육사업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 및 공정여행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물품의 공동구매 및 도소매업과 공간임대사업

WHEN

2016년 7월 13일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설립인가

WHO

현재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마을교육, 공정여행, 놀다가게, 송악놀장, 예술제가 있으며, 조합원들이 분과별로 팀을 구성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WHERE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강당로177번길 4
전화 : 010-7735-0902
songakpeople@gmail.com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Episode 10

사회적협동조합 생명나무

교육과정이 100이라고 하면 보이는 교육과정은 30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의 인격과 철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은 사회와 문화거든요.선생님과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끼리 토론하면서 학교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요.

Step 01 | Q&A

Step 01

사회적협동조합 생명나무

10고개 Q&A



1. 이곳은 학교다?

YES! 이곳은 지역교육생태계 회복을 위해 설립된 대안학교입니다. — 생명나무

2. 이곳은 조합원만 다닐 수 있다?

NO! 이곳의 조합원은 학부모와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반인도 다닐 수 있습니다. — 생명나무

3. 이곳은 일반학교 교육과 다른 교과목을 배운다?

NO! 이곳 역시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일반적인 교과목을 배웁니다. 다만 체험활동이 많고, 수업 중 선생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생명나무

4.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협동조합 대안학교이다?

NO! 이곳은 제주도에서 유일한 협동조합 대안학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예요! — 생명나무

5. 이곳에서는 공부만 한다?

NO! 이곳은 지역 봉사활동 뿐 아니라 마을잔치 공연 등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생명나무

6. 이곳은 남자만 다닐 수 있다?

NO! 이곳은 여학생들도 많습니다. 남녀비율은 6:4 정도입니다. — 생명나무

7. 이곳은 제주도 학생만 다닐 수 있다?

NO! 전국에서 이곳 교육 가치에 동의하는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처음 이곳이 설립됐을 땐 제주도 학생이 한 명도 없었지만, 지금은 20명의 제주도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 생명나무

8. 이곳은 학생만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NO! 이곳의 기숙사에는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생활하고 있습니다. — 생명나무

9. 이곳에서는 선생님들이 정한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한다?

NO! 이곳의 규율은 학생회의에서 토론하고 결정한대로 정해집니다. 이를 통해 염색의 정도부터 허용되는 옷차림까지 스스로 정합니다. — 생명나무

10. 이곳의 학생들은 모두 책을 출간한 저자다?

YES! 이곳의 학생들은 졸업할 때 스스로 기획한 책자를 졸업 작품으로 출간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레포츠부터 문화, 예술, 철학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관심사를 다룬 다양한 책자를 만날 수 있어요! — 생명나무

정답! 이곳은 바로 **"사회적협동조합 생명나무"** 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제주도 어느 한 학교,
학생들끼리 열띤 토론이 열립니다.

"찢어진 바지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행위야"
"다른 사람이 어색하고 불편할 정도의
찢어진 바지는 안입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학교는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학생회 시간에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학교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보고 규율을 정해 따르는 학교,
바로 생명나무학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생명나무는 학습부진,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입니다.



2007년,
교육자 및 지역사회 후원자들이 모여,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독대안학교 생명나무학교를 개교하였고,
지역사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 같지만 사실 교과과정이나 학교의 구성은
일반학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업 운영에 대한 선생님의 재량권이 넓습니다.
그리고 교과활동에 공동체 활동과 체험 활동의 비중이 높아서
학생들이 직접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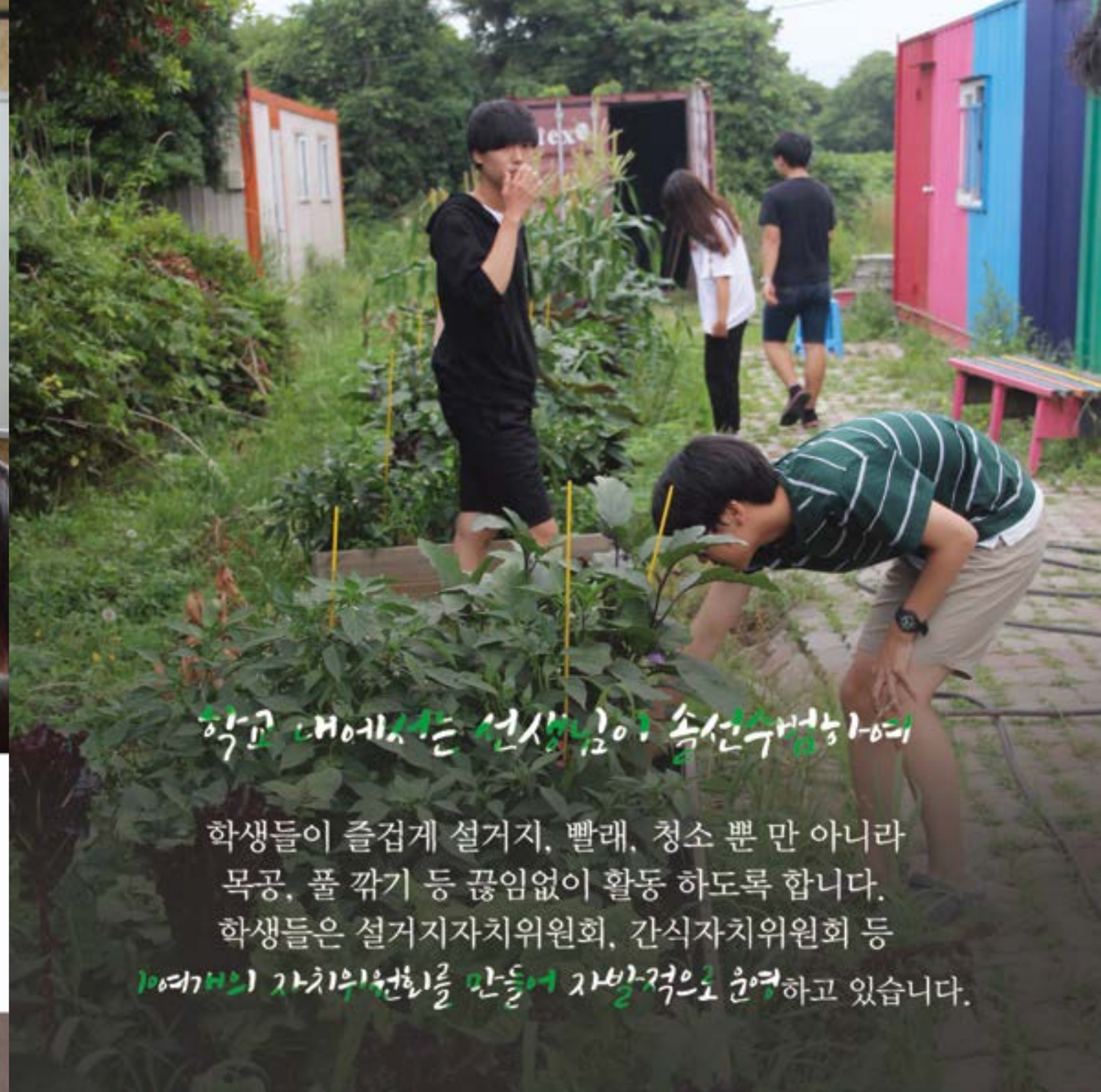
학생과 선생님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같이 먹고 자면서 선생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학생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올바른 인격과 삶의 철학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답해 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까지 사용할 수 없는데,
학생들이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이 솔선수범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설거지, 빨래, 청소 뿐 만 아니라
목공, 풀 깎기 등 끊임없이 활동 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설거지자치위원회, 간식자치위원회 등
여러개의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학교가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이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이웃과 공감하며,
이웃을 위해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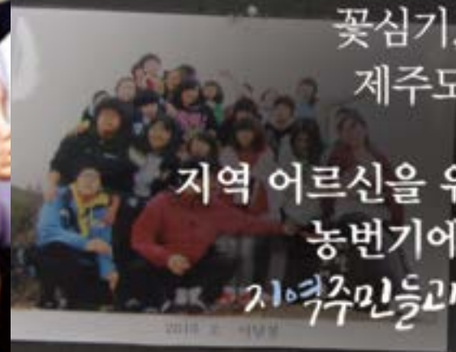






꽃심기, 자전거타고 오름다녀오기 등
제주도와 연계한 활동도 다양한데,

지역 어르신을 위한 마을잔치에 참여해서 공연을 하고,
농번기에 감귤 수확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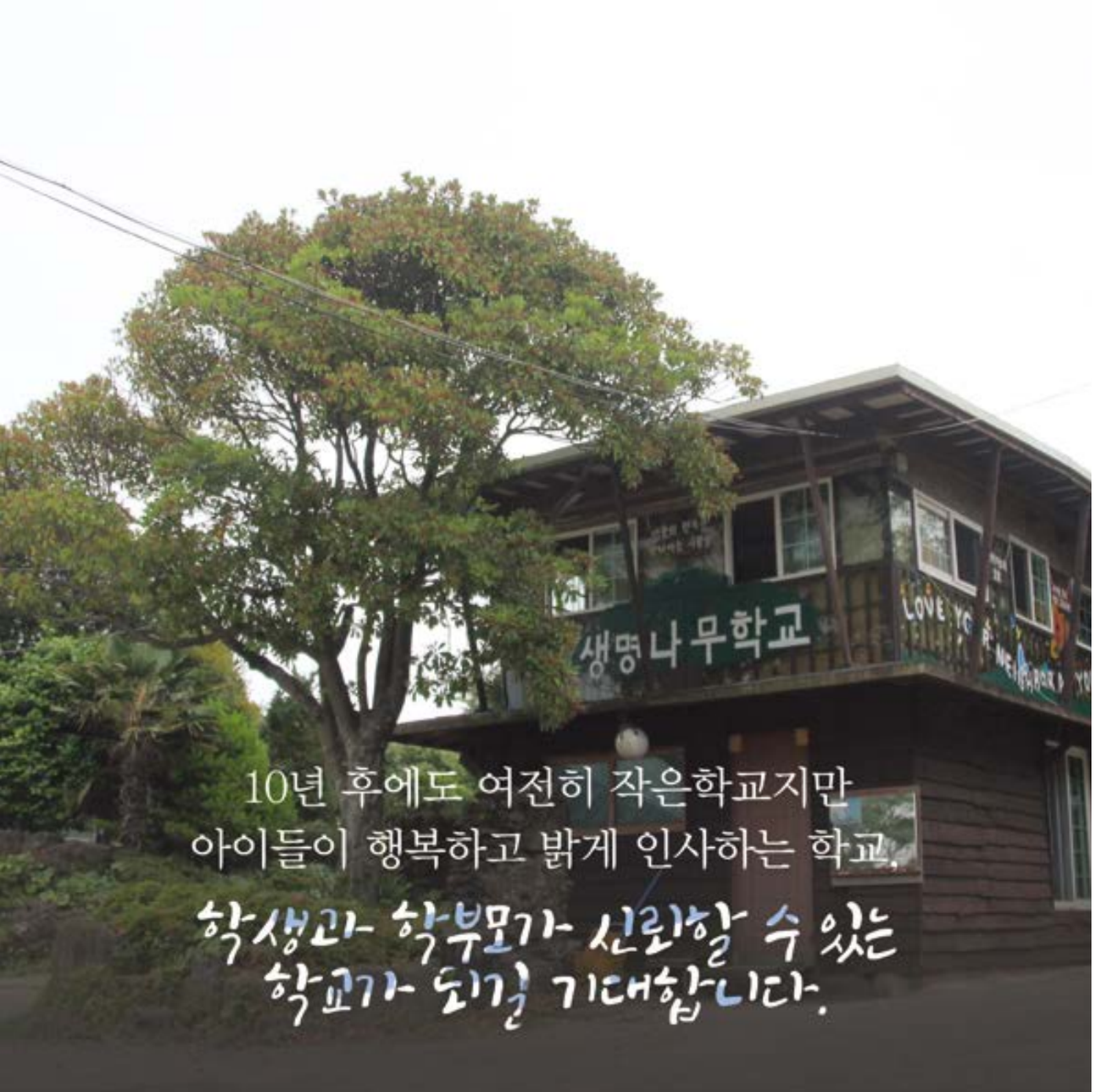












10년 후에도 여전히 작은학교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고 밝게 인사하는 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길 기대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생명나무
SOCIAL COOPERATIVE LIFE TREE



Step 02

사회적협동조합 생명나무
INTERVIEW

인터뷰로 알아본 우수협동조합

| 인터뷰 – 이용희 교장, 오승학 사무국장 |

자동차가 속도를 낼 수 없는 좁고 굽은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푸름이 가득한 생명나무 대안학교가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발전시키자", "이웃을 사랑하자"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의 장을 펼치는 이곳은 제주 유일의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대안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생명나무입니다. 제주생명나무학교는 교육생태계의 회복을 통한 참교육의 실천을 사명으로 하고 있어요.

Step 02 | INTERVIEW

"이곳은 바로 사회적협동조합 생명나무입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조합소개 부탁드립니다.

오승학 사무국장: 제주생명나무학교는 의료봉사를 나간 의사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선교사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천안에서 개교한 후, 포천과 필리핀 등지에서 학교를 운영 하다가 제주도의 현재 부지를 기증받아 이전했습니다. 저는 제주생명나무학교가 제주로 이전한 2010년부터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운영과 행정에 대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용희 교장: 사회적협동조합 생명나무는 건강한 지역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세워진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이 제주생명나무학교이고요, 제 경우 2011년 학교 교장 제의가 왔고, 생명조합 대안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철학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가치에 동의해서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학교를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일은 드뭅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볼 수 있는 곳은 식당이나 매점 정도예요. 대부분의 학교는 개인이 하거나 학교법인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공교육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대안학교는 기존 공교육 시스템이 맞지 않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좋고 나쁘거나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옷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공교육 제도에 속하지 않다보니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의 운영자금도 충분하지 못한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학비가 비싸지거나 혹은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조합원 구조나 문화,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제주생명나무학교의 학부모, 교사, 그리고 도내 · 외 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생명나무의 설립배경과 목적에 동의하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7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선생님으로 9명이 계세요. 물론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입학할 수 있고, 선생님으로 재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총회에 참석하여 학교 운영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하게 됩니다. 현재 학생은 총 42명이 재학 중입니다. 그 중에 20명 정도가 제주도 학생이고요.

Q. 수업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대안학교라도 기본 교과과정은 공교육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있습니다. 단,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교육방식에 있어 선생님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교과활동에 공동체 활동 및 체험활동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지역을 위한 스토리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마을잔치에 참여해 스스로 준비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졸업할 때에는 직접 기획한 책자를 만드는데요, 이를 위한 여행이나 체험을 스스로 기획합니다. 졸업 책자를 보면 학교 다니면서 읽은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스쿠버다이빙을 가르치기도 하는 등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최빈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스스로 정의한 글을 쓰기도 해요.



Step 02 | INTERVIEW



Q. 졸업 후 진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상담을 합니다. 저희학교 역시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입시교육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입시를 우선으로 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학교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찾고 이해하며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이죠. 이러한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제주생명나무학교의 고등과정으로 진학하지만, 뜻이 맞지 않으면 일반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졸업 후 대학으로 진로를 정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생활에서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부모님의 권유나 수능 점수에 상관없이 자기가 선택한 대학과 전공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소식을 들으면 과대표 등 리더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학창시절 동안 에너지를 충분히 분출하고 자기주도적 수업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제주생명나무학교가 일반 학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학교의 구성이나 교과과정처럼 보이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100이라고 하면 보이는 교육과정은 30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의 인격과 철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은 사회와 문화거든요. 제주생명나무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다르고, 선생님의 권위가 삶 자체에서 형성됩니다. 선생님과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끼리 토론하면서 학교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요. 같이 사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은 일반 학교와 정말 다른 점입니다. 수업과정에서의 자격증 수나 데이터수치로 접근해서는 아이들의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어야 관계가 시작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이 가진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요. 안 해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Q. 생각하는 학교라는 점을 나타낼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규율이 있고, 학생들은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생명나무학교의 학생들은 이웃의 관점에서 생각한 규율을 스스로 만듭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본질에 있어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찢어진 바지를 입고 싶을 때,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과 이웃을 배려하는 적정선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염색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학생회의 시간에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직접 정한 문화이기 때문에 잘 지키고요. 개를 씻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토론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개를 씻기는 것은 정말 개를 위함인가, 깨끗한 개를 원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은 아닌가?' 라고 한 학생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다른 학생들도 이런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를 씻기지 않는 것은 개를 위해 좋은지, 개를 씻기는 횟수를 조절하는 것은 어떤지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보람도 있고요.

Q. 학생들이 아쉬워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에너지가 넘칠 때이다 보니 기숙생활이 답답하겠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2주에 한 번씩 외출하는 것이거든요. 또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답답해하고요. 물론 자신들이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잘 지키고는 있지만 말이죠. 학교 안에 있을 때 끊임없이 활동하게 합니다. 체육시간도 많고 축구도 자주 해요. 자립훈련이라고 해서 자신의 설거지, 빨래, 청소 뿐 아니라 풀 깎기, 방충망설치, 목공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솔선수범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하지 않으면 학생들도 기분 좋게 따를 수 없으니까요. 학생들 역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립을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자치위원회가 10개도 넘게 있습니다. 설거지자치위원회, 간식자치위원회까지 있을 정도에요.

Q. 그렇다면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힘든 점이나 신경 쓰는 점은 무엇인가요?

학교생활에서 아이들이 어떤 점을 힘들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저희의 최대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기숙형 학교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설문조사나 상담을 통해 열심히 듣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회의를 자주 진행합니다. 제주생명나무학교의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학생들을 일대일로 만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이 6~8명 정도를 맡도록 배정합니다. 총 학생수가 50명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고요. 선생님의 역할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직업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행복한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주생명나무학교가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이웃입니다. 이웃을 위한 감수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곧 공감인데요. 공감은 공동체의 시작이 되는 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위해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에 대해 고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각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본질은 이웃이고요. 이웃의 행복을 위하는 삶으로 성장을 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규율을 지켜 품위 있고 예의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촛불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나가고자 할 때에도 외출 신청을 먼저 하고 집회에서 학교와 학생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한 후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선생님과 지금이 역사적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요.

Q.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징이 있나요?

봉성리 어르신들 초청 경로잔치나 지역소통을 위한 자리에 최대한 참석하는 편입니다. 마을잔치에 참여했을 때에는 학생들이 관현악을 연주하고 합창곡을 발표했는데 어르신들께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기고 하고요. 꽃 심기나 자전거타고 오름 다녀오기처럼 제주도의 환경과 연계한 체험활동도 많고, 올레길 청소나 감귤수확 등 봉사활동의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합니다. 얼마 전에는 환경폐기물프로젝트수업을 듣고 제주도의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기도 하고요.

Step 02 | INTERVIEW

Q.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교가 생긴 지는 11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것은 올해라서 우수사례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협동조합 이전에 해왔던 활동을 좋게 봐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제주 지역에서 이탈하는 청소년이 연 600명 정도 됐습니다. 처음 제주도에 학교를 개교했을 때 제주도 학생은 한 명도 없었지만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2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주도 최초 협동조합 학교로서 앞으로 지역 내에서의 역할을 더 잘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닐까요?



Q.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이용희 교장 : 10년 후에도 여전히 아이들이 행복하고 밝게 인사하는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생명나무학교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안학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전적으로 신뢰해야 학교가 힘을 얻고 소신대로 생각하는 가치를 학생과 마음껏 공유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학부모가 학교를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아이를 맡기지도 않겠지만 맡지도 못할 것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오승학 사무국장 : 십년 후에는 제주에서 오는 학생들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인정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십년 후면 제 아들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겠네요. 저는 학교의 규모가 여전히 작은 학교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학교 안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가이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크게 느껴지는 학교였으면 합니다. 건물이 높아진다거나 학생 수가 많아진다거나 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아! 졸업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준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때는 학교 운동장이 잔디구장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Step 03

사회적협동조합 생명나무

우수협동조합 5W

WHY

가정과 학교, 사회를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건전한 지역교육생태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WHAT

검정고시 및 상급학교 진로지도, 프로젝트에 기반한 활동, 기숙사생활을 통한 자립훈련, 학생의 자존감 회복 훈련, 예체능과 문화,과학 등 분야의 특기적성 계발,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의 보건소 ·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업 탐구 및 인턴십 운영, 상담지원 등

WHEN

2017년 1월 13일
사회적협동조합 생명나무 설립 인가

WHO

제주생명나무학교의 학부모, 교사, 그리고 제주도 내 · 외 시민 등 사회적협동조합 생명나무의 설립배경과 목적에 동의하는 총 37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ER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방축길 25
전화 : 070-7578-0071
홈페이지 : www.lifetreeschool.org
이메일 : s.hak@lifetreeschool.org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Episode 11

한국상담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우리가 암 환자를 조기 검진하듯이
'심리상담도 미리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상담과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Step 01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

10고개 Q&A



1. 이곳은 상담교육 전문가만 직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YES! 주 사업으로 상담, 교육 분야가 있고, 상담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상담심리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육

2. 이곳은 일반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YES! 일반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100%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조합원들과 공부하고 상의했습니다. 상담교육

3. 이곳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만 담당한다?

NO! 2014년부터 한국상담교육협동조합 부설 한국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다양한 대중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육

4. 이곳은 아산에서 단독으로만 활동한다?

NO! 충남 아산시 배방읍 사회적 경제팀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배사라고 불리며 로컬푸드, 방과후 아카데미, 도시락 사업을 하는 기관과 마을 연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상담교육

5. 이곳은 경력단절 남성도 교육을 한다?

NO! 경력단절 여성을 우선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다가 사회에 다시 진출하려는 여성의 어려움을 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상담교육

6. 이곳은 청소년, 청년에게 상담뿐 아니라 직업훈련까지 이어준다?

YES!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지역의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찾아 연결하기도 합니다. 상담교육

7. 이곳은 아산시에서 인성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

YES! 현재 충남도교육청 인성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주말행복배움터를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육

8. 이곳은 상담교육이 필요한 학생만 이용이 가능하다?

NO!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교육

9. 이곳은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강좌를 진행한다?

YES! 심리상담, 독서교육, 미술치유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강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담교육

10. 이곳은 천안준법지원센터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인성수업을 진행한다?

YES!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천안준법지원센터의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인성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상담교육

정답! 이곳은 바로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 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내 이름은 김삼순

부제_ 아이의 엄마에서 자신을 찾고 싶었던 그녀들의 이야기

아이가 생기고 난 후 나의 이름은 김삼순이 아니라
누구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이제 다시 사회에 나갈까 했지만
나는 뉴스에 나오는 경력단절여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조금 늦었을 뿐이야"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듣고
상담강사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사회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강사는 비정규직이었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면 또 계약을 걱정해야 했죠

'더 이상 비정규직만 양성하지 말고 더 큰걸 해보자!'

는 취지에 공감하는 강사 15명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 바로!

한국상담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입니다



조합의 사업은 상담과 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상담심리학 석사과정을 마친

강사님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합니다.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부모교육, 학교인성교육, 진로캠프 등
심리 상담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람**입니다.
내담자, 함께하는 조합원,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모두 사람이고,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지난 어려운 시간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익성을 추구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도 받았고,
지난 5년간 일단 조합의 목적을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알린 덕분에 작년 연말부터
매출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겠죠?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은

월 1회 아배사(아산시 배방읍 사회경제팀)와 함께
로컬푸드, 방과후아카데미, 도시락사업 등
마을 연대를 통한 지역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담과 상담교육의 모델링을 꿈꾸며,
경력 단절 여성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한국상담교육 사회적협동조합



Step 02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

INTERVIEW

인터뷰로 알아본
우수협동조합

| 인터뷰 – 문남희 이사장 |

Q: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은 상담과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상담 교육전문기관입니다. 조합원의 역량 발전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천안 YWCA 부속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작년까지 약 18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근무할 때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상담교육전문가 양성 인큐베이팅 사업을 맡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 교육을 했습니다. 직무교육에는 육아 등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고학력 여성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하세요. 그런데 교육 후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다가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Q: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상담과 교육이 주요한 사업입니다. 상담분야는 개인상담 뿐 아니라 집단상담, 가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진로, 인성, 인권, 자기주도, 생명존중, 성인교육, 자격과정 등으로 다양합니다.

Q: 상담과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두 분야를 같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개인 상담을 해보니 상담은 문제가 발생한 후 완화시켜 주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사업과 함께 부모교육, 학교인성교육, 진로캠프 등 교육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암 환자를 조기 검진하듯이 '심리상담도 미리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상담과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사람중심'의 상담을 추구합니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이 시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요. 사회도 사람이 중심이듯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우선 같이 하는 강사 선생님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도 저희의 취지에 동의하세요. 선생님의 결혼 전 경력을 보면 이력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과거가 풍요로웠는데 지금이 오히려 더 보람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결코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가치공유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지만 상담교육을 늦게 시작하신 강사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 했는데, 심리라는 분야를 공부하면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관점은 달라지죠.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요. 물론 여기서 여유는 돈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희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Q: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의 상담 사업은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회적기업이면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보다도 상담과 교육을 통해 사회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 이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학교에서 진로캠프를 많이 의뢰합니다. 똑같은 홀랜드 검사를 하더라도 한 선생님이 여러 반에 들어가면 오픈이 되어버리고, 그럼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반에 동시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희의 이런 장점을 학교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교육청, WEE 센터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가족 상담이 필요하면 다른 기관에 의뢰하기도 하고, 아동청소년 바우처 지역 사회 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학부모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는 현재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시설도 운영하고 있고, 설립 후 3년차에 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학부모 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나눔국민운동본부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이 중부권 거점으로 학부모 교육 관련 공익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나눔보육사라는 기관의 사업을 수탁하여 지역 경력단절 여성 20명을 나눔강사로 양성해서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밥상머리 365 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저희 부모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 조용하게 먹거나, 잔소리 하지 말고,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면서 먹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다 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밥을 먹듯 가족도 매일 소통해야하고, 소통이 잘 되면 문제아도 문제모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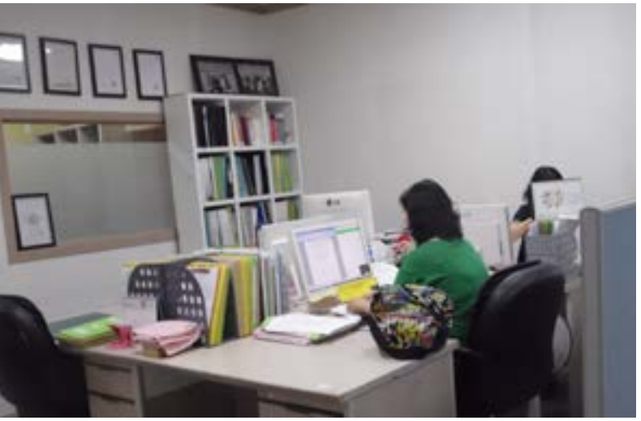
Q: 아산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아산시는 유동 인구가 많다보니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점이 다른 도시보다 주민 간 소득 격차를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산시에는 주민 간 소득 교육, 문화적 격차를 완화하고자 '주말 행복 배움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5년째 진행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인데 주로 저소득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올해도 저희가 인성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수업인데, 그곳에서 주로 소년원으로 가기 직전의 청소년을 교육해서 학교로 복귀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보호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했어요. 친구들 중에 학교 부적응 자가 많기 때문에 학교만 가도 미래가 바뀐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학교에 가면 하루에 얼마인지 알아?' 라는 책을 참고해서, 학교만 졸업해도 연봉이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일주일 동안 강의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작하고 5분도 안돼서 학생들이 책상에 엎드리기 시작하더라구요. 점심시간 직후이기도 했지만, 뻔한 수업을 하니 재미가 없었겠죠. 그래서 먼저 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 자료를 끄고 그 자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우선 반장이 학생들의 신청곡을 받아서 듣고 싶은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10분도 안돼서 학생들이 한 명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미술치료를 했습니다. 하얀 전지 위에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 결과 교도관님이 놀랄 정도로 자는 학생 한명도 없이 성공적으로 수업을 마쳤습니다.



Q: 새롭게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청소년 집단 활동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건강한 청소년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집단 활동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마음의 쉼터를 만들고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청소년들이 스스로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 찾아오기도 하나요?

그렇죠. 상담을 받고 싶은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찾아오는 건 진로 때문이에요. 요즘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 중에 상담 심리학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상담방식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상담에 대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웹툰에서 얻은 정보 때문에 심리 상담가라고 하면 '괜히 멋있고, 사람들을 다 꿰뚫어본다.' 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담가라고 해서 절대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담은 기본적으로 경청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힘든 직업이라 막연한 호기심만으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심리상담가에 대해 더 궁금해하는 친구는 성향검사도 해줍니다.



Q: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후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지원을 받았고, 에어컨 등 시설 설치비도 지원받은 덕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 상담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내담자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올해가 사회적기업 5년차 인데 이제 자립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립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만의 특별한 조직문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배방읍 사회적 경제팀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별칭으로 '아배사' 라고 부릅니다. 로컬푸드 운동, 지역복지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작은손, 도시락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마을 연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공생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15명의 강사선생님 중 95퍼센트가 여성인데, 여성이 많은 조직이여서 생기는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점부터 말하자면 기자재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나서서 도와준답니다. 그렇지만 장점이 더 큰데요. 모두 다 엄마라는 공통점 덕분에 서로 잘 돕고 협동이 잘 되요. 또 조직 분위기가 가족적이고, 특별히 상담을 전공하다보니 타인을 배려하는 부분들에서 섬세합니다.

Q: 우수협동조합으로써 운영 비결이 있을까요?

조합원들이 한마음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같이 협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또 사람들에게 위안도 받고 희망도 얻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익을 바라지 않고 조합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많은 공부를 하고 성급하게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이용하려고 서두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실패하기 쉬워요. 먼저 조합원들이 모인 동기와 조합의 목표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사전모임을 하고 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설립 후 3년간 더 공부했습니다.

Step 03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

우수협동조합 5W

WHY

엄마가 아닌 당당한 여성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발돋움을 돕고, 상담과 교육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입니다.

WHAT

가족, 부부, 자녀 심리상담
아동, 청소년, 성인 교육 및 코칭

WHEN

2016년 5월 3일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WHO

상담 관련 석사 이상의 전문 상담강사 16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WHERE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46 2층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Episode 12

바름협동조합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여기, 내 고향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먹고 살기 위해' 뭉친 청년들이 있습니다.

Step 01

바름협동조합

10고개 Q&A

1. 이곳은 경북지역에 설립된 첫 번째 '청년' 협동조합이다?

바름 YES! 경북지역 최초의 2030 협동조합으로, 2015년 설립 당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 이곳의 청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꿈'에만 집중한다?

바름 NO!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곳의 조합원들은 '인서울'에 관심이 없다?

바름 YES! 지역에서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4. 이곳에는 청년들만 방문할 수 있다?

바름 NO!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연, 강연, 축제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Step 01 | Q&A

5. 이곳에서는 청년들이 뭉쳐 한 가지 사업에만 집중한다?

바름 NO! 조합원들 각자의 성향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이곳에서는 매일 파티가 열린다?

바름 YES! 이곳에서 운영하는 호스텔, 안동역 근처 '링커파티 하우스'에서는 매일 숙박객과 지역주민, 조합원을 위한 파티가 열립니다. 맥주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7. 이곳에서는 지역 유일의 청년축제를 개최한다?

바름 YES! 올해 9월, 청년들의 수공예품 마켓, 공연, 청년문제 토론과 포럼 등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진 '흥청망청(흥해도 청년! 망해도 청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8. 이곳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수를 섭외하여 공연을 진행한다?

바름 NO! 실력 있는 지역의 청년 가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버스킹 행사 '링커스테이지'를 열어, 청년 기회 제공과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9. 이곳에서는 지역 청년잡지를 발행한다?

바름 YES! '링커매거진'을 발행하여 지역 청년들의 관심사와 이슈를 다루고, 이재명 성남시장, 박철민 배우 등 유명인사와의 인터뷰도 싣곤 합니다.

10. 이곳 청년들은 어른들의 조언으로 사업을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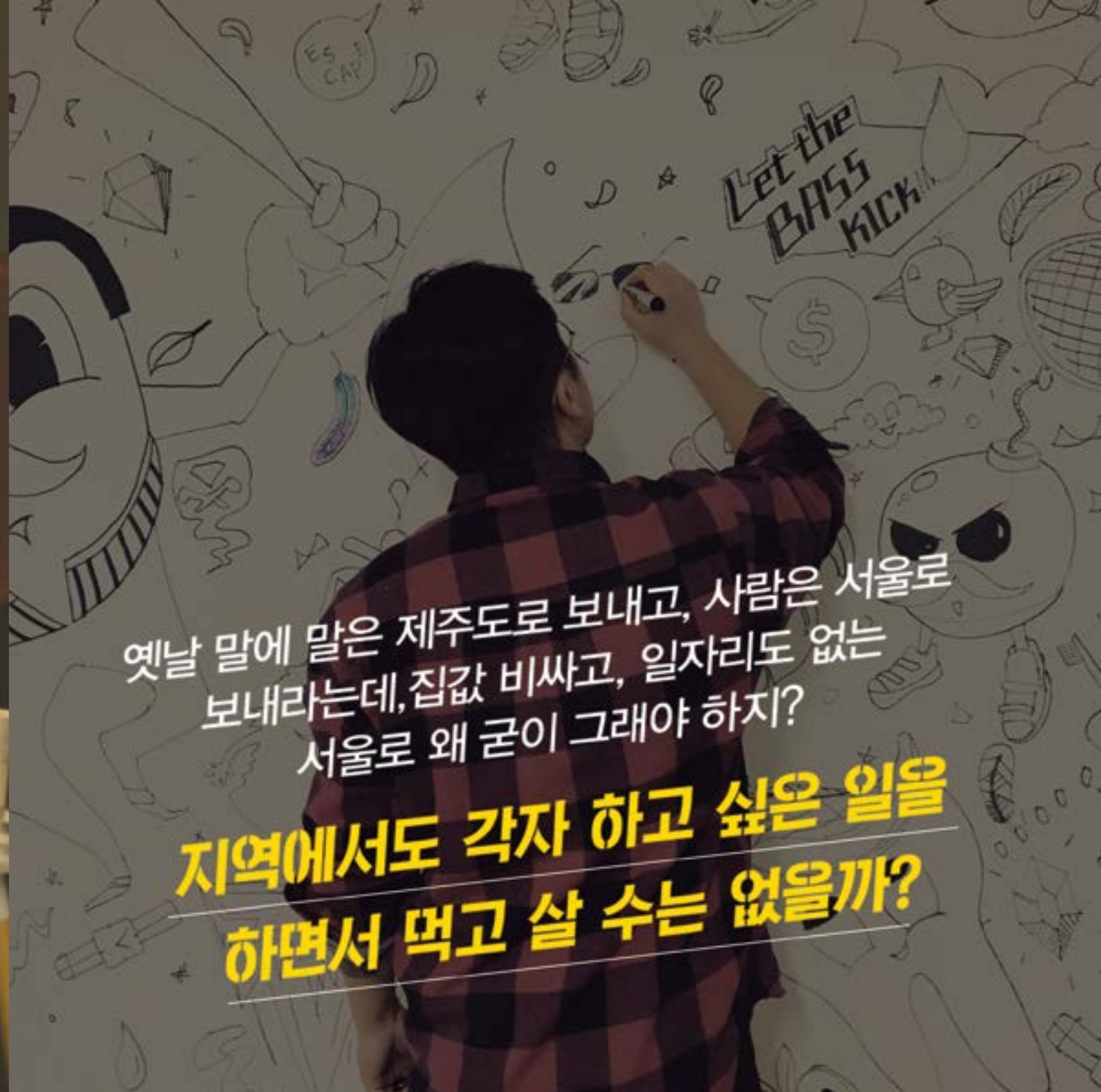
바름 NO! 설립부터 활동까지 모두 청년들의 손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정답! 이곳은 바로 **"바름협동조합"** 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흥해도 청년, 망해도 청년
흥청망청 청년자립 프로젝트
불타는 청춘, 지역에 살다



옛날 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데,집값 비싸고, 일자리도 없는
서울로 왜 굳이 그래야 하지?

지역에서도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는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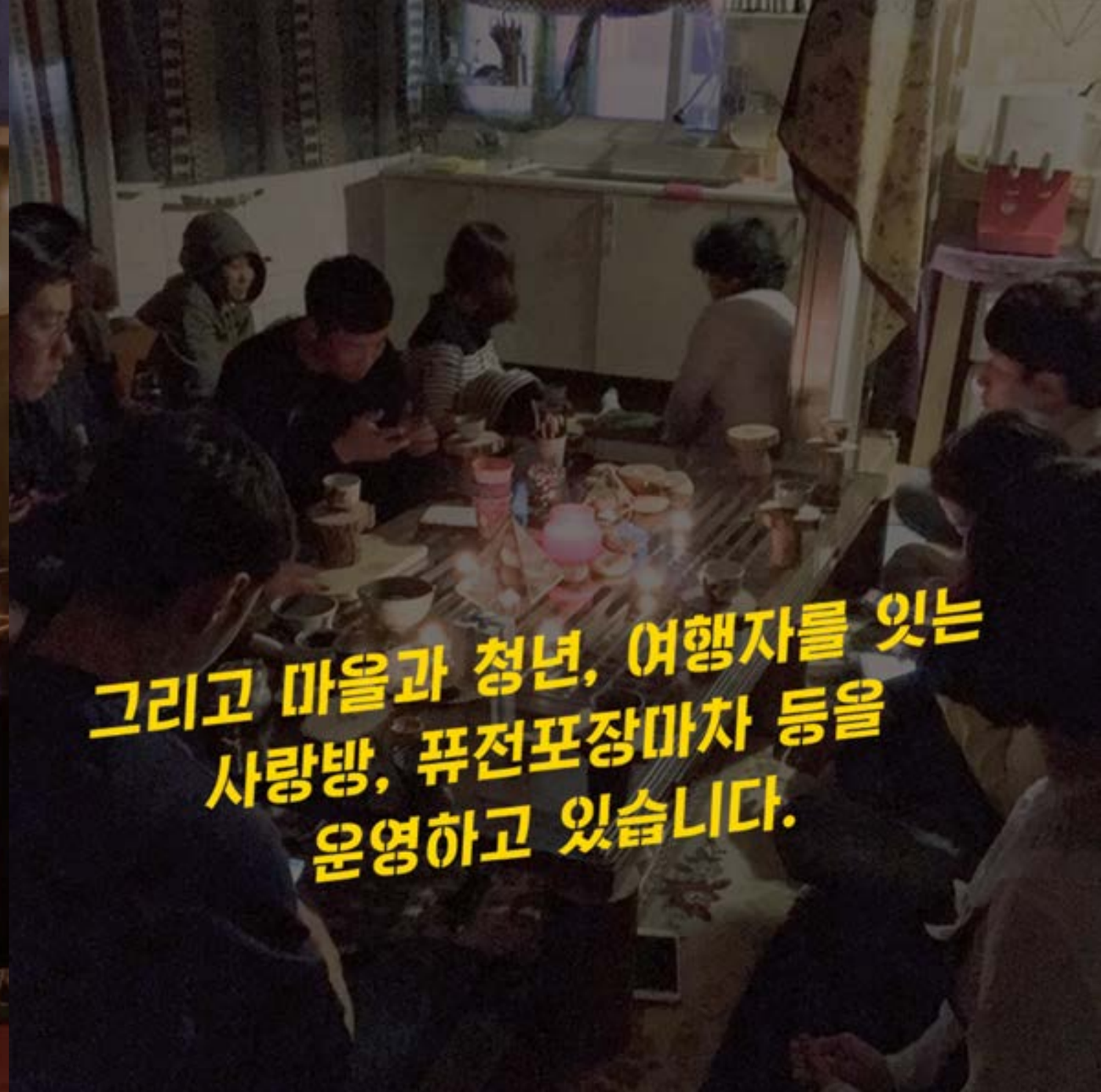
바름협동조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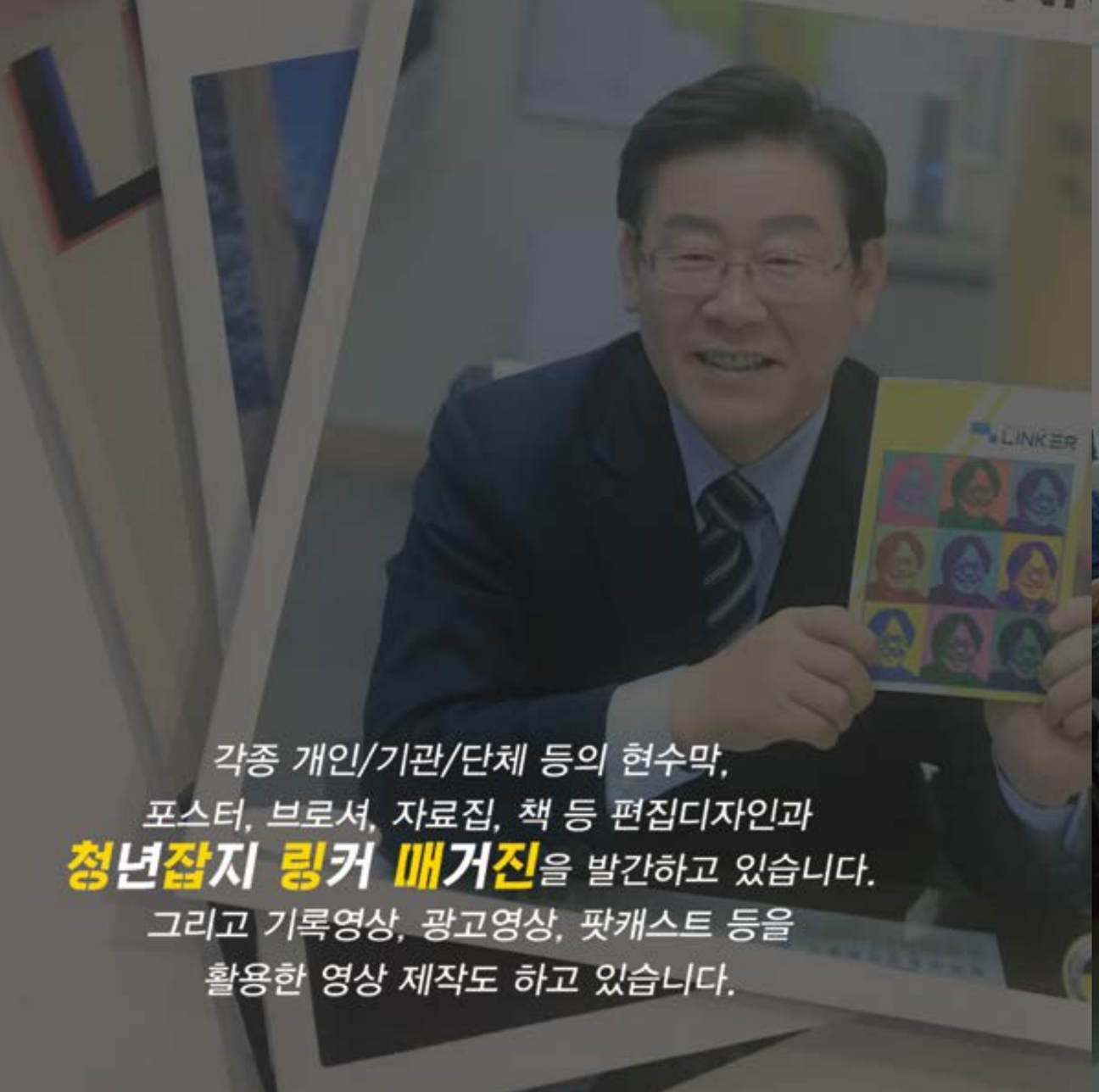
이런 고민을 가진 안동지역의
청년 9명이 모여 지역 청년들이 겪는
노동, 놀이, 학습, 주거 문제를
청년자립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젊은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숙박 및 파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동 유일의 파티 전문 게스트 하우스,

'링커 파티하우스'를 운영하고


저렴하고 비슷한 취향의 청년들을
묶어 이웃이 있는 주거를 제공하는
안동 유일의 청년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청년, 여행자를 잇는
사랑방, 퓨전포장마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인/기관/단체 등의 현수막,
포스터, 브로셔, 자료집, 책 등 편집디자인과
청년잡지 링커 매거진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영상, 광고영상, 팟캐스트 등을
활용한 영상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몰 유통 사업 및,
팟캐스트(불만토로방송)예정 중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레파토리를 벗어나
편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2016년 기준**
연 2억 5천만원 매출 달성했고,
문경-상주-안동 등을 잇는 지역청년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며,

축제/협동미디어/시민강좌 등의 사업에서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 터전을 떠나지 않고,
나와 우리 지역을
함께 발전시켜 가는 길,
바름협동조합의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Step 02

바름협동조합

INTERVIEW

인터뷰로 알아본 우수협동조합

| 인터뷰 – 임원종 이사장, 이구호 이사, 임경식 기획자 |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여기, 내 고향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먹고 살기 위해' 뭉친 청년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도와가며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운영, 문화예술기획, 강연 개최 등 각자의 관심사대로 사업을 추진하며, '먹고 살고' 있는 그들을(바름 협동조합 임원종 이사장, 이구호 이사, 임경식 기획자)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2017년 우수협동조합으로 선정된 안동 바름협동조합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함께 파헤쳐볼까요?

Q. 안녕하세요, 바름협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화려한 수식어보다 쉬운 말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먹고 살려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생활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청년 입장에서 힘들지만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청년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Q. 지역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큰 문제는 인구유출입니다. 경북 소도시들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청년인구유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문제 때문인데요, 과거 경북지방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눈부신 성장을 했고, 지역 출신 인재에게도 일자리의 기회가 열려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서울' 선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자식들이 서울에서 안정적인 '화이트칼라'의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지역의 절대적인 일자리 수도 적다 보니, 공무원 이외의 직군에 취업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분야의 경우에는 취업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수도권에 비해 급여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기존의 수도권 집중화, 열정페이 등의 견고한 카르텔을 깨고 들어가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죠. 이러한 카르텔 아래에서 지역에 남은 청년들은 수도권 진출에 실패했다는 패배감, 좌절감을 매우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스스로 자신이 능력도 실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현실에 좌절하고 기존의 구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그렇다면, 지역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운영, 정기간행물 발행, 영상/방송 콘텐츠 제작, 강연 및 공연 개최 등 지역사회와 청년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링커파티하우스(게스트하우스) 운영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최근에는 지역주민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에 소재한 카톨릭상지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맥주파티를 즐기면서 소통의 장을 만들었고, 지역의 청년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세대의 지역주민과도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현재 준비 중인 여러 사업도 지역과 청년 사이에서 더욱 입소문을 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결합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앞에 스테이지를 여는 '링커스테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음악을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설 수 있는 무대가 별로 없고,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숙박객들이나,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이 모여들게 하고, 청년들의 문화의 장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스킹으로 시작한 지역의 가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문화 향유의 가능성과 그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부상조가 됩니다. 나아가 지역 청년들이 음악활동 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음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당당하게 노래해서 먹고 산다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름협동조합의 철학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와도 일치합니다.



Step 02 | INTERVIEW

Q. 처음 조직을 구성하실 때, 왜 협동조합을 선택하셨나요?

초기 설립 멤버들 모두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생각하다가, 협동조합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구체적인 형태를 찾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구체적 형태는 몰랐지만 저희가 누리고자 했던 시스템은 애초부터 협동조합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굳이 협동조합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수평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형태라면 주식회사라도 괜찮았지만,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가장 잘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 협동조합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하시는 손님들도 사장이 7명이라고 하면 놀라시곤 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이러한 조직 운영 방식도 가능하구나' 하고 놀라고, 협동조합의 팬이 되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협동조합이라는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Q. 조합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총 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 잡지 편집 및 발행, 팟캐스트, 미디어, 문화예술 등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조합원들 덕에 더욱 다채로운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다른 기업과는 다른 바름 협동조합만의 독특한 조직문화가 있나요?

보통 사업체는 같은 업계에서 사업을 기획하지만, 저희는 조합원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링커매거진을 만들기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각 분야에서 한 명이 팀장을 맡고 다른 조합원들은 협력하여 돕습니다. 한 사업에서의 팀장이 다른 사업에서는 팀원이 되기도 팀원이 팀장이 되기도 하죠.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문화이자 장점입니다.

Q. 바름협동조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동상이몽', 한 조합에 너무 다른 관심사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다 보니 저희 스스로도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각자 인생의 고비를 경험하고 만나 지금까지 구심점 없이도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등'도 저희 조합을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누가 누구를 돕는 걸 싫어합니다. '돕는다'는 말은 도움을 주는 주체와 받는 객체 사이에 우월하거나 열등한 지위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저희 조합원 모두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고 가치를 만들어 가며 서로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바름협동조합의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의 가치를 함의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유통 사업(청년몰)과 청취자의 고민을 공유하는 팟캐스트를 준비중입니다. 팟캐스트에서는 항상 조언을 제시하는 기존 방송의 래퍼토리에서 벗어나, 조언 없이도 청취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Q. 앞으로 꼭 해보고 싶으신 청년 관련 사업이 있나요?

특정 사업이 중요하다기보다 가치에 방점을 찍고 지향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청년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외칠 수 있는 우드스탁과 같은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과 연사 초청강연을 열고, 책도 빌릴 수 있는 인문학 카페 운영 등 을 해보고 싶습니다.

Q. 앞으로 10년 후의 바름 협동조합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중년협동조합? 사실 십년 뒤의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애초에 협동조합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내일의 일을 걱정하죠. 십 년 뒤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치라고 봅니다. 그때는 지금과 다른 형태의 고민과 함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거 안정화를 위해 마을이 없던 지역에 마을을 만들어 집단이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거죠.





Q. 앞으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발전했으면 하는 방향이 있다면요?

높은 성과가 아니라 가치로 평가 받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수치를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량화할 수 없는 가치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의 홍수 시대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보다 자유로워지고, 근본적인 목적과 가치 중심의 협동조합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같이 흔한 아저씨들도 살아가니까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할 처지는 아니지만요.(웃음)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해야 하는 것'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들 그런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반대로 얘기합니다.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암묵적으로 열심히 살 것을 강요하지만 열심히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라고만 하지 잘 살 수 있게 해주지는 않으니까, 즐길 수 없으면 피해야 합니다. 정작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뭘 해야 즐거운지 잘 모릅니다. '열심히' 를 모든 순간 스스로에게 강요하기보다, 자신이 무슨 일을 좋아하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말이죠.

Step 03

바름협동조합

우수협동조합 5W

WHY

지역에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WHAT

1. 안동 유일의 파티 전문 게스트하우스(링커파티하우스) 운영
2. 안동 유일의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3. 마을과 청년, 여행자를 잇는 퓨전 포장마차 운영
4. 청년잡지(링커매거진) 발행
5. 영상/방송콘텐츠(기록영상, 광고영상, 팟캐스트 등) 제작
6. 청년축제 기획 및 운영

WHEN

2015년 2월 10
바름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WHO

바름 협동조합의 설립 배경과 목적에 동의하고, 함께 지역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총 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ERE

경상북도 안동시 대안로 180-1
전화 : 054-854-4132
홈페이지 : www.facebook.com/BarumCoop
이메일 : tdld2014@naver.com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Episode 13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문화예술인력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인재를 성장시키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싶어
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Step 01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10고개 Q&A

1. 이곳은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YES! 강원도 춘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판

2. 이곳의 조합원들은 모두 예술을 전공했다?

NO! 역사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 판

3. 이곳은 이미 완벽한 실력을 자랑하는 인재들을 영입한다?

NO! 함께 축제를 공부하고 성장하는 문화인력 양성 단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 판

4. 이곳은 지역의 문화예술 인재들의 서울 진출을 권장한다?

NO! 춘천을 기반으로 하여, 실력을 인정받아 전국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 판

Step 01 | Q&A

5. 이곳은 세계 3대 페스티벌 중 하나를 기획한 경험이 있다?

YES! 세계 3대 마임페스티벌 중 하나인 '춘천 마임축제'를 기획/진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 판

6. 이곳은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진행 한 경험이 있다?

YES! 2016년 인적이 드물어 우범지대로 유명한 '육림고개'에서 다양한 시설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판

7. 이곳은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한다?

YES! 지역의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 아래, 선후배 멘토링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판

8. 이곳은 여러 문화예술단체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기도 한다?

YES! 2016년 7개 문화예술단체에 26명의 문화예술전문 인력을 파견하며, 종합 문화예술전문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 판

9. 이곳은 지역 내의 문화예술행사에만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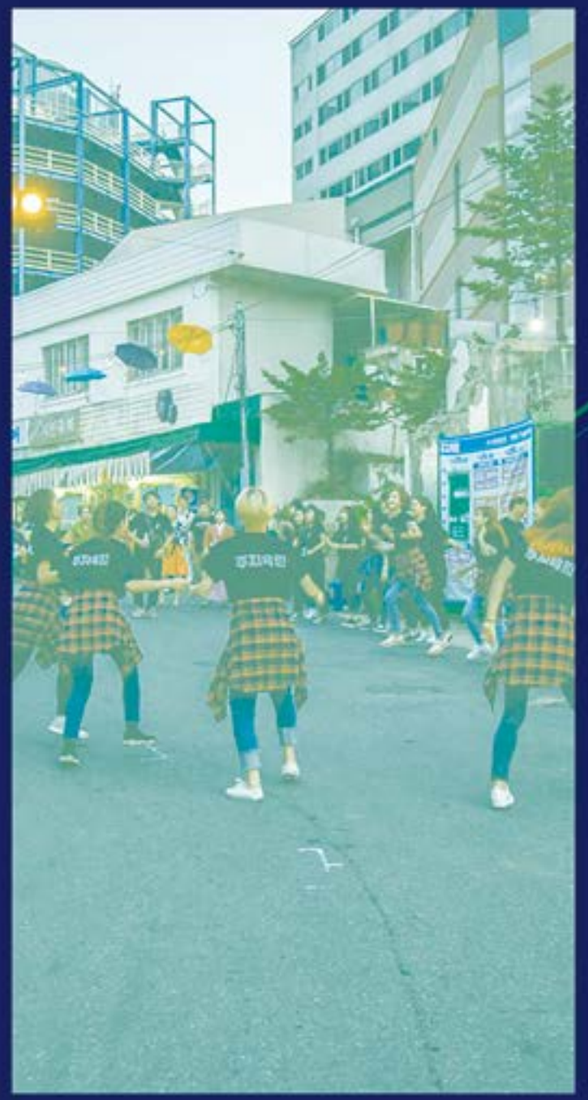
NO! 춘천을 기반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판

10. 이곳은 평등한 구조 속에서 혁신적인 콘텐츠가 도출된다고 믿는다?

YES! 진정한 문화콘텐츠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생산된다고 믿고, 협동조합의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판

정답! 이곳은 바로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청년,

지역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다.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책길만 걷자’

춘천 북 페스티벌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뭔가 청년 냄새가 물씬 나는 것 같은데
서울 사람이 기획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축제의 기획자는 바로?

춘천 청년들이 모인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입니다.





“강원 소재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 **10여개**
한 해 배출되는 졸업생 수 약 **1,000명**인데,
그 중 전공에 따라 취업하는 학생 수 약 0.5% 입니다.
중 · 고등학교부터 국악, 연극 등 문화예술을 공부했는데
너무 아깝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강원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적어서
춘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지역의
문화예술 전공 청년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인 만큼

운영 방식도 민주적이고 자유로워야겠죠?

직책, 계급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그들은 협동조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 프로그램 '판 클럽' 운영, 인력파견, 축제 및 공연제작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남은 청년들이 불편함 없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실력을 키워 전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의 목표**입니다

〈청년이 청년에게 보내는 메시지〉

굳이 꿈을 꾸지 않아도,
선택을 잘 하지 못해도 잘못이 아닙니다.
강박 속에 꿈을 정하고, 노선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어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기회가 생기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리하고 노선을 설정하면 됩니다.
꿈꾸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세요



Step 02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INTERVIEW

인터뷰로 알아본 우수협동조합

| 인터뷰 – 오석조 이사장 |

Q. 간단한 조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입니다. 지역 내 축제나 공연기획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기획 기회를 제공해서 문화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인큐베이팅 단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11명이 춘천을 기반으로 강원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최근에 집중하고 계신 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0월 중 화천 들깨 페스티벌을 준비 중입니다. 들깨 밭에서 춘천의 청년들과 화천의 청년들이 모여 개최하는 캠핑 축제인데요, 저희가 들깨 페스티벌 사무국을 열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축제의 A부터 Z까지 함께 하며, 사무국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축제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운교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교동은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라 문화예술분야의 청년들이 자생적으로 모여드는 지역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모여 운교동 페스티벌을 개최해 볼 생각입니다. '내 멋대로 3대 페스티벌'이라는 콘셉트를 구상 중인데, 누가 정하는지도 모르고,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세계 3대 페스티벌'이라는 콘셉트를 패러디하여 우리들 맘대로 운교동 3대 페스티벌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Q.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뜻 깊었던 일이 있으셨나요?

작년 육림고개에서 진행한 주지육림 축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저희가 10개월 정도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실제 3명의 직원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저희 협동조합에서 모두 일하고 있는데, 축제를 진행하고 인력을 양성하여 문화예술 인재들이 사회적 안전망 아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의 사회적 가치를 실제화 했던 가장 뜻깊은 사례였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협동조합을 조직하게 되셨나요?

저는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수업 중 우연히 문화예술 관련 수업을 수강하다가 딜리셔스 샌드위치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젠틀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뉴욕의 사례와 문화예술의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막연하게 '문화예술을 하면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후, 진로를 변경하여 극단에서 활동을 시작했죠. 조명스텝으로 처음 문화예술분야에서 일을 시작했고, 청년정책, 청년활동 지원에 관심이 생겨 청년 분야에서의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 분야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생겼고 축제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축제 일이 너무도 재미있어서 극단에서 나와 프리랜서로 축제 관련 일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축제를 직접 기획해보자는 생각으로 의기투합하여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먼저 등록했는데, 법인 전환 시점에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던 중 협동조합을 선택했습니다. 협동조합이 가장 민주적인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협동조합을 계속 공부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전략 등을 책을 통해 공부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운영하며 느끼는 좌절, 어려움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현장을 통해 공부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Q. 조직을 구성하실 때, 협동조합을 선택하게 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평등하지 않은 수직적인 구조에서는 축제, 공연 등 문화행사 콘텐츠를 기획할 때 진정한 의미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문화와 민주적인 구조에서 혁신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기 마련이죠. 수직적 구조 아래서 라면 감독, 사무국장, 팀장 순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회의 속에서 축제 콘텐츠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책으로 나누고, 계급으로 나누면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불가능하고, 결론적으로 기획하는 우리가 즐겁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조직 구성 시점에서 협동조합을 선택했습니다.

Q. 처음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 구성원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많았고, 지금도 꽤나 있습니다.(웃음) 1인 1표제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보다 일의 진행 속도가 느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 하나 바꾸는 데도 의견을 모으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협동조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조합원의 뜻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어떠한 것도 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수익이 우선되는 구조 내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Q.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졸업 당시 2012년에 문화예술 분야에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강원도권 채용정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도권으로 이사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굳이 제 고향을 떠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고 30년 넘게 춘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춘천을 떠나는 일은 제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길을 걸으면 곳곳에 제 기억의 흔적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수도권은 제게 정말 낯선 미지의 땅입니다. 굳이 거기서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지역에서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을 발 벗고 찾아 다녔죠. 그 때 한 극단을 발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땐 사실 '문화예술을 꼭 해야겠다.' 라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 멋있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이렇게 불모의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기회가 서울에만 몰려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은 춘천을 기반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도권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이 가능하죠. 지역은 지역일 뿐, 우리의 실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좋으면 춘천을 기반으로 하고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도 일 할 수 있으니까요.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문화인력양성소'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인력양성 협동조합 판의 가장 큰 소셜 미션은 지역의 문화예술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강원지역에는 약 10개정도의 문화예술 관련 전공이 있는데, 한 해 배출되는 졸업생이 약 1,000명 정도입니다. 그 중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학생들은 약 0.5%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예술 분야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실기 특기생들인데 국악, 무용, 연극, 미술 등 예술분야에 늦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집중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건 굉장한 사회적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지역에 존재하는지 생각해 봤을 때 현실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일단 지역에 문화예술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단체의 절대적 숫자가 많지 않고, 몇 년 째 구인구직을 하고 있지 않은 단체들을 제외하면 그 수는 더욱 부족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문화예술인력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인재를 성장시키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싶어 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Q. 우수사례로 선정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제안과 작년 한 해의 사업을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지원했는데,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놀랍습니다.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인정해주는 거니까, 전국에서 뽑힌 거니까, 작년 한 해 우리 참 열심히 달렸구나 하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말이죠. 이 기세를 몰아 조합원들이 더 열심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우수사례로 뽑힐 수 있었던 협동조합 '판'만의 비결이 있다면요?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닐까요? 회의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젊음'도 있겠네요. 평균나이 20대의 젊은 연령대이다 보니 더 패기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같은 지역 출신의 선후배끼리 뭉쳤는데 그래서 더 의기투합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Q. 우수사례 선정자로서 협동조합 시작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 드려도 될까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갈 수 있죠. 사회적경제에 대한 미션 없이 돈만 보고 이 영역에 들어온다면 본인도 후회할 수 있지만, 타인의 기회를 앗아가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철학과 창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명확하게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 창업이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고 파트너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의지와 책임을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젊은 나이에 창업의 책임감과 무게를 짊어진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도전을 통해 실패와 성공에 대한 경험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점입니다. 저도 첫 번째 창업은 실패하고 팀이 해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을 통해 두 번째 창업을 했는데, 이전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도 좋은 경험이었던 셈입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원칙대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울만 좋은 협동조합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선택을 거쳐 협동조합에 입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 년 뒤에 지금 있는 곳을 떠나 주차장이 있는 남의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십 년 뒤에는 저희 건물이 있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목표죠.(웃음)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만족하는 급여와 복지수준을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가진 조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으로 전국 최고로 인정받는 곳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불편함 없이, 심리적 박탈감 없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실력을 키워, 서울에서도 일할 수 있고 전국을 상대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분권 개념이기도 한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굳이 청년세대가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 청년들이 중년이 되고 가정을 꾸리면서 지역의 선순환 구조가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춘천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춘천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에 저희와 제 자신을 알려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 전국을 대상으로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멋진 생존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Q. 청년들과 호흡하며 활동하시는 입장에서 함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굳이 꿈을 꾸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꿈을 꾸라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강요라고 봅니다. 굳이 꿈이 없어도 살다 보면 자연스레 목표가 생깁니다. '나 오늘 축구 보고 잘거야.', '난 저 사람과 사귀겠어!',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겠어!' 같은 자연스러운 목표들 말이죠. 그런 목표가 모이면 꿈이 되는 것인데, 당연히 '나 오늘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이 김치찌개를 골라줘도 별로일 수 있고, 국수를 골라줘도 별로일 수 있고, 내가 오늘 뭐 먹고 싶은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뭐 먹고 싶은지 고르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고르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옳은 건 아니죠. 무엇이라도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건 하지 않게 될 테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강박 속에 꿈을 정하고 노선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 대중들에게 스스로를 어필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나 전화를 하던, 인맥을 활용하던, 어떻게든 '나' 라는 사람을 알려야 사람들이 나를 써볼까 생각하고, 그렇게 기회가 생겼는데도 내키지 않는다면 안 하면 되죠. 이 일을 하는 것이 싫으면 다른 일을 하면 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리하고 노선을 설정하면 됩니다. 꿈꾸는 것에 대한 강박을 갖지 말고 아무거나 먼저 시작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Step 03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우수협동조합 5W

WHY

지역 내 축제, 공연기획 및 문화예술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기회제공을 통해 문화 예술 인력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WHAT

축제, 공연 및 문화행사 제작(무한청춘 페스티벌 '주지육림', 춘천 마임축제 등)
문화예술 전문교육 및 멘토링
문화예술단체 인력 파견 등

WHEN

2016년 4월 20일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설립 신고 수리

WHO

협동조합 '판'의 설립 배경과 목적에 동의하고, 함께 지역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총 11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ERE

주소: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97 3층 (운교동)
전화: 070-8672-0155
팩스: 070-7500-8745
홈페이지 : www.panculture.net
이메일 : panculture@naver.com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Episode 14

협동조합 아이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조합원들도 이곳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곳에서 일하게 하자는 목표죠.
작은 실천이지만 시작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Step 01

협동조합아이엠

10고개 Q&A

1. 이곳은 크게 나누어 '여행'과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엠: YES! 숙박, 기타 여행서비스 등의 '여행' 분야와 출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교육'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조합원의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곳은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아이엠: YES! 특히, 해운대구 지역 내에 거주하는 4명의 하우스 키핑 담당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3. 이곳은 조합원들의 자아실현 이상 추구만을 중시한다?

아이엠: NO! 협동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 영위와 자아실현 모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4. 이곳은 매년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매출 성장은 다소 미비하다?

아이엠: NO! 조합원들의 다양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큰 폭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이곳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우수한 시설과 서비스로 유명하다?

아이엠: YES!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아 관광공사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 업소로 선정되었습니다.

6. 이곳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단점은 도심과 다소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아이엠: NO! 해운대역으로부터 도보 5분! 해운대 해변으로부터 도보 10분! 황금 입지를 자랑합니다.

7. 이곳은 부산역을 찾는 여행객들을 위한 짐 배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이엠: YES! 해운대구와 함께 숙소 짐 배달서비스인 '아재짐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 여행을 즐기고, 저녁에 숙소에 도착하면 짐이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8. 이곳의 교육 분야에서 출판 및 디자인 '대행'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아이엠: NO! 대행뿐만 아니라 출판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두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9. 이곳은 한국학습컨설팅센터, 부산대 교육학과 연구회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아이엠: YES!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책자와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10. 이곳의 최종 목표는 교육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아이엠: YES! 여행사업과 교육사업의 결합으로 휴식을 즐기며 배울 수 있는 교육관광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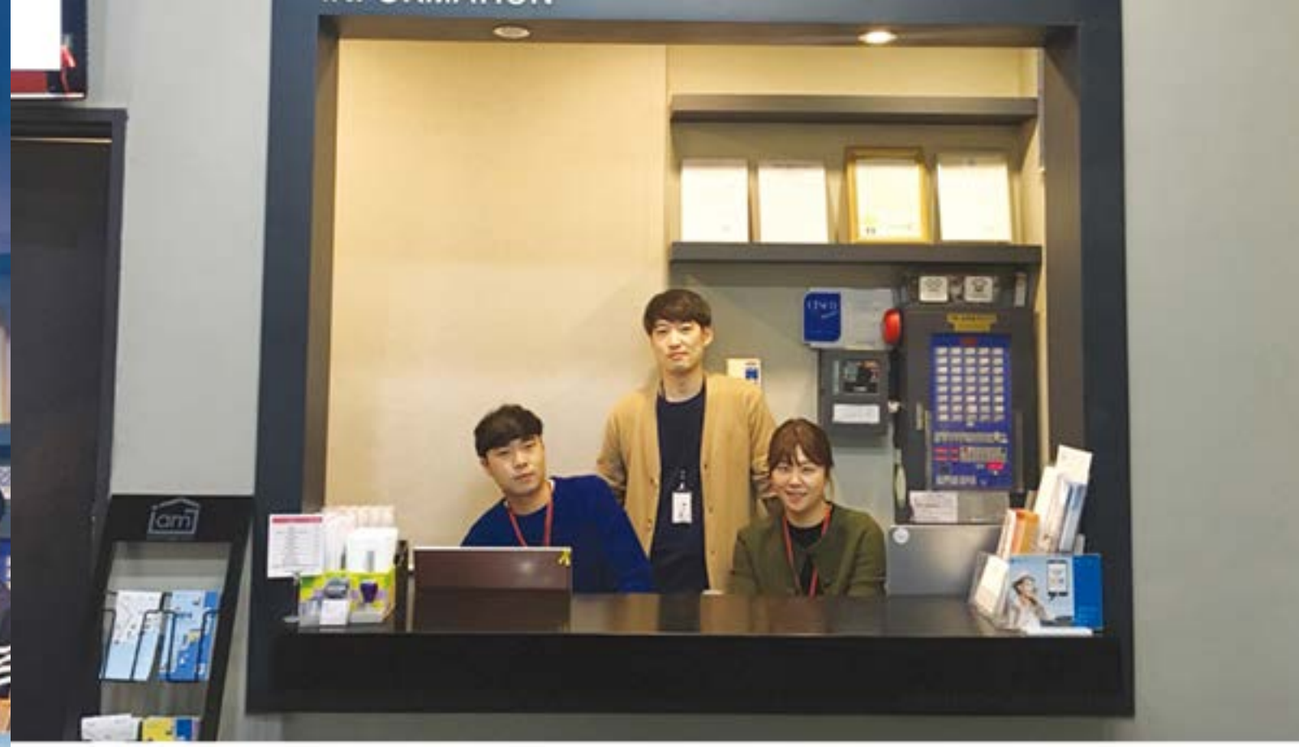
정답! 이곳은 바로 **"협동조합아이엠"** 입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오~쫌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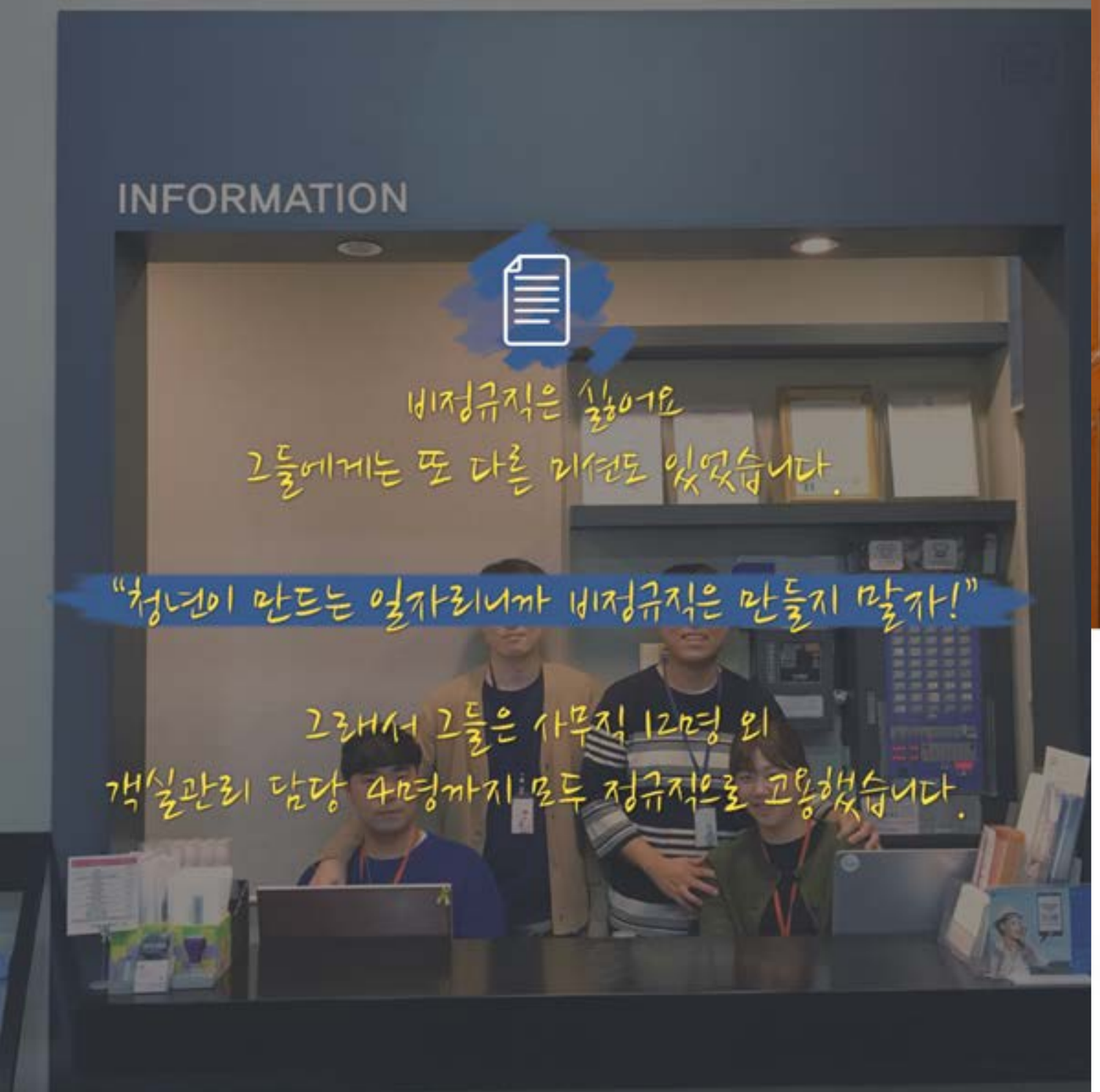
부산 청년
협동조합 이야기
협동조합 아이엠



부산 지역에 숙박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에 교육업에 종사하는 청년들도 있었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숙박에서부터 여행, 출판, 교육 등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비정규직은 싫어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리션도 있었습니다.

"청년이 만드는 일자리니까 비정규직은 만들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사무직 12명 외
객실관리 담당 4명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했습니다.



42객실 규모의 아이엠 레지던스 &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
부산 여행자 및 기업체 고객을 대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콘텐츠디자인 및 출판서비스를 담당하는
아이엠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학습컨설팅센터 및 부산대교육학과연구회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책자와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개발을 협의 중입니다.

그럼 이 조합은 어디에 있는가?

Q. 부산하면 어디?
A. 해운대 ~

그 해운대 인근에 있는 해운대역에서 도보 5분!
해운대 해변까지 도보 10분!



"그런데 여행을 다니다보면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아이엠은
'아재짐쫌*'(번역: 아저씨 짐 좀 부탁합니다.)
서비스를 운영, 여행객의 짐도 보관하고,
부산역까지 운반도 해드립니다

* 부산 여행객 대상 해운대, 부산역 간 여행짐 운반 및 보관 서비스,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해운대 지역 숙박업소, 해운대 게스트하우스 네트워크, 협동조합 아이엠이 협력하여 해운대구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

Q.
설립 3년차 성과는요?

A.
2014년 매출이 약 1억 정도 였는데요,
2016년에는 8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조합원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영역도 점차 넓혀가고 있는데요,

2014년 숙박업에서 시작하여,
2015년 학습컨설팅 센터, 이이엠쿱,
2017년 '아재짐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결하고 우수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우수업소로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쉬면서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관광
여행객도 직원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숙박업체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Step 02

협동조합아이엠

INTERVIEW

인터뷰로 알아본 우수협동조합

| 인터뷰 – 손정현, 김수헌 팀장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조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협동조합 아이엠이라고 합니다. 2014년 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여행 · 숙박업과 교육 · 출판업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관광업과 관련하여 짐 배달서비스, 출판 디자인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Q. 우수사례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자랑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자랑 아닐까요?(웃음) 조합 내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이 있고, 잘 뭉쳐서 해낼 수 있다는 게 저희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타 협동조합 사례들보다 '창업'에 더 가깝습니다. 말 그대로 생계가 걸려있는 거죠. 전 직장을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안정화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마도 이런 노력이 비결이 된 것 같습니다. 따로 본업이 있고,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 협동조합이 본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잘해보고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 동안 경험이 없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고 안정화 시켜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원래 여행 관련 사업을 하다가 협동조합 아이엠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원들의 1/3 정도는 게스트하우스 등 여행 ·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다른 구성원들은 공공기관, 사단법인 등 교육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교육 관광 사업을 개발하여 먹고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는 아이엠 게스트하우스&레지던스를 운영하면서, '아이엠쿱'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 교육 · 출판업 등의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의 교육사업의 운영을 대행하거나, 교육서적 출판, 컨설팅 등의 사업을 통해 여행사업과 교육사업의 조화를 위한 가능성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교육 관광이 최종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중에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숙박업에 조금 더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접목시켜보자는 취지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행지라는 부산의 입지적 특성에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쉬는 동시에, 무엇인가를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수학여행 프로그램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진행 중인 주력 사업, 아이엠 게스트하우스&레지던스 자랑 좀 해주세요.

현재 단계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여행 · 숙박업, 아이엠 게스트하우스&레지던스 운영입니다. 약 43여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죠. 관광공사에서 우수업소로 품질인증을 받을 정도로 청결하고 우수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모든 직원을 정직원으로 고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우스 키핑을 담당하는 운영지원팀의 경우 인근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직원 4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모든 직원을 정직원으로 고용한다는 점이 인상 깊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조합원들도 이곳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곳에서 일하게 하자는 목표죠. 작은 실천이지만 시작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Q. 아이엠 게스트하우스&레지던스의 특별한 홍보전략이 있나요?

게스트하우스와 레지던스는 저희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지만, 비수기와 성수기가 나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생, 기업체를 대상으로 체험학습, 워크숍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에 '아이엠'의 이름을 딴 호텔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 운영 등 전반적인 사업 전체에 대해 컨설팅 했습니다. 디자인, 운영방식, 직원관리 등의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현재 순천 '아이엠 호텔'과 부산 '아이엠 게스트하우스&레지던스' 간의 연계된 숙박객 서비스 및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Q.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직접 '아이엠쿱'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며, 교육 서적을 전문으로 출판,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집필진과 협력하여 교육 관련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출판 디자인 대행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컨설팅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방과 후 학습 강사를 파견하고 대학교에 특강을 나가기도 합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최근에 기획하고 계신 교육콘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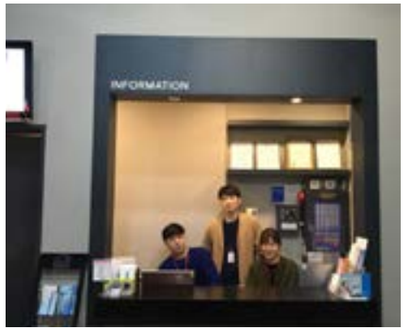
최근, 시간관리, 집중력, 기억력 등 다섯 권의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 서적을 발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판된 서적을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Q. 창업하실 때, 왜 협동조합을 선택하셨나요?

처음 창업을 하고자 모였을 때 모인 사람들 모두 3~5년 정도의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자본금을 모아 공동소유, 공동운영의 이상적인 모델을 구축해보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협동조합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단 구성원들 모두 서로의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망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믿음이었죠.

Step 02 | INTERVIEW



Q.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일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금을 내고, 직책을 나누어 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큰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지만,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11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시작하다 보니, 추후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성장 방향이 다를 수는 있겠죠. 또한, 새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다른 커리어를 위해 조합을 떠나는 사람 등 사람들이 오고 나가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기는 합니다. 또, 새로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바로 조합에 합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있겠네요.

Q. 그렇다면, 협동조합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시작하니 강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보다, 회사가 저의 생계와 사회적 지위, 사회생활 등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제 자신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더 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대주주나 오너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자리를 자신이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더 발전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Q. 협동조합 아이엠의 10년 뒤 모습은 어떨까요?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자리를 잡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시작한 일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의 건물에서 작은 관광호텔과 출판사, 강의실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숙박업, 교육 사업이 사회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정착되게 하고 싶습니다.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Q. 새롭게 협동조합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협동조합의 장단점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동조합이 수평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밖에서 겪어야 할 단계적인 부분도 많고, 모두의 목적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가 아니라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내해야 할 과정도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 비해 조합원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시간, 노력 등의 기회비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비슷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보장해둔다면, 실제로 함께 더욱 열심히 일하는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의미가 아니라 일시적 지원을 보고 시작한다면 그런 열기를 지속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시작한다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tep 03

협동조합아이엠

우수협동조합 5W

WHY

협동조합아이엠은 조합원의 자아실현과 새로운 여행서비스, 교육 사업을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자 설립했습니다.

WHAT

숙박에서부터 여행, 출판, 교육 등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WHEN

2014년 6월 18일
협동조합아이엠 설립 신고 수리

WHO

협동조합아이엠의 설립 배경과 목적에 동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11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ER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 8번길 31, 아이엠 레지던스
연락처: 051-988-1800
홈페이지: http://iamresidence.com/
이메일: IAM@IAMVILLAGE.COM

Copyright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2017 협동조합 사례집

2017 협동조합 사례집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8층
연락처	031) 697-7700
홈페이지	www.coop.go.kr
편집 · 디자인	사회적협동조합 디자인 해움 042) 538-1760
	㈜생각나눔소 02) 407-9006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유료배포를 금합니다.